

1-15-2009

모교회 모델을 통한 교회개혁론: 엘바인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Taehyo Ban 반태효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Recommended Citation**

반태효, "모교회 모델을 통한 교회개혁론: 엘바인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9.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N EFFECTIVE STRATEGY FOR CHURCH PLANTING UTILIZING THE SATELLITE MODEL: WITH SPECIAL REFERENCE TO IRVINE ONNURI CHURCH

written by

TAEHYO BAN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Moon Sang Kwon

Young Shin Kim

Seyoon Kim

January 15, 2009

**AN EFFECTIVE STRATEGY FOR CHURCH
PLANTING UTILIZING THE SATELLITE
MODEL: WITH SPECIAL REFERENCE TO
IRVINE ONNURI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TAEHYO BAN

JANUARY 2009

모교회 모델을 통한 교회개혁론:
얼바인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권문상 교수

반 태 효

2009년 1월

Abstract

Doctor of Ministry

An Effective Strategy for Church Planting Utilizing the Satellite Model:
with Special Reference to Irvine Onnuri Church

2009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 main purpose of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suggest a strategy for the Church planting through transplanting of a model church or a mother church. The Chapter One addresses the necessity and inevitability of the Church planting in our contemporary ministerial situations. Considering the short average span of many planted churches' lives, it is inevitable that more organized preparation and process need for Church planting ministry.

The Chapter Two deals with practical strategies and necessary conditions in terms of Church planting. The necessary conditions suggested in this project can be applied to any church planting ministries regardless of their visions and goals.

The Chapter Three, as a main point of this project, introduces a strategy of the Church planting through transplanting of a model church. This ministerial tactic of Church planting is a most effective method that motivates and promotes the Kingdom of God and the community in the Church setting. Model church, as a mother church, has to continue to support spiritual and financial needs for a new planting church until she grows and plants another church. When the pattern of planting a church can be seen as a transplanting model following a model church or mother church, it is important to consider more objective analysis and evaluation for the process. In here, a creative approach might be a decisive point for the success of the Church planting. The true model for any church planting method should not be a mother church but the Apostolic Church in the Acts.

The Chapter Four, as a case study, illustrates the preparation and process of

planting the Irvine Onnuri Church, Based on analysis of the condition of the City of Irvine and the Korean community, how the core members were trained and placed for their roles will be explained at length.

The Chapter Five reveals the real process of how Irvine Church transplanted various ministerial programs of the model church to her real setting. Among the programs for planting a new church, there are several crucial ministries: evangelism, hospitality of new comers, sharing the life called as 'koinonia,' education, service, and mission. Each of these ministerial categories needs to be practiced by stages.

This Ministry Focus Paper can contribute to the area of Church planting by helping many ministers and church planters have more practical and organized insights and strategies for their real Church planting ministry. Furthermore, This project may be a step stone for building more biblical and healthy church ministry.

Theological Mentors: Moon Sang Kwon, Ph. D.

Young Shin Kim, Ph. D.

Seyoon Kim, Ph. D.

감사의 글

아무 것도 아닌 저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연구와 논문을 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목회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족한 사람에게 이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고, 논문을 쓸 수 있는 용기와 논문의 방향을 제시해주신 김세운 박사님과 김태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듬어지지 않고 영성한 내용을 성실하며 정확한 지도로 논문을 완성하게 해주신 권문상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교회개척론과 자연적 교회성장론 과목을 통해 논문에 대한 통찰력을 주신 밥 로간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쓸 엄두도 내지 못할 때 논문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김혜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시는 어머니와 그리고 논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료를 찾고 정리를 도와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아빠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주는 다혜, 호민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영적 멘토가 되시는 동교동교회 음동성 목사님, 장로회신학대학교 유해룡 교수님, 임종표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한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삶으로, 본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하용조 목사님,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개척하도록 지원하고 기도해주신 서울 온누리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의 꿈을 이루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한 얼바인 온누리교회 성도들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8년 12월 반태효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 제기와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 2 장 교회 개척의 전략	6
제 1 절 다양한 교회 개척 전략	6
1. 교단을 통한 교회 개척전략	6
가. 개척목표와 방법	7
나. 개척지 선정	7
다. 개척자 선정	8
라. 교회 개척의 후원과 관리	8
2. 교회를 통한 교회 개척전략	9
가. 분립개척	10
나. 협력개척	15
3. 개인을 통한 교회 개척전략	17
제 2 절 교회 개척의 필수 요건	17
1. 개척할 교회의 비전	18
2. 교회론과 목회철학	20
가. 성경적인 교회론	20
나. 목회철학	21
3. 교회 개척자	22
가. 교회 개척자로서의 소명의식	23
나. 개척자로서의 자질	23
다. 개척자로서의 훈련	24
라. 교회 개척자에 대한 평가	25
4. 사역 대상그룹	26

가. 지역조사의 중요성	26
나. 목표 대상으로서의 목표 그룹 설정	27
5. 목회 전략	28
가. 교회론과 목회철학에 따른 양육체계	28
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성장 단계 설정	31
다. 사역체계 수립	32
라. 교회 개척 팀 확보	34
마. 재정 계획 및 하드웨어 준비	36
 제 3 장 모교회 모델을 통한 교회 개척전략	39
제 1 절 모교회 모델 개척의 장점	40
제 2 절 모교회 모델 개척의 모본	43
1. 성경적 모본	43
2. 현대 교회 모본	44
제 3 절 모교회에 대한 평가	45
제 4 절 모교회 모델의 DNA 확보	49
제 5 절 모교회 모델을 통한 개척의 실제적 적용	53
1. 모방할 수 있는 것	53
2. 모방할 수 없는 것	55
 제 4 장 얼바인 온누리교회 개척의 준비 및 과정	58
제 1 절 얼바인 이민 사회 분석	58
1. 얼바인 지역	59
2. 얼바인 한인들의 생활상	61
3. 얼바인 한인교회 분석	62
제 2 절 얼바인 온누리교회 개척을 위한 준비	63
1. 교회 개척을 위한 핵심그룹 양성	63
2. 개척 일정	64

3 개척교회 설립을 위한 재정계획	65
4 창립예배를 위한 구체적 준비	67
제 5 장 얼바인 온누리교회 목회 전략	70
제 1절 교회 성장의 목표와 방향 설정	70
제 2절 구체적 사역 프로그램	71
1. 전도 및 새 가족 사역	72
가. 전도학교	73
나. 새 가족 사역	74
2 예배와 찬양 사역	76
3 큐티의 생활화	79
4 양육-일대일 제자훈련을 통한 제자화와 제자삼기	80
5 차세대와 EM(English Ministry) 사역	83
6 공동체	85
가. 순	86
나. 다락방	88
다. 순장사관학교	89
7 가정 사역	90
가. 아버지 학교	91
나. 어머니 학교	93
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94
라. 기타 학교들	95
8 여성사역	96
가. 여성 증보기도사역	96
나. 수요 오전 여성예배	96
다. 여성 리더십 훈련학교	97
라. 만나 사역	98
마. 여성 싱글사역	98

바. 행사팀	99
9. 치유와 회복사역	99
가. 내적 치유	100
나. 샤이닝 글로리	100
10. 기도와 영성 훈련	101
11. 리더십 개발	103
가. 일꾼양육 훈련과정	104
나. 안수집사 훈련학교	105
다. OMC 참석	106
12. 선교	107
가. 단기선교	109
나. 의료선교	110
다. 선교사 후원 및 파송	110
13.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샌디에고 온누리교회 개척	111
 제 6 장 결론	 114
 참고문헌	 118
 Vita	 122

표 목 차

<표 1> 엘바인 온누리교회 양육체계	31
<표 2> 새 가족반 통계	76
<표 3> 새가족반 수료자 수	76
<표 4>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프로그램	95
<표 5> 샤이닝 글로리 프로그램	10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기독교 선교 역사상 주목할 만한 교회 성장을 이룩한 한국교회는 개신교 선교 100주년을 지나오면서 피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그것도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현재 남미 지역, 아프리카 지역,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엄청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룩하고 있지만 미국교회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교회들을 가진 나라로는 역시 한국교회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는 정체 내지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 교회가 우려를 지나 위기의식을 가질 만큼 인구증가에 비해 기독교 인구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세기에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룬 한국 경제가 가장 빨리 쇠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한국교회에도 예외 없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깝다.

많은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고 있지만 그 숫자에 비교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교회개척에 대한 개척자의 확고한 목회철학과 철저한 준비가 없이 개척하기만 하면 성장이 따라올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교회개척에 실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개척을 하고도 실제로 회심성장이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새로운 교회나 개척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동성장이거나 교인이동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교회의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한국 내에서보다 해외 이민교회의 개척은 더 많은 어려움과 부작용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와그너 박사의

주장대로 “하늘 아래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¹⁾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교회성장은 정체 내지 감소되고, 교회의 영향력과 생명력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교회 개척의 환경은 점점 불리해지는 여건이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의 탄생은 꼭 필요하며 계속되어야 한다.

예수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사마 아버지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8-20)는 말씀을 보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다. 교회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기관이며 소망이다. 모든 족속에 맞는 교회를 세움으로 세례를 주고 양육하여 또 다른 교회를 재생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오직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킨다. 인간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도 변화될 수 없다. 이 복음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선교 더 나아가 교회개척의 근본적인 의미이다.

슈트어트 크리스틴은 교회개척의 이유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영혼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교회성장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넷째, 침체된 교회를 갱신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역 및 세계복음화를 위해 전략적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시기적으로 성령께서 요청하시기 때문이다.²⁾

건강한 교회는 세포분열이 가속화되고 그 결과 새로운 교회가 설립되어 성장하는 교회이다. 가장 건강한 교회는 자신 혼자 한 곳에 큰 교회가 되려는 것 보다, 새로운 지역에 분립하여 자신을 닮은 자식교회를 많이 세우는 교회이다. 즉 확장성장(expansion growth)보다는 분립성장(extension growth)을 지향하는 교회이다.³⁾

1) Aubrey Malphurs, Joe Aldrich, (21세기) 교회개척과 성장과정, 홍용표 역 (서울: 예찬사, 1996), 35.

2) 명성훈, 교회개척의 원리와 전략 (서울: 국민일보, 2000), 17.

3) Ibid., 22.

특별히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비용(적어도 목회자의 기본 생활비와 개척을 위한 기본시설과 장소에 대한 비용)이 점점 더 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교회 개척을 개인적인 헌신과 희생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적극적으로 교회를 재생산하고 개척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대개 기존교회는 15년이 지나면서부터 정체와 감소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적어도 80퍼센트의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는 교회의 생명주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돈 스튜어트(Don Stewart) 등이 언급한 것처럼 새 교회의 발전과정은 인간의 생명주기와 너무나 유사하다.⁴⁾ 인간처럼 교회도 탄생, 성장, 재생산, 정체와 감소의 생명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개척에 대한 필요성과 목회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부를 위해 풀러 신학교 목회학박사 과정을 이수하던 중 교회 개척론과 자연적 교회성장론 과목은 본 연구자에게 교회개척에 대한 열정과 확신,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공부하던 중에 남가주 엘바인 지역에 이민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모교회의 목회 경험과 교회개척 이론을 접목하여 엘바인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을 얻었다. 모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모교회 모델을 통한 개척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실제로 엘바인 온누리교회를 개척하면서 경험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선교사의 무덤이요, 교회 개척이 가장 어렵다는 일본에서도 모교회 모델을 통한 교회개척(현재 일본에 6개의 온누리교회가 개척되었다)을 시도한 결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회개척의 방법은 다양하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힘든 방법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교회가 건강하고 성경적이며, 시대에 적합한 검증된 모델인 경우, 모교회 모델을 통한 교회개척은 개인의 능력이나 지역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적인 교회개척 전략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모교회 모델을 통한 교회 개척전략을 엘바인 온누리교회를 개척하면서 적용했던 내용을

4) Bob Logan, “교회개척론” (강의안,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1), 23.

중심으로 연구하여 앞으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할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개척과 건강한 성장이 쉽지 않은 이민사회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앨바인 온누리교회를 실제로 개척하면서, 어떤 목회철학과 개척전략을 가지고 시작했는지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자가 직접 개척을 시작하면서 초기부터 준비하면서 시도했던 방법과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며 미래 이민 개척교회의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해 보았다.

1장에서는 서론적으로 개척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할 것이다. 2장에서는 교회 개척을 위한 전략을 논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교회를 개척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 데 그 중에서도 교단을 통해서 하는 개척전략과 교회를 통한 교회 개척전략, 그리고 개인을 통한 교회 개척전략을 언급하겠다.

2절에서는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척하는 교회가 가지고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다. 개척자가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뼈대와도 같은 교회론과 목회철학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개척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교회 개척자가 가져야 하는 소명의식과 개척자로서의 자질들, 개척자로서 받아야 할 훈련들, 그리고 교회 개척자에 대한 평가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교회를 개척할 때 대상이 되는 사역 대상그룹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개척 지역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목표대상이 되는 목표 그룹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목회전략 부분에서는 정해진 교회론과 목회철학에 따른 양육체계를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성장 단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다. 또한 교회를 시작할 때 사역체계를 수립하는 것과 교회 개척 팀을 확보하는 것, 개척하는 데 필요한 재정 계획 및 하드웨어 준비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모교회 모델을 통한 교회 개척전략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 모교회를

모델로 해서 개척하게 될 때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장점들과 실제적인 모교회 모델의 모본들을 성경에서와 현대 교회들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모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을 살펴보고 모교회 모델의 DNA를 확보하는 방법들을 언급할 것이다. 또한 모교회의 모델을 통해 개척하면서 실제적인 적용을 할 경우에 모방할 수 있는 것들과 모방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실제로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개척하면서 준비 과정에서 얼바인 이민 사회의 지역을 조사하고, 한인들의 생활상과 얼바인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분석해보려고 한다. 개척을 위한 준비로 핵심그룹을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척일정을 정하고 재정계획을 세우고 창립예배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5장에서는 얼바인 온누리교회 목회전략으로 교회 성장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였고 실제로 시도했던 구체적인 사역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들로는 전도 및 새 가족 사역과 큐티, 일대일 제자양육, 차세대와 English Ministry 사역, 공동체의 활성화가 있고 가정 사역으로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학교,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가 있고, 치유와 회복사역으로 내적치유와 샤이닝 글로리가 있으며, 기도와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리더십훈련으로는 일꾼양육성경 공부, 안수집사 훈련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어떻게 실행했는지 단기선교, 선교사의 후원 및 파송을 다루고,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로서 실제로 샌디에이고 지역에 또 다른 온누리교회를 개척했던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6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앞에서 논한 교회개척의 일반적인 전략과 필수요건, 그리고 그 전략을 가지고 실제로 모교회 모델을 통한 교회개척을 할 때 적용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함으로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이 논문을 통해 비단 이민사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는 여러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인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면서 본인의 개척전략과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제 2 장

교회 개척의 전략

21세기는 급변하고 있다. 교회는 그 시대 안에서 그 시대의 문화라는 옷을 입으면서도 순수한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전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제 1 절 다양한 교회 개척전략

교회를 개척하는 데에는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개척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단을 통한 교회 개척전략

2007년 현재 6개 교단 산하의 교회 수는 약31,640개며, 최근 3년 동안 교단별로 해마다 적게는 15개에서 많게는 197개 교회씩 늘어났다.⁵⁾

성장하는 교단들은 교회개척을 강조한다. 각 교단마다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는 각 교단별 개척 목표와 방법, 개척지 선정, 개척자 선정, 교회 개척을 위한 후원과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5) 김보경, "교단별 교회 개척 현황," *목회와 신학*, 2008년 5월호, 46.

가. 개척 목표와 방법⁶⁾

예장 합동교단은 이만교회 운동을 통해서 매년 3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머지는 노회와 개교회가 개척 하고 있다. 감리교단은 교회 개척에 대한 희망 프로젝트를 결의 하고, 교회 개척의 숫자적인 목표는 없지만 300만 전도운동에 포함되어 있다. 개척 후보지역을 파악하여 교회를 신축해서 목회자를 파송하는 개척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침례교단은 2010년까지 3000개의 교회 개척을 목표로 매년 100개 교회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단독개척은 지양하고 대형교회가 모교회가 되어 개척하고자 한다. 또한 몇 교회가 협력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대형교회가 교인을 파송하는 정책을 권장하고 있다. 성결교단은 교회 개척훈련원 중심으로 개척자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교회를 개척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기장교단은 비전 2015운동을 결의하여 2015년까지 꾸준한 교회 개척을 통해 건강한 교회 성장을 도모하고 숫자적인 개척보다는 주제가 있는 개척을 지향한다. 예장 고신측은 2007년 총회에서 3,000교회 운동을 결의하고, 2단계 10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일정 수 이상의 교인과 재정 규모의 교회는 의무적으로 1개 교회 이상 개척하고, 노회별로 1개 이상 개척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나. 개척지 선정

교회 개척에서 개척지의 선정은 매우 중요한데, 각 교단에서 개척을 목적이나 비전에 따라 개척지가 선정될 수 있다. 먼저 단기적 부흥을 염두에 두고 신흥 개발지역이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없는 무교회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에 따라 개척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예장합동교단에서는 2000년 무교회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개척교회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에 따라 전국을 영남, 호남 중부, 서울 서부 3개 처로 분할해 지역 본부를 두어 지역별 전략지역(신도시 및 교단 취약지역)에 개척해 나갈 방침이다. 감리교단에서는 국내선교국에서 개척지 자료집을 낸 적이 있다. 개척지는 복음화 비율이 낮은 영호남을 우선시하며 대체로 개척자 자신이 선정하여 지방위원회의 허락을 받는다. 침례교단에서는 발전지역에 우선순위를 두어 개척교회나 모교회가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성결교단에서는 교회 개척훈련원에서 개척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6) 최승호, "교단별 교회 개척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언," *목회와 신학*, 2008년 4월호, 85.

있다. 기장교단에서는 교회가 꼭 필요한 지역임에도 아직 기장교회가 없는 곳을 우선하여 전략적으로 개척한다. 지역은 3만호 이상 신규택지지역 (수도권과 광역시 외에는 1만호 이상), 기장 교단 교회가 없는 시, 군, 구 지역, 또 기장 교단 교세가 취약한 지역, 종교 부지를 배정받은 지역이다.⁷⁾ 예장 고신측은 개척을 하는 교회나 노회 또는 개척자가 임의로 정하되 총회는 교단교회가 많지 않은 곳에 개척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 개척자 선정

개척교회를 설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척자이다. 개척자의 영성과 자질에 의해 교회 개척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각 교단은 개척자의 선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기준을 마련한다.

예장합동교단에서는 교회설립세미나를 수료하고 노회 추천을 받은 목회자 가운데 개척 자료검토 및 현지답사와 면접 등의 자체 심사를 거쳐 개척자금을 지원한다.⁸⁾ 감리교단에서는 지방위원회에서 개척자를 선정하며 앞으로 개척학교를 이수한 사람을 선정할 계획이다. 침례교단에서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총회는 개척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총회 국내 선교회를 통해 개척하는 경우는 교단 신학교 출신 여부나 지방회 가입여부, 인성 등 기초적인 검토 후에 개척자로 선정한다. 성결교단에서는 교회 개척훈련원이나 지방회, 개교회가 개척자를 발굴한다. 기장교단에서는 교회 개척, 건축을 위한 재원을 준비한 노회가 총회에 청원을 하면 총회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노회가 개척자를 선정한다. 예장 고신측은 개척교회훈련원 수련자가 개척교회를 할 경우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준비중이다.⁹⁾

라. 교회 개척의 후원과 관리¹⁰⁾

교회 개척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단에서 후

7) 최승호, “교단별 교회 개척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언,” 86.

8) 김보경, “교단별 교회 개척 정책,” 85.

9) 최승호, “교단별 교회 개척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언,” 87.

10) Ibid., 88-89.

원 시스템을 만들어 개척자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후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장합동교단에서는 재정확보를 위해 콘서트와 바자회를 6회 정도 순회 개최했으며, 선정된 개척교회에 500-1500만원을 지원했다. 합동설립예배를 드려 개척교회의 비용절감을 도왔다.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도 마련해주고 대형교회와 자매결연 하여 목회자 멘토링을 고려하고 있다. 감리교단에서는 각 연회와 지방회에 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 실태 파악 위원회를 조직하여 생활비를 후원하도록 하였다. 연회나 개교회 후원이 불규칙하지만 지속되어 왔다.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M-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남부 연회가 개척 미자립교회 특별대책위원회를 두어서 4년 동안 매월 코칭한 사례도 있다. 침례교단에서는 개척자 지원을 38년간 꾸준히 시행해 왔으며 교회 개척훈련을 받은 목회자에게 2년간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선교가 가능한 교회들이 자립할 때까지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한 개척자가 모교회를 정하여 멘토로 삼고 지속적인 지도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성결교단에서는 개척훈련 교육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하며, 수료자가 개척할 경우 1년간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회나 지교회 개척자 선발 시 우선 혜택을 부여한다. 또 개척지 정보나 건축 상담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 기장교단에서는 개척선교 주일헌금 전액을 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하는데, 개척이 선정된 노회에서 건축비를, 총회는 대지 구입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조건은 건축비가 대지 구입비보다 많아야 한다. 예장 고신교단은 2008년에 개척교회 지원금 제도가 신설되었다. 소속노회의 설립 승인을 받고 국내전도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2. 교회를 통한 교회 개척전략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 선교초기에는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 후 가까운 지역에 제2교회, 제3교회 등으로 교회를 분립하여 개척하는 전통이 있었다. 그러다가 60-70년대를 지나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의 영향으로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대도시의 유명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했다.¹¹⁾

11) 안진섭, “분립 개척을 통한 건강한 교회 성장,” *목회와 신학*, 2008년 4월호, 64.

물론 대형교회는 교회의 대 연합 사업을 주도 할 수 있고, 큰 프로젝트의 사회봉사나, 세계 선교 등 소형교회에서 할 수 없는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형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로 공동체성의 결여이다. 교회론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형교회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많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로 전도의 열정이 약해진다. 대형교회는 말씀이 좋고, 시설이 좋고 모든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므로 전도의 열정이 없어지고 한 생명의 구원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셋째로 목회자와 교인사이의 관계에 거리감이 생긴다. 직접적으로 교인을 대면하고 영적인 상담이나 양육하기 보다는 행정적인 파워가 형성되게 된다. 담임목사 개인의 결정에 의해 교회가 움직이므로 자칫 잘못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¹²⁾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 보다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이 있다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립개척과 협력개척을 들 수 있다.

가. 분립개척

하나의 모교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동시에 새로운 교회의 개척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모교회의 일부 성도가 개척교회로 파송 받아 개척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다. 모교회에서는 교회 개척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고양할 수 있고 개척교회에서는 모교회의 지원을 받아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¹³⁾ 여기에는 재정적인 지원과 인적지원,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 교회가 성장하여 대형교회가 되는 것보다 건강한 중형교회를 확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실행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1) 분립개척의 신학적 의미

개척의 중요한 방법이 되는 분립 개척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

12) 이한진, “건강한 중형교회를 지향하는 분립개척,” *목회와 신학*, 2008년 5월호, 74-75.

13) 이한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진 교회의 큰 숲,” *목회와 신학*, 2008년 5월호, 78.

첫째, 분립 개척은 한 지역 교회보다는 하나님나라 전체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신학에 기초한다.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를 떼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개 교회의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나라의 성장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라고 한 세례 요한의 고백은 우리 모든 목회자와 사역자의 고백이요 영적 태도여야 한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흠어짐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때로는 교회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도록 선택해야 한다. 안디옥교회가 담임목사격인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의 지시를 따라 기꺼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희생을 통해 갈라디아 지역과 유럽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처럼 당장 자신의 교회의 교인 수는 줄어들지만 개척된 교회가 잘 성장한다면 하나님나라의 성장에는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 분립개척은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이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려면 새로운 목회자를 길러서 존경 받는 목회자로 세워야 한다. 후배 목회자들을 잘 길러서 존경 받는 목회자로 세워야 분립개척이 가능하다.

셋째, 분립개척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양적 성장에만 있다면 굳이 분립개척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양적인 성장만 생각한다면 대형교회가 훨씬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대형교회에 익명의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공동체성이 결여되는 것이 분명하다. 분립개척은 교회가 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역이다.¹⁴⁾

(2) 분립 개척의 유익

분립 개척을 시도한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의 공동체성을 소중하게 여긴다. 분립 개척의 유익한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교회 개척을 목표로 모든 기관과 성도들이 재정을 아끼고 절약하며 교회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14) 안진섭, “분립 개척을 통한 건강한 교회 성장,” 64-65.

둘째, 교회의 일꾼들을 성장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협력하는 동안에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 미자립 교회를 도우면서 개척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하나님나라를 확장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교회는 일정한 연수가 지나면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협력하면 그 개척한 교회의 인원이 늘어나게 된다. 결국 '하나님나라'라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넷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된다. 한국 교회의 병폐 가운데 하난가, 교인은 늘어나지만 교회와 사회를 위해 자기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 유명무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지원하면서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5)

(3) 분립 개척의 필요한 요소

분립 개척에 필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다. 담임목회자는 한 지역의 교회보다는 전체적인 하나님나라의 확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

둘째, 성도들의 의식의 변화이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성경적 원리로 성도들을 교육하여 분립 개척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분립 개척을 성경적인 교회개척 방식이라고 확신할 때, 비로소 이 사역을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셋째, 목회자의 훈련이다. 분립개척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좋은 목회자를 기르는 일을 병행해야 한다. 교회 안에 목회자를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개척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철저한 지역조사를 통하여 전략적으로 개척지를 선정해야 한다. 분립하고자 하는 모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개척지를 정하면 모교회로부터 인적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15) 유상채, "나의 분립 개척이야기," *목회와 신학*, 2008년 5월호, 82-83.

다섯째, 철저히 헌신되어 있는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모여 개척을 위한 준비 기도를 한다. 기도만큼 개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다. 기도를 하면서 개척을 위한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다.

여섯째, 재정적인 준비이다. 백퍼센트 재정이 준비되어 시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시작한다. 그러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¹⁶⁾

(4) 분립 개척 후의 모교회와의 관계

분립 개척한 이후에 두 교회는 형제교회의 관계를 유지한다. 이름뿐인 형제 교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역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실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목회자는 정기적으로 강단을 교환하여 설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연합예배와 공동 사역을 통해 성도들 간에 유대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작은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규모의 사역을 협력해서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위한 복지센터를 세우는 일, 선교사 안식관을 마련하는 일 등 재정과 인력이 많이 드는 일들도 함께 협력할 때 이룰 수 있다.

넷째, 가장 주의해야 할 일은 모교회가 새로 분립 개척한 교회를 구조적으로 지배하려 하면 안 된다. 두 교회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동역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¹⁷⁾

(5) 분립개척 사례

아래에서 제시하는 교회들은 건강한 교회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분립 개척의 좋은 사례이다.

16) 안진섭, “분립 개척을 통한 건강한 교회 성장,” 68-69.

17) Ibid., 69-70.

(가) 향상교회를 개척한 잠실 중앙교회

잠실 중앙교회의 정주채 목사는 1992년 분당에 매일교회를 분립 개척하였다. 3억 원을 지원했고 분당에서 잠실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교인을 매일교회로 파송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이 2년 만에 매일교회에서 잠실중앙교회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담임목회자가 직접 개척을 하던지 부목사를 파송할 경우는 모 교회에서 소그룹 등의 활동을 통해 하나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한 이후에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후 다시 준비하여서 2000년 10월 잠실중앙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향상교회는 유아까지 포함하여 400 여명이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잠실중앙 교회와 분립 개척한 향상교회는 '건강한 중형교회'라는 목회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18)

(나) 들꽃향린교회를 개척한 강남향린교회

들꽃향린교회를 직접 개척한 김경호 목사는 '분립개척' 이라는 용어보다 '분가선교'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교회공동체가 좋은 의지로 공동의 합의를 통하여 두개 또는 그 이상의 공동체로 나눈 후, 나누어진 공동체가 각자 본래 공동체의 목회와 질과 양적 규모를 회복할 때까지 돕고 기도하며 책임지는 선교 방식이라고 정의한다.¹⁹⁾ 김경호 목사는 부교역자를 파송하면 따라갈 교인이 없을 것 같아 강남 향린교회에 부교역자를 담임목사로 세우고 자신이 직접 들꽃 향린교회를 개척했다.

들꽃향린교회를 분립 개척한 강남향린교회 역시 규모가 크지 않았으므로 교인의 15퍼센트인 20명을 보내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웠다. 그러나 3년이 지나자 들꽃향린교회를 분가시키기 전의 양과 질을 회복할 수 있었고 들꽃향린교회도 재적교인이 100명에 이르면서 자립이 가능해졌다. 성도와 재정을 두 교회로 나누었지만 나눈 만큼 채워진 것이다.²⁰⁾

18) 이한진, "어떻게 모교회의 일부 성도를 개척교회로 파송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 2008년 5월호, 68-70.

19) Ibid., 71.

20) Ibid., 72.

(다) 은혜의 동산교회와 기쁨의 동산교회를 개척한 안산동산교회

안산동산교회는 그들의 분립 개척을 '큰 숲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안산동산교회는 지금까지 시화동산교회, 은혜의 동산교회, 기쁨의 동산교회를 개척했다.

큰 숲 운동은 먼저 교회를 개척할 목회자를 훈련시킨다. 적절한 때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할 목회자가 준비되면 개척지를 선정한다. 그리고 목회자를 도와서 셀 그룹을 인도할 소그룹 리더를 세운다. 개척지가 선정되면 그 지역의 성도들과 기도모임을 시작하고, 목회자와 그의 동역자들이 세워지면 교회를 개척한다.

은혜 동산교회와 기쁨의 동산교회는 지금까지도 셀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지속하고 있지만 지교회나 지성전의 개념이 아니다. 행정, 인사, 재정 등 모든 면에서 분명히 독립된 교회이다. 그러나 동일한 목회철학을 공유하고 있다.²¹⁾

나. 협력 개척

협력개척은 교회 개척에 뜻을 둔 몇 개의 교회가 협력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매년 개척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관교회(5개 교회 중 개척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교회)를 순번으로 정했다. 주관교회는 협의회에 속한 5개 교회가 헌금하는 5억원 (각각 1억원씩 헌금)에 목회자의 사택과 추가적인 비용을 합해 개척교회를 지원하고 3년간의 목회자 사례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5개 협력교회들은 각각 개척교회 전도 헌금으로 매년 20만원씩 3년간 지원하고 개척한 지역의 성도들을 가능한 한 개척한 교회로 보내고 있다. 주로 주관교회가 개척을 담당하지만 모든 협력교회가 개척을 돕고 개척교회 설립 및 행사에 참여하도록 했다.²²⁾

(1) 협력 개척의 유익한 점

분립개척과 마찬가지로 성경적 원리로 성도들을 교육하여 개척을 도우려는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목회자와 개척지를 선정하고,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헌신되어 있는 성도들을 파견하여 돕는 등 많은 부분에서 분립개척과

21) 이한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진 교회의 큰 숲," 목회와 신학, 2008년 5월호, 78-81.

22) 박준형, "협력 개척의 모델을 본다," 목회와 신학, 2008년 5월호, 86.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협력개척은 5교회가 협력하고 1년간은 주관교회가 중심이 되어 개척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협력 개척은 그다지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담임 목회자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교회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어렵지 않게 시행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많은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새롭게 개척하려는 목회자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하나님나라 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생각할 때 서로 교회가 협력하며 섬기는 공동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2) 협력개척교회 사례

(가) 주님의 교회

수도권에서 성도 수가 천 명이상 되는 다섯 교회가 모여 교회 개척의 뜻을 품고 협의내용에 따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서울 시민교회가 주관교회이었을 때 진해에서 담임목사를 하던 전성준 목사를 교육목사로 청빙하였다. 이후 시민교회를 비롯한 5개 교회에서 재정의 도움을 받아 교회 부지를 구입하고 개인적으로 모금한 비용으로 교회 건물과 부대비용을 충당하여 용인시 동백지구에 주님의 교회 건축을 완공하였다. 향상교회에서는 주일마다 15명의 교인들이 예배 도우미로 나와 특송과 대표기도, 안내 등으로 헌신해 주었다. 이는 개척교회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2006년 7월 입당 예배 시에는 성도가 30여명이었고 가을이 되기 전에 70명 이상이 되었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전도 도우미와 예배 도우미의 도움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만 2년이 지나자 성인이 200명, 청소년층까지 합치면 약 300명 정도의 성도가 출석하고 있다.²³⁾

(나) 하사랑교회

하사랑교회는 교회개척협의회 중에 등촌교회가 주관교회로 개척한 교회이다. 5개 교회가 헌금한 5억이 등촌교회에 전달되자 등촌교회는 개척할 장소와 담임교역자를 선정하는데 1년의 기간을 가졌다. 담임할 적격자를 찾던 중 10년간 등촌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해 온 반성광 목사를 선정하였다. 반 목사는 1년 동안 개척위원들과 함께

23) 박준형, "협력 개척의 모델을 본다," 87-88.

기도하며 준비하던 중 김포시에 하사랑 교회를 건축했다. 교단 헌법 상 성도 30명과 장로 2인 이상 되어야 분립 개척 후 자립할 수 있으므로 등촌교회는 김포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구역의 성도들을 하사랑교회에 출석할 것을 권유했다. 그렇게 하여 장로 1인, 안수집사 1인, 권사 2인을 비롯해 성도 25명이 하사랑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협력교회가 지원한 액수 5억 이외에 부지 매입과 건축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등촌교회가 지원했다.²⁴⁾

3. 개인을 통한 교회 개척전략

혼자 하는 교회개척은 모교회나 팀의 도움도 없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다. 1960-80년대의 급성장한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이 이 방법에 의해 개척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에는 개척자 스스로가 생계를 꾸려 나가며 개척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개척자가 여러 교회나 지인들을 통해 개척지원을 받아 개척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과거에는 교회를 개척하고나 단독목회의 경험이 있어야만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교단의 교회수의 팽창을 위한 방법이 되기도 하였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으나, 개척한 목회자가 개척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나 사명감이 없이 목사안수의 방편으로 개척을 하였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목회지를 떠나거나(특히 시골인 경우) 소신 없이 목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후 대형교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부목사의 자리들이 많이 필요로 되면서 단독 목회경험 등의 요건들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부목사로서는 한 교회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사역하기가 쉽지 않고, 다른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담임목사로 가는 자리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목사들이 사역하던 교회를 떠나 스스로 개척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한 교회를 개척하는 데 엄청난 재정과 자원이 필요한 시대에서는 점점 개인을 통한 개척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 2 절 교회 개척의 필수 요건

교회개척은 힘든 사역이면서 동시에 목회자와 성도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된

24) 박준형, “협력 개척의 모델을 본다,” 88-89.

일이다. 교회개혁은 믿음의 일이며 또한 가장 지혜롭고 신중하게 수행되어야 할 일이다. 생명체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생명적 조직인 교회가 탄생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고 준비해야 할 필수요소가 있다. 교회개혁의 필수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

1. 개혁할 교회의 비전

교회 개혁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다.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교회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낭패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만둘 수도, 계속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므로 교회를 개혁하려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비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명확한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도 없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목적지와 지도도 없이 운전하는 사람과 같다. 교회 개혁은 비전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비전이란 사명이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비전은 한 교회의 특성, 즉 자화상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이유, 즉 존재의 목적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²⁵⁾

교회개혁에서는 개혁할 교회의 비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가지는 것이 사람이나 건물이나 재정이나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회 성장 전문가인 명성훈은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²⁶⁾

첫째, 분명한 비전은 사기를 진작시킨다. 여러 사람에게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게 하고 높은 사기와 조화의 분위기를 창출한다. 둘째, 분명한 비전은 좌절감을 해소해 준다. 비전과 목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셋째, 분명한 비전은 집중력을 가져다준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효과와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분명한 비전은 자발적인 협력을 가져다준다.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25) 박준형, “협력 개혁의 모델을 본다,” 86.

26) Ibid., 90-91.

를 확실히 알 때 협조하고 동참하게 된다. 다섯째, 분명한 비전은 올바른 평가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듯 비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희망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준다.

성도들은 단순한 사실이나 필요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목회자가 제시하는 분명하고 확고한 비전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다. 비전의 중요성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빌 하이벨스가 담임으로 있는 시카고의 윌로우크릭교회와 릭 워렌이 담임으로 있는 캘리포니아의 새들백교회를 들 수 있다.

윌로우크릭교회의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성서적으로 기능하는 교회”의 비전을 내세웠고, 새들백교회는 “목적이 이끌어 가는 교회”라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는 분명한 목표와 이정표가 되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개척하면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비전으로 교회를 시작했다. “온누리교회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바로 그 교회’를 오늘 이 시대에 재현하려는 순수한 꿈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 비전은 1985년 10월 6일 하용조 목사에 의해 온누리교회가 개척될 때 가졌던 비전이다. 지금은 상황과 환경도 바뀌고, 교회도 많이 성장하고 프로그램과 사역도 다양해졌지만, 시작할 때 가졌던 이 비전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온누리교회를 이끌어 오고 있다. 본 연구자도 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 배우고 체험한 가장 소중한 내용이 바로 교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었다. 온누리교회에 대한 헌신은 바로 이 비전에 대한 헌신이었다. 이 비전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했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역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 이 비전을 붙들고 있었기에 방향을 잃지 않았고, 때때로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비전이 결국에는 이민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용기와 원동력을 제공했다. 비전을 분명히 세우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비전이 단순히 구호나 포장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전과 교회의 목회전략과 교회 목표와 방향이 다르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없다. 그러므로 비전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제시해야 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분명히 전달되고 그들이 비전을 향해 움직이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비전을 개인화, 인격화해야 할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강조해야 하는 것이다.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은 느헤미야의 예를 들어 비전은 26일마다 강조되어야 한

다고 했다.²⁷⁾ 같은 내용을 신선한 방법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창조적 반복”이 비전과 목적이 이끌어 가는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비전이 구호나 포장으로 그치지 않고 실현되려면,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목회 구조와 비전을 실제 목회에 적용하려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교회론과 목회철학

어떤 목회자가 목회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달라지듯이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교회의 모습과 성격이 달라진다. 교회를 개척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은 방법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론과 목회철학에 달려있다.

가. 성경적인 교회론

교회론은 그 시대의 문화와 정신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대마다 교회론이 달리 표현된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교회론의 뼈대는 변하지 않는다. 성경적인 교회론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회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타난 교회론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바로 그 교회론을 근거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 특별히 성경적 교회론은 성경 말씀 속에서 그 근거가 확실하고 신학적으로 건전해야 할 뿐 아니라 모호하지 않고 분명한 성경구절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옥한흠은 평신도를 깨운다에서 그의 교회론을 이렇게 정의하였다.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²⁸⁾

새들백교회의 경우는 위대한 계명(마 22:37-40)과 위대한 명령(마 28:18-20)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는 비전으로 교회를 확고하게 세워가고 있다.²⁹⁾

온누리교회의 경우 교회론의 성경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님의 교회관(마 16:13-20)이다. 예수님의 교회관은 신앙고백이 분명한 성도공동체(마 16:16),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 공동체(마 16:18),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공동체(마 16:18),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전도 공동체(마 16:19)라고 할 수 있다.

27)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회,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7), 137.

28)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8), 78.

29) Warren, *새들백교회이야기*, 120.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의 교회관이다. 사도행전의 교회관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령공동체(행 2:1-4),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공동체(행 4:33), 제자들을 세우는 양육친교공동체(행 2:37-47), 형제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여 공동체(행 4:32-37),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행 1:8; 13:1-3)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서신서의 교회관이다. 서신서의 교회관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엡 1:23)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성도의 관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엡 5:25-32)라는 것이다. 교회는 은사공동체(엡 4:7-11)이며, 교회는 연합과 일치(엡 4:4-6), 교회는 성도를 세우는 곳이고 성도인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곳(엡 4:12)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나. 목회 철학

성경적인 교회론에 기초하여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교회의 뼈대와 지침이 필요한데 이것을 가르쳐 목회 철학이라고 한다. 교회는 무엇인가에 의해 움직인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인도하는 힘과 조절하는 과정과 이끌어가는 확신이 작용한다. 교회를 움직이는 추진력 이것이 목회철학이다.³⁰⁾

교회론이 원리라면 목회철학은 방법이다. 성경적인 교회론은 다 같지만 목회철학은 목회자의 부르심에 따라, 성도의 부르심에 따라 그리고 지역사회의 부르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누구를 막론하고 목회철학이 없이 목회하는 것은 마치 설계도면 없이 마구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운 목회철학은 첫째, 예배 공동체이다. 교회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성도이기 이전에, 목사와 장로 직분자이기 이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심장이요,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 수 있다. 예배가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한다. 사역과 제자훈련, 전도와 선교가 건강하게 이루어지려면 예배가 살아야 한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예배인 예배자의 삶이야말로 삶의 우선순위이다.

둘째, 성령공동체이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탄생하고 성령에 의해 운행

30)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8), 66.

되고 성령에 의해 성장하는 교회이다.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말뿐인 성령공동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받은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기 위해서 지도자에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거룩과 순결, 순종과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예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역공동체이다. 평신도들이 목회의 대상이 아니라 목회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 평신도를 깨워서 평신도의 은사와 열정과 개성에 따라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를 통해 교회가 움직이고 세워질 때 교회는 건강한 사역공동체가 될 수 있다. 평신도들을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평신도를 훈련하고 성숙케 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마치 운동 팀의 코치의 역할을 하며, 평신도는 운동선수라는 분명한 역할 이해와 권위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은사와 열정과 개성에 따라 사역할 수 있는 사역체계와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고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체계가 분명히 갖추어져야 한다.

넷째, 선교공동체이다. 교회는 나눔 공동체요 선교공동체이다. 선교란 복음과 소유와 삶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행위이다. 부흥과 성장이란 그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전주곡일 뿐이다. 선교공동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교에 모든 것을 거는 목회를 선택해야 한다. 선교는 목회 처음부터 강조되어야 하며 마지막까지 수행해야 한다.

3. 교회 개척자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담임목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다. 성공적인 교회 개척에 있어서 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며 교회 개척의 다른 많은 중요한 요소들도 지도자의 지도력에 의존한다.³¹⁾ 특별히 교회 개척은 개척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과 함께 교회 개척자로서 준비된 리더가 하여야 한다.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도 교회 개척자로서의 부르심은 또 다른 부르심이다. 같은 목회자라도 개척에 적합한 사람이 있고 개척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31) C. Peter Wagner, (더 큰 수확을 위한) 교회개척가이드, 홍원팔 역 (서울: 서로사랑, 1997), 58.

가. 교회 개척자로서의 소명의식

하나님의 모든 일에 있어서 소명의식은 가장 중요하며 기본이 된다. 특별히 교회 개척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척자이며 개척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³²⁾ 교회 개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해 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 전쟁이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예상했던 성장이 되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야말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척과 목회를 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부르심이 없이 어찌 빌립처럼 부흥하는 사마리아교회를 두고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갈 수 있으며, 부르심이 없다면 어떻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내려놓고 개척자로서의 선교사의 길을 갈 수 있었겠는가! 단 한 명의 교인을 놓고도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개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 것이다.

나. 개척자로서의 자질

개척자로서의 자질은 이미 개척을 한 번 이상 해보았거나 개척은 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사역 과정에서 교회 개척자로서의 자질을 발견할 수 있다.

교회 개척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성공적인 교회 개척자로 이 경우는 본인도 개척자로서의 확신이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개척자의 은사를 분명히 인정받은 경우이다. 둘째,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로 정체해 있거나,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을 때, 또는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킨 목회자의 경우 개척자로서의 은사와 리더십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교회 안에서 사역을 통해 가능성을 검증받은 사람 등이다.

이밖에도 밥 로간이 강의를 통해서 언급한 “교회 개척자들의 13가지 자질”도 교회 개척자의 자질을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³⁾

32) 명성훈, *교회개척의 원리와 전략*, 40.

33) Logan, “교회개척론,” 18-19.

첫째, 비전 설정 능력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둘째, 개인적인 동기로 개척에 대한 열정과 헌신과 용기다. 셋째, 사역의 주인의식을 만드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심어 주고 리더를 훈련하여 또 다른 리더를 양성하며 비전에 대해 사람들의 헌신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넷째,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장애물들을 극복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섯째, 배우자의 협력 :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여섯째, 관계형성으로 다양한 관계에서 집중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다. 일곱째, 교회 성장에의 헌신으로 교회 성장을 신학적 원리로 믿어야 할 뿐 아니라 교회 성장의 원리를 배우고 적용하는 일에 열정이 있어야 한다. 여덟째, 지역사회의 필요에 민감해야 하는 것으로 문화적으로 상관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아홉째, 다른 사람들의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발견, 개발하고 위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열째, 융통성과 적응력이 있어야 한다. 열한째, 그룹 응집력 형성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이다. 열두째, 탄력성으로 쉽게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소명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열셋째, 믿음으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역사에 대한 믿음이다.

이러한 자질들을 모두 소유하면 가장 좋겠지만 적어도 5-7가지 정도 중요한 자질들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교회 개척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주관적인 소명의식과 객관적인 개척자의 자질을 갖추었을 때 교회 개척자로서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정리하면 교회 개척자의 자질은 이미 사역을 통해 검증되었거나, 개척자의 자질 중에서 특히 리더십의 은사, 믿음의 은사, 전도의 은사, 그리고 가르침의 은사 이 네 가지요소가 가장 중요하고도 갖추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 개척자로서의 훈련

개척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와 함께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준비 중의 하나가 개척자로서의 훈련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소명과 은사만을 쓰시지는 않는다. 반드시 훈련하시고 또 훈련된 사람을 쓰신다. 모세와 엘리야, 다윗 등 하나님의 사람들 중 훈련받지 않고 쓰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께서도 제

자들을 부르시고 3년을 제자훈련을 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주셨다. 리더는 리더가 만들어 낸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개척자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보게 된다. 준비되지 않은 대가는 크다. 준비되지 않고 훈련받지도 않은 채 열정만 가지고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은사만으로 개척하려는 개척자로부터 많은 교인들이 상처받게 된다. 교회 개척자는 개척자로서의 훈련됨과 또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케 하는 훈련으로 준비되고 능해야 한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면 본인이 훈련되고 또 훈련하는 일에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은사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적절한 신학적이고 영적인 훈련을 받았다면 개척자로서 준비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교회 개척자에 대한 평가

교회를 개척하기에 앞서서 교회 개척자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허약한 평가 과정이 새 교회를 실패로 이끄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개척자가 대상 커뮤니티와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비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정확한 평가는 더 강력한 교회 개척 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무시하게 되면 청지기직을 요구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³⁴⁾

개척자의 부르심, 자질, 훈련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야 말로 부르심과 자질과 훈련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된다. 평가의 영역은 영적인 은사, 열정, 기질, 지도력, 사역 생명 주기와 같은 1차적인 영역과 천부적인 재주, 재능, 능력들에 대한 것이다.³⁵⁾ 이러한 평가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된 많은 평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척자 자신이 정직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태도와 겸손함, 그리고 교회 개척자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지도할 수 있는 멘토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4) Logan, "교회개척론," 23.

35) Malphurs, & Aldrich, (21세기) 교회개척과 성장과정, 124-130.

4. 사역대상 그룹

개척할 장소 선정과 그 지역에 대한 철저한 연구조사, 목회대상으로서의 목표그룹을 설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교회개척의 성공과 실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한 지역에서 성공한 목회자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실패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실패한 목회자라도 새로운 곳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사역대상 그룹과 목회자의 적합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 지역 조사의 중요성

모든 교회는 지역이라는 문화적 상황 안에 존재한다. 교회는 영적인 생명체인 동시에 인간의 가치와 태도와 신념과 삶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조직체이다. 교회가 그 지역을 얼마나 접촉하느냐 하는 것은 교회가 그 지역을 얼마나 잘 이해하여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는 메시지와 사역을 감당하느냐에 달려 있다. 즉 성경의 메시지를 지역의 상황에 통합시키는 토착화 혹은 상황화가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지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개척도 하기 전에 사망진단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다.³⁶⁾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 목사는 교회 개척에서 지역 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많은 개척교회들이 실패한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채 열정만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이다.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열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지혜도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당신이 선택한 지역에 관한 정보를 무시해도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³⁷⁾

교회 개척을 위한 지역조사의 중요성은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³⁸⁾ 첫째, 지역조사는 목표그룹을 설정하게 한다. 어떤 사람들을 목표로 목회할 것인가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이다. 둘째, 지역조사는 목표그룹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지역주민의 수입, 교육, 연령, 성별분포, 가족구성, 종교적 성향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해준다. 셋째, 지역조사는 인구의 이동경향과 발전지역들을 탐사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넷째, 지역조사는 교회가 들어설 가장 적절한 위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36) 명성훈, *교회개척의 원리와 전략*, 187.

37) Warren, *새들백교회이야기*, 45.

38) 명성훈, *교회개척의 원리와 전략*, 189.

준다. 다섯째, 지역조사는 개척교회의 사역에 신빙성과 확신을 가져다준다. 지역조사를 철저히 하는 개척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후원자들도 개척자를 우수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지역을 조사하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발로 수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미 지역에 대한 자료는 널려 있기 때문이다. 지역조사의 대상그룹을 조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개척자와 사역지역과 대상 그룹이 서로 잘 어울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목표 대상으로서의 목표 그룹 설정

지역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목회 대상으로서의 목표 그룹을 설정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교회도 혼자서 모든 사람을 전도할 수는 없다.³⁹⁾ 교회 개척이 가장 효과적으로 되려면 개척 대상, 목회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가장 잘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물론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이긴 하지만 개척자와 가장 잘 어울리는 전도와 목회 대상은 분명히 있다. 특히 목회 대상, 전도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은 전도 전략, 목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한국교회나 이민교회처럼 교회가 없는 지역이 많지 않고 대부분 개척하려는 지역에 이미 기존교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대상, 목회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은 지역 복음화 전략과 함께 이미 기존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전도대상을 설정할 때 지역별, 인구 분포별, 문화적 그리고 영적인 네 개의 구체적인 측면에서 대상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⁴⁰⁾ 전도 대상, 목회 대상을 설정할 때 표준인물을 파악하고 대상을 모델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회와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전도 대상자를 이해시키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별히 개척자는 목회그룹을 설정할 때 목회자의 강점과 연결되어야 한다. 개척자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에 적합한 대상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39) Warren, *새들백교회이야기*, 178.

40) Ibid., 183.

5. 목회 전략

지역에 대한 철저한 연구조사와 목회대상으로서 목표그룹을 설정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개척에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 목회전략을 세워야 한다.

목회전략에서 개척자의 영성과 증보기도 팀 등 영적인 측면은 중심적인 요소이다. 이런 영적인 측면 외에도 비전과 목회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목회전략과 그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가. 교회론과 목회철학에 따른 양육체계

개척할 교회의 비전과 목회철학을 확고하게 세운 다음 실제적으로 그 비전과 목회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목회전략과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이 없다면 비전과 목회철학은 빈 수레만 요란한 격이 되고 선전과 구호로 끝나게 될 뿐 아니라 교회도 표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전과 목회철학을 실현할 전략과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육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비종교적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로 삼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양육 체계를 마련해야만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스도인의 출생에서 주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위해서는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이미 검증된 몇 가지 좋은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하다. 특별히 목회철학과 연계되지 않지만 유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프로그램을 이 것, 저 것 도입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목회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뿐더러 체계 없는 프로그램은 인력, 재정, 시간의 낭비일 뿐 아니라 혼란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앙의 성장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으면 프로그램도 비효율적이 되고 영적 내성만을 키우는 결과가 되어서 행사를 위한 행사,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기 쉽고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해악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전도한 사람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체계 있게 양육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아이를 낳았으면 잘 키워야 하듯이 체계적인 양육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해야 한다.

양육체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통해 성경적인 근

거를 마련할 수 있다. 에베소서 4장 11-13절에 따르면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요, 둘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요,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은사는 무엇보다도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성도를 양육하고 성숙하게 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 양육한 성도에게 은사와 재능과 열정에 따라 과감하게 사역을 위임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성도를 양육하는 일은 소홀히 하면서 봉사만 강조하고 요구한다거나,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사역을 독점한 경우에는 목회자도 성도들도 완전히 탈진되고 사역은 더 이상 기쁨이 될 수 없을뿐더러 무거운 짐이나 부담, 때로는 상처까지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아무리 좋은 양육체계이고 다른 교회에서는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목회 철학과 일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되고 오히려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게 된다.

성도들을 어떤 방향으로 양육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제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마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은사에 맞는 교재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일정한 기간(예를 들면 3년이나 5년 과정)을 세워 중복이나 반복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성도들이 어느 누구나 객관적으로 현재 자신이 영적 성장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또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도자와 사역자를 세울 때 어느 단계를 기준으로 세울지 기준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도자와 사역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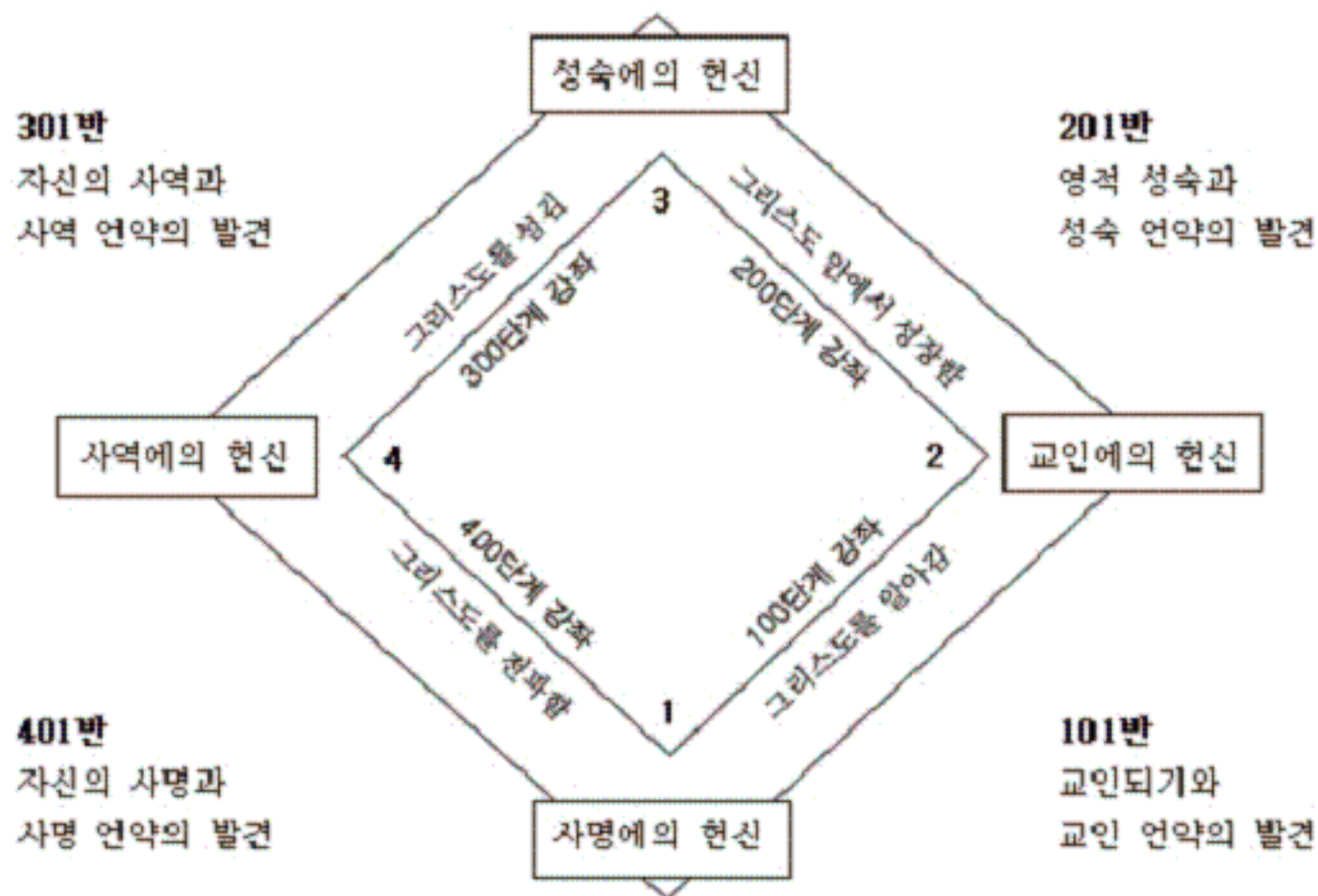
양육체계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신축성과 유연성이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양육체계가 성경의 자리를 차지하면 결코 안 된다. 양육체계의 구체적인 예는 윌로우 크릭 교회의 7단계 전략, 새들백교회의 평생 개발과정을 꼽을 수 있다.

윌로우 크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7단계 전략을 자신들의 청사진으로 보고 교회의 사명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⁴¹⁾

41) Lynne Hybels, Bill Hybels, 윌로우크릭 커뮤니티 교회: 스토리와 비전, 김성웅 역 (서울: 두란노, 1997), 311-330.

- 1단계-불신자와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
 2단계-말로서 전도한다.
 3단계-구도자만을 위해 마련된 예배에 초대한다.
 4단계-신자들을 위한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한다.
 5단계-소그룹에 참여한다.
 6단계-자신의 영적인 은사를 발견, 개발 그리고 전개시킨다.
 7단계-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당신의 자원을 관리하라.
 새들백 교회의 평생 개발 과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⁴²⁾

<그림 1> 새들백 교회 평생개발 과정



<그림 1>의 새들백교회의 양육체계는 4루(베이스)를 가진 야구 다이아몬드로 묘사된다. 전략의 목표는 각 베이스 주위에 있는 한 개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홈플레이트에서 1루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1루에서 2루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2루에서 3루로 움직이게 하는 것

42) 릭 워렌, 148.

은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것이요, 3루에서 홈플레이트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체험한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다(증거).

얼바인 온누리교회의 양육체계는 <표 1>과 같다.

<표 1> 얼바인 온누리교회 양육체계

단 계		목적	필수 과정	
등록		멤버십	온누리반	
1단계	Q.T	기초 양육	QT 초급반	온누리성경대학/네트워크(은사배치)/증보기도학교/가정훈련학교/아버지학교
2단계	일대일 제자양육		일대일동반자과정	
3단계	제자도	성숙	일대일양육자과정	내적 치유/ QT/샤이닝글로리
4단계	전도 훈련		생활전도학교	
5단계	지도자 훈련	비전과 리더십	순장학교/사역자훈련	DTS
6단계	파견 전도		예수제자학교	
7단계	선교	파 송	MTS (선교사훈련학교)	BEE(성경연장교육)/두란 노 바이블 칼리지

<표 1>의 얼바인 온누리교회 양육체계는 새가족 한 사람을 멤버십에서부터 제자도와 성숙의 과정을 거쳐 리더십으로서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 파송의 단계까지 7단계로 나눈다. 각 단계마다 구체적 프로그램을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분하여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숙과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성장단계 설정

개척에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재생산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은 개척자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일이다. 개척에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반드시 성장해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에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일은 마치 아이를 낳았다고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냥 되는 일이 아니다. 많은 경우에 개척 단계에 멈추어 있거나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심지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전에 이미 쇠퇴기에 접어든 교회도 있다. 또 양적인 성장을 했지만 건강하지 못하거나 기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교회도 있다.

모든 생명체에는 성장 단계가 있고 그 성장 단계에 맞는 영양분의 공급과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요 살아있는 유기체⁴³⁾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성장 단계에 맞는 개인적, 공동체적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사역과 말씀사역, 양육과 사랑의 관계 형성, 단계에 맞는 사역과 리더십의 개발과 발전, 확대가 적절하게 공급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라이프 사이클 성장단계는 예를 들면 태동기(수태기, 출생기), 개척기(유아기), 발전기(아동기), 성숙기(청소년기), 결실기(성년기)로 구분할 수 있다.⁴⁴⁾

태동기는 증보기도 하면서 개척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계획화하는 단계로 이때는 개척 팀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개척기는 전도와 회집(새벽기도, 주중예배, 주일예배의 시작)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발전기는 제자화와 제자 삼는 사역의 단계인데 양육과 개인적, 공동체적 영적 성장을 위한 사랑의 관계, 즉 공동체 형성단계라고 할 수 있다.

성숙기는 평신도 사역을 개발하고 확장하며 평신도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리더십을 개발하는 단계이다. 결실기는 축제와 선교, 적극적인 Out-reach 사역, 리더십의 확대와 발전단계이다. 이처럼 각각의 성장단계가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평가와 지도 관리 시스템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다. 사역체계 수립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일이 있다. 개척에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항상 있다. 개척 단계나 작은 규모의 교회일 때가 오히려 목회자가 부담해야 할 일이나 개척 팀이 담당해야 할 몫은 더 클 수 있다.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사역자가 세워지고 역할이 분담되었을 때 사역을 더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미 창립하기 전에 사역체계를 갖추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사역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혼돈을 일으키고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창립이 된다. 그러므로 핵심적인 사역 시스템은 창립 전에 반드시 준비되어야만 한다.⁴⁵⁾

43) Logan, "교회개척론," 23.

44) Ibid., 5-7.

45) Ibid., 30.

사역체계는 양육체계와 병행되어야 한다. 양육체계를 통해 성도를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사역을 감당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역체계를 세울 때는 교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역, 성도들을 세우고 섬기기 위한 사역,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역, 시대적인 요청, 선교사역을 감안해서 사역의 우선순위와 단계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역은 각 교회의 교회론과 목회철학, 목회전략과 일치해야 한다. 특히 건강한 교회의 사역의 두 가지 특성을 잘 고려해서 사역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건강한 교회의 사역의 두 가지 특성은 첫째로는, 은사 중심적 사역이다.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은사를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잘 배치하고 조정해주는 것이다. 은사를 사용해서 섬기는 성도들은 기쁨과 성취감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다.

둘째는 평신도 사역이다.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의 양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평신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따라 양육을 받으며 성장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평신도들이 양육을 받은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평신도들이 사역자로서 양육 받을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가져야 한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은 모든 교회 구성원 즉 모든 성도를 향한 것이다. 모든 평신도들에게 제자를 삼아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평신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탁받았고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

평신도 사역은 목회자와 성도가 목회의 한 팀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목회자는 전지전능한 슈퍼스타가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목회자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은 그의 지체일 뿐이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주체 세력은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이다. 따라서 목회자의 역할이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세움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돕는 일이다. 여기에 평신도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필요하며 동시에 목회자의 위치와 역할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평신도 사역을 위하여 교회는 평신도들이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지평을 열어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회 사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직무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교회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전 성도를 대상으로 은사계발 프로그램이 시행되

어 모든 성도들이 열정과 은사에 가장 알맞은 사역에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

평신도 사역은 인위적인 구조보다는 자연스러운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 교회와 목회자에게 주신 독특하고 특별한 비전과 사역의 장을 열어줄 때 비로소 그 사역은 열매를 맺고 꽃이 피게 된다. 평신도사역을 위하여 지역교회는 평신도 사역훈련원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신도 사역원의 과정은 평신도들이 가진 전문성과 은사를 극대화시켜 주며 사역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높여주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역원은 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몇몇 교회가 연합하여 만들 수도 있다.

라. 교회 개척 팀 확보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비전을 품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때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개척 팀(핵심멤버)을 구성하는 것이다. 피터 와그너는 이 핵심멤버들을 구성하는 기간을 4개월 내지 6개월로 계획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⁴⁶⁾

개척자는 다양한 차원에서 자신의 사역을 지원해 주는 가족, 친구들, 멘토들, 증보기도자들 등 여러 관계들이 필요하다. 개척자에게 꼭 필요한 자원은 영적, 정신적, 관계적 지원이다. 개척자는 개인적인 증보기도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언제든지 기도를 요청하면 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하다. 교회 내에서도 강력한 증보기도 팀이 있어야 하지만 모교회의 증보기도 팀과 함께 다양한 경로의 증보기도 후원을 받는 것이 전략 중의 전략이다. 또한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장애를 만나거나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많고, 모든 일을 초기에 혼자 결정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쉽게 탈진할 수도 있으며 교회가 성장하면서 독선적이 될 가능성도 많다. 개척자가 교회와 함께 개인적인 성장도 계속 해 나가며 내적인 생활을 잘 유지해 가려면 반드시 멘토링 관계를 가져야 한다. 모교회 지도자들과의 멘토링관계, 교회를 성공적으로 목회한 선배 목회자나 평소에 오랫동안 지속적인 멘토링 관계를 유지해 온 멘토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 개척 이전에는 멘토링 관계가 없었다할지라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적극적으로 멘토를 찾아야 한다. 만약 멘토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시간적 거리적 제한

46) Wagner, *(더 큰 수확을 위한) 교회개척가이드*, 112.

때문에 정기적인 멘토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 e-mail을 활용하거나 교회성장 전문기관의 멘토링 자료를 받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교회 개척과정에서 개척자에게 가장 중요한 팀 구성원이자 후원은 가족의 적극적인 지원이다. 개척자의 가장 큰 아픔 중의 하나가 가족에 대한 소홀함이다. 아무리 가족이 소중하고 사랑스럽다 해도 개척 초기에는 가족이 가장 큰 희생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 개척자는 가족의 협조와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개척자가 혼자 소명을 받아서는 안 된다. 배우자가 함께 소명을 받고 자녀들에게도 소명감이 필요하다. 목회냐, 가족이냐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개척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일이 우선순위가 될 때에도 가족의 파송을 받고, 기도를 받아야 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회 개척과정에서 목회사역과 가정 사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조화의 문제이다. 가정 사역은 교회 개척 과정에서 부담이 되거나 과외의 일이 아니라 개척자 자신의 가정 사역이 목회사역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수 과정인 것이다. 21세기 목회나 이민목회의 경우 가정사역의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팀이 없이 개척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개척 팀을 동원할 수 없는 개척자는 핵심 그룹을 모을 수 없다. 개척자는 다양한 은사들과 상호 책임감,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 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척 팀 확보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의 인원이 모여지지 않으면 핵심 그룹 멤버들이 지칠 수 있고 교회의 장기적인 성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개척 팀을 확보할 때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장점과 은사들, 그리고 일치된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개척자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하면서 그들과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팀을 확보해야 한다.

개척 팀과 개척자는 함께 성장해 가야 한다. 개척을 하는 과정은 영적 전쟁이고 이 과정에서 개척자와 팀은 서로를 위해서 증보 해야 하며, 각자가 개인적으로도 내적인 영성훈련을 힘쓰고 건강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피곤은 비전을 희미하게 하고 개척을 하기도 전에 팀이 분열되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 재정 계획 및 하드웨어 준비

재정계획과 시설 및 장소 확보는 교회개혁의 본질적 문제이거나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가장 현실적인 요소이며, 개혁과정에서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재정계획과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모한 일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지혜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

(1) 재정 후원 팀의 확보

재정후원 팀의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재정후원자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확신, 기도의 응답으로 채움 받는 감격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짧은 선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네비어스 선교정책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 네비어스 선교의 3자 원칙, 즉 자립, 자전, 자치의 원칙을 처음부터 적용하였기에 한국교회가 빠른 시간 내에 서구 교회로부터의 독립과 피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바뀔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 개혁에도 이 원리는 매우 효과적이다.

한국교회 개혁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재정확보의 문제이다. 한국교회의 경우 교회 개혁에서 80퍼센트가 개인이 개혁하고 있으며 그 중의 절반 이상이 개혁자 본인의 자비로 개혁 자금을 충당하고 있기에 1-2년을 버티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⁴⁷⁾

모교회와 교단 차원의 재정 후원과 기도를 통한 개인 및 단체 기부 그리고 개혁 팀의 희생적인 헌신이 함께 할 때 개혁교회의 재정확보는 짐이 아니라 기쁨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응답과 감격을 맛보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칼튼 하버가 추천하는 성공적인 재정 후원 모금의 10단계는 다음과 같다.⁴⁸⁾

첫째, 대의명분을 가지고 성서적 확신을 가지라. 둘째, 정확한 목표를 정하라. 셋째, 사람들이 목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넷째,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이도록 선전하고 홍보하라. 다섯째, 기부금을 책임 있게 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라. 여

47) 명성훈, 148.

48) Ibid.

첫째, 호감과 열의를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라. 일곱째,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라. 여덟째, 구체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 아홉째, 믿음으로 일을 추진하라. 열째, 목표 달성의 축하의식을 계획하라.

재정 후원 팀의 확보와 함께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헌금에 헌신하게 하려면 재정에 대한 신뢰, 교회의 목표와 목적에 맞는 예산 수립과 집행, 재정의 투명하고 정직한 관리, 예산 집행에 대한 정확한 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척 단계부터, 그리고 핵심멤버를 훈련할 때부터 성경적인 헌금원리를 가르쳐야 하며, 개척자는 무엇보다도 재정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2) 하드웨어 준비(위치와 시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 위치와 시설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물론 위치나 시설이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동이 활발하고 편리성을 추구하고 자신의 주거환경 보다 못한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현대인일수록 위치와 시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 살아있는 예배, 탁월한 프로그램, 목회자의 리더십과 영성,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담아내고 표현하는 하드웨어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본지로그 내용이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게 된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있으면 사람들이 물려가겠지만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특히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는 이민자의 경우,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지만 진리를 찾아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지는 않는다. 특별히 불신자를 전도해야 할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전도의 전략상 위치와 시설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위치와 시설이 중요하지만 개척교회 입장에서 적합한 위치와 사람을 끌어들이만한 시설을 갖추기에는 외부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바로 딜레마이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 시설을 마련하고 상환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벅찬 융자를 받아서 시설을 준비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에는 이미 기존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목회 윤리와 도덕을 무시한 경쟁구도로 가게 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개척 단계에서는 모교회를 통한 개척 전략이 매우 효과적인 이유는 모교회가 하드웨어를 마련하는데 적절한 도움을 줌으로써 시설마련에 쏠아야 할 힘을 불신자를 전도하고 성도를 양육하는데 집중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개척 초기부터 적어도 몇 년은 내다보고 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교회 건물은 외양 못지않게 내부 시설과 비품도 중요하다.

본장에서는 급변하는 21세기라는 문화의 옷을 입고 교회를 개척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전략들을 논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있어서 교단이나 교회, 개인을 통한 다양한 교회 개척 전략들이 있으며, 개척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교회론, 목회철학은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이 된다. 개척자는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개척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개척을 위해 자신을 부르셨다는 철저한 소명의식과 그에 필요한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개척을 할 때에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연구조사와 목회대상으로서의 목표그룹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교회론과 목회철학에 따른 올바른 양육체계와 사역체계를 수립하고 교회 개척팀을 확보해야 하며 재정계획 및 하드웨어도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끝난 후 얼마인 온누리교회는 모교회인 서울 온누리교회의 모델을 통한 교회 개척을 시작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모교회 모델을 통한 실제적인 교회 개척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한다.

제 3 장

모교회 모델을 통한 교회 개척전략

교회개척 전략 중 교회를 통한 교회 개척이 효과적 개척전략이며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다. 그것은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의 재활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교회 개척의 80%가 개인을 통한 개척이며 85퍼센트 이상의 교회가 현상유지 내지는 퇴보하는 상황가운데에서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교회가 교회를 재생산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해 나가야 할 일이다. 누룩의 비유(눅 13:20-12)와 겨자씨 비유(막 4:30-32)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자라도록 계획하셨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재생산하도록 창조되었다. 교회의 생명주기(life cycle)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를 재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교회의 건강도 유지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가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의 부족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결여로 인해 자신의 왕국을 세워나가거나 현상 유지 및 생존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현상유지를 타파하고 생존을 넘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교회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교회를 재생산할 때 하나님나라의 관점을 회복할 수 있으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마9:37)는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교회를 필요로 한다. 복음의 기초위에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고 전도할 때, 계속해서 시대를 뛰어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갈 수 있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방법 중에서도, 모교회가 건강하고 성경적이며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모델이고 검증된 모델이 된다면 모교회 모델을 통한 교회개척 전략은 최상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제 1 절 모교회 모델 개척의 장점

모교회 모델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할 경우에는 많은 유익함이 있다. 이미 모델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의 낭비나 재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오브리 맬퍼스도 그의 저서에서 그 장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⁴⁹⁾

장점들을 생각해 보면 첫째,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다. 모교회는 새로 개척하는 교회를 후원하고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많은 개척교회들이 분명한 비전이 있어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 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실적으로 모교회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건물을 구입 및 임대해준다든지, 혹은 몇 년간 교역자의 사례비를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도움을 줄 때 그 교회는 쉽게 자립할 수 있게 된다. 엘바인 온누리교회의 경우에도 처음 2년간 교회의 월세 및 목회자의 기본 생활비를 모교회가 감당해주어서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둘째, 개척할 교회의 구성멤버들이나 핵심그룹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전과 목회철학을 공유한 개척멤버나 핵심그룹을 확보하는 것이 교회개척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재정보다는 준비되고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재정 없이는 시작할 수 있어도 준비된 사람 없이는 시작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교회 사역이다. 개척을 하는 경우 모교회가 새로운 개척교회의 구성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을 함께 포함해서, 새로 개척되는 교회가 있는 지역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아예 새로운 교회의 구성원으로 파송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 구성원들은 거부감 없이 모교회의 비전이나 목회철학의 방향에 따라 한 마음으로 새로운 교회를 섬길 수 있다. 엘바인 온누리교회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모교회가 핵심멤버들을 보내줄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온누리교회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 중에서 몇

49) Malphurs, & Aldrich, (21세기) 교회개척과 성장과정, 532-536.

몇 사람들이 얼바인에 온누리교회를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셋째, 은사와 재능이 있는 일꾼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새신자의 경우나 초신자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기 보다는 섬김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야 하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일꾼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처음 오는 사람들을 다 일꾼으로 세울 수는 없다. 잘 알지도 못하고 검증되지도 못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울 경우에는 많은 부작용이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모교회에서 잘 훈련되고 양육된 일꾼들이 와서 도와주게 되면 교회가 자리를 잡고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의 경우에는 모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강사들을 보내주어서 세미나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고 심지어 행정 업무에 숙달된 모교회의 직원이 와서 교회의 전산 프로그램이나 여러 사무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배를 잘 구성하고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인도자나 찬양인도자가 너무 중요한데 모교회에서 예배 인도와 찬양에 재능이 있는 목회자를 보내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넷째, 모교회로부터 기도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영적 전쟁이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지만, 사탄은 믿는 자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집중적인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일이다. 그럴 때 모교회가 중보기도그룹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기도로 후원해준다면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는 디딤돌을 갖게 된다. 얼바인 온누리교회의 경우에도 처음 시작했을 때 모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었고 중보기도를 하다가 직접 얼바인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었던 성도들도 있었다.

다섯째,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 개척자는 혼자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할 일은 많고 일할 사람은 적어서 혼자서 그 일들을 하다보면 때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육체적인 피곤과 낙심,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다. 그럴 때 모교회의 담임목사나 리더십들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 회복되기가 쉽다. 본 연구자의 경우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 번씩 모교회를 방문

하면 모교회의 성도들에게 설교도 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다시 힘을 얻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었다. 또한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목회의 방향을 정해야 할 때, 모교회로부터 많은 유익한 정보나 지침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여섯째,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나 개척하는 목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요즘은 이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잘 모르는 교회를 선뜻 가는 것이 쉽지 않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의 하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경우 교회와 목회자가 신뢰를 얻는 일이다. 개척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고 부담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를 찾는 사람들조차도 개척교회에 대해 처음부터 신뢰를 보내는 경우는 드물다. 개척할 때 지명도 있는 분의 추천, 교단적인 배경, 신학적인 배경, 목회적인 경험, 모교회의 배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이다. 모교회가 잘 알려져 있고 신용이 있는 교회라면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고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열바인 온누리교회의 경우에도 온누리교회라는 이름이 이미 이민사회에도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첫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일곱 번째,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장점이다.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할 때 '본받음'은 중요한 영적지혜이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텍스트가 있다는 것이다.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올바른 본을 가지는 것은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는 것과 같다. 교회와 교회 개척의 텍스트는 초대교회이며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최고의 모델이다. 시대에 적합한 건강하고 검증된 모교회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를 개척할 때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된다. 콜럼부스의 달걀과 같이 처음은 다 힘들고 어렵지만 본을 가진 사람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며 확신을 가지고 그 본을 따라갈 수 있다. 더욱이 모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협력하면서 주도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재생산하는 경우에는 모교회를 모델로 개척하는 일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모교회의 핵심가치와 DNA, 모교회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성장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여 교회 개척의 모델로 삼는다면 모교회보다 더 건강

한 교회를 세우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교회 모델의 장점이 있다 할 지라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교회의 생명은 성령이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건강하고 성경적인 모교회의 형성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모교회 목회자와 리더십,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그들이 눈물로 뿌린 씨들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면 아무리 완벽하게 모교회를 복제한다고 해도 결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없다.

제 2 절 모교회 모델 개척의 모본

모 교회 모델을 통한 개척은 성경에서 그 모본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현대의 교회들을 통해서도 그 모본을 발견할 수 있다.

1. 성경적 모본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과 잃어버린 영혼구령에 대한 열정,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짧은 시간 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스데반의 순교와 유대교의 박해로 촉발된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은 오히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행 9:31, 개역개정판).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전도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역사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당시에는 교파도, 교단도 없는 하나의 교회였다. 교회의 모델은 하나였다. 물론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교회 그리고 이방인 중심의 이방지역의 교회로 구분할 수 있었지만,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결코 다르지 않았고 하나였으며, 보편적 교회로의 연합과 공동체성이 진정한 교회됨의 표지로 받아들여졌다.

바울 자신도 이방지역에 세워지는 교회가 유대교회와는 다른 교회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와 자신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조금도 구분하지 않았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사도들의 터와 복음의 기초위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 한 교회였고 한 모델이었다.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스스로 재생산을 한 가장 모본적인 교회는 수리아(시리아)의 안디옥교회였다.⁵⁰⁾ 그들은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더 나은 길은 없다.

안디옥교회같이 특별한 성령의 지시에 의해 시작된 교회도 있지만 데살로니가교회처럼 많은 고난과 박해 상황 속에서 세워진 교회도 있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후에 바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아 같은 교회요, 이제 막 탄생한 신생교회였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8절에서 보는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그리스)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였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재생산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지 한세대(30년)도 지나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말씀이 성취되어 비록 가정교회의 형태이기는 했지만(행 16:5) 로마에까지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2. 현대 교회 모본들

첫째, 캘리포니아 남가주 새들백에 새들백 공동체 교회는 위치한 *목적이 이끌어 가는 교회*, *목적이 이끌어 가는 삶*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가 담임으로 섬기는 교회로 미국에서 가장 급성장한 교회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의 하나이다. 릭 워렌 목사는 1980년 7명의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시작하였는데, 3월 30일 첫 번째 설교에서 새들백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매년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지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였다.⁵¹⁾ 시간이 지나면서 9개의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둘째, 시카고 사우스 베링턴에 위치한 윌로우 크릭 공동체 교회는 빌 하이벨스 목사와 그의 팀들이 1975년에 개척한 교회이다. 특별히 이 교회는 구도자들(비신자, 혹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헌신된 제자로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구도자 중심의 교회로

50) Malphurs, & Aldrich, (21세기) *교회개척과 교회성장*, 529.

51) Warren, *새들백교회이야기*, 56.

시작하였다. 현재 시카고 뿐 아니라 미국 20대 도시에 윌로우 크릭형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팀들을 다양한 도시로 파송하고 있다.

셋째, 척 스미스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남가주 코스타메사 시의 갈보리 채플은 남가주와 미국 전역에 250개 이상의 지교회를 세웠다. 지교회의 교인들은 평균 200명 내지 300명인데 지교회 중 13개 교회는 주일 평균 출석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교회들이다.⁵²⁾

넷째, 달라스에 위치한 노스우드 교회는 밥 로버츠 목사가 개척한 교회이다. 그는 교회 개척은 전도만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처음에는 1년에 한 교회 정도를 개척했고, 그 다음에는 1년에 두 교회, 그 다음에는 1년에 네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는 1년에 10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동안 10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이 교회는 교회 안에 개척학교를 만들어 매년 10~15명이 수료하고 있다.

밥 로버츠 목사가 교회의 모델로 삼고 있는 글로컬 교회(Glocal Church)는 global과 local을 합친 단어로서 지역적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를 말한다.⁵³⁾ 그는 glocal net를 설립하여 세계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며 전 세계와 연결된 사역을 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등에서 교회개척과 양육사역을 담당하고 있다.⁵⁴⁾

다섯째, 텍사스에 있는 스프링 브랜치 커뮤니티 교회는 조 윌의 지도력 하에 텍사스 주 휴스턴 시 곳곳에 20개나 되는 지교회를 개척했다.

이밖에 한국교회에서도 영락교회, 충현교회, 광림교회,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지구촌교회, 안산동산교회, 동안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지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재생산하고 있다.

제 3 절 모 교회에 대한 평가

모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있는지를 잘 평가하는

52) Malphurs, & Aldrich, (21세기) 교회개척과 교회성장, 531.

53) 장성배, "밥 로버츠의 교회론과 선교 이해가 한국교회에게 주는 교훈" 목회와 신학 2008년 4월호, 52.

54) 밥 로버츠·이동원, "한국교회는 단지 회심이 아니라 온전한 제자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목회와 신학 2008년 4월호, 32-36.

것이 교회 개척에 대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된다.

밥 로간은 건강한 모 교회들의 가치들을 일곱 가지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⁵⁵⁾ 그는 평가서를 실제로 제시해 놓았는데 아래와 같다.⁵⁶⁾

이 평가서에 맞추어서 서울 서빙고동에 위치한 온누리교회의 헌신도와 실례들을 들고자 한다.

건강한 모교회들의 가치들에 대한 평가

다음의 각 가치에 대한 교인들의 헌신도를 1에서 5까지의 숫자로 측정해 보고 이를 입증할 실례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헌신도 측정수치*

- 1... 우리의 행동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음
- 2... 우리의 행동 속에 약간 나타남
- 3... 우리의 행동 속에 때때로 나타남
- 4... 우리의 행동 속에 자주 나타남
- 5... 우리의 행동 속에 거의 언제나 나타남

첫째,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으로 불신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들을 투자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헌신도는 4에 해당한다.

실례 1: 열린 새 신자 예배(매주일 저녁 7:00 서빙고,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철저하게 전도 예배로 구성되어 있고 예배 중 가장 많은 준비와 인원,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실례 2: 맞춤전도(연령별, 직업별, 성별로 구분)를 위해서 3개월 이상 전 교인이 참여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상자에 맞는 프로그램과 메시지, 거부감 없는 예배로 세심하게 준비하여 큰 열매를 거두고 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의 열린 새 신자 예배와 맞춤전도집회 예배를 위해 2008년에 6억 2백만 원의 예산이 책정, 집행되고 있다.

둘째, 문화적으로 적합한 스타일로 구도자들에게 매력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사역의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헌신도는 4에 해당한다.

55) Logan, "교회개척론," 12.

56) Ibid.

실례 1: 예배의 형식, 분위기(밝고 따뜻한 분위기 연출, 편안한 복장), 구도자들에게 편안한 현대음악을 사용한 경배와 찬양.

실례 2: 평신도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환경조성.

셋째, 지상 명령에 대한 태도로 사역의 능력을 시설이나 재정의 한계를 기준으로 보지 않고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수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에 헌신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헌신도는 5이다

실례 1: 2000명 선교사 파송의 비전 -2008년 현재 파송 누계는 1088명이고 현지 파송 선교사는 60개국에 632명이 있다.

실례 2: 8개 위성을 통한 5대양 6대주에 24시간 위성방송(CGN: Christian Global Network)을 실시하고 있다.

실례 3: 일본, 대만 복음화를 위한 전도 집회(Love Sonata)를 하고 있다.

넷째, 지도자들을 개발시키고 일하게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장래의 교회 개척자들을 찾아 훈련시키고 지도해주며 그 중 최고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나가서 새로운 교회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가? 이 부분에 대한 헌신도는 5이다.

실례 1: 국내 9개의 비전교회(서빙고, 양재, 수원, 부천, 인천, 대전, 남양주, 평택, 건국대)를 개척, 후원하고 있다.

실례 2: 해외 24개의 비전교회(미주 지역 엘바인, L.A월셔, 포틀랜드, 샌디에고, 앵커리지, 밴쿠버, 광, 보스턴, 뉴욕, 시카고(2개 교회가 있음)의 11개 교회, 일본 지역 동경, 오사카, 우에다, 요코하마, 야치오, 나고야의 6개 교회, 오세아니아 지역 시드니, 뉴질랜드의 2개 교회, 중국 지역 북경, 단둥, 상해, 대련, 청도의 5개 교회)

다섯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에 의지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미래를 위한 담대한 계획을 세우는가? 이 부분에 대한 헌신도는 5이다.

실례 1: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00명의 사역자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다.

실례 2: 680만의 흩어진 한인들과 15000명 선교사들을 위한 CGN 방송사역을 하고 있다.

여섯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 교회의 지역사회 사역에 방해를 준다

하더라도 근처에 새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격려해 주는가? 내 교회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복음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부분의 헌신도는 4이다.

실례 1: 두란노 서원과 교회 협력사역을 통해서 기존 교회와의 협력, 지원 및 온누리교회의 모든 영적 자원들을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곱째, 너그러운 마음으로 건강한 교회는 새로운 교회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자신의 교인들과 재정적인 자원들을 거저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의 헌신도는 4이다.

실례 1: 7년 이상된 헌신되고 훈련된 성도의 파송

실례 2: 교회를 개척할 경우 목회자에게 3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고 비전교회를 설립할 때 하드웨어를 확보하는데 지원하고 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가 모교회인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모델로 삼은 것은 이와 같이 모교회가 비교적 건강하고 시대적으로 적합하고 검증된 모델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1990년 말부터 2008년 현재까지 온누리 교회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온누리교회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서 본 연구자는 온누리교회가 결코 완전한 교회도 아니고 결점이 없는 교회도 아니며 실패가 없었던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역의 실패와 부족함은 있었지만 건강한 교회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국내뿐 만 아니라 일본, 중국, 오세아니아, 미주 등에서 모교회 모델을 통한 교회 개척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내와 해외의 33개 온누리교회가 모교회 모델을 통해서 모든 지역에서 비교적 건강하게 개척되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온누리교회와 온누리교회의 모교회 모델 개척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과 충고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형교회의 횡포라거나 지나친 물량주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공동체의 연합보다는 개교회주의와 교세확장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온누리교회는 작은 교회나 기존교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온누리교회가 개척됨으로 인해 오히려 주변의 작고 연약한 교회들의 교인의 이동과 교회 성장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겸손하게 귀 기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온누리교회가 단지 12가정으로 건물도 없이 가정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온누리교회가 그 시작 때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달라진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화되고 전통화되며 경직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의 비전과 사명, 목회철학은 1985년 10월 6일 개척 때부터 2008년 현재까지 바뀌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가 현상유지하거나 퇴보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교회성장이 인구성장에 대비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새로운 교회는 계속 개척되어야 한다. 개인이 개척해서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루면서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교회 개척을 단지 개인만의 헌신과 결단에 맡겨 둘 수는 없다.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과감한 시도를 해야 할 것이며, 전도가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재생산하는 일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 4 절 모교회 모델의 DNA 확보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 유기체로서의 교회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요, 산 돌로 형성된 거룩한 성전이다. 교회를 생태학적으로 이해할 때 교회의 본질을 규정하는 분명한 DNA가 존재한다. 모교회의 DNA를 확보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생태학적인 교회론을 주장한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의 자연적 교회성장이론이 있다. 그가 얘기하는 자연적 교회성장 원리의 8가지 질적인 특성이 바로 교회론의 DNA라고 할 수 있다. 8가지 질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⁵⁷⁾

첫째,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다. 교회의 지도자는 사역을 위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와 권한을 부여하는 일에 중점을 둔다. 지도자는 평신도들을 자신이 설정해 놓은 목표나 자신의 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조력자”정도로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피라미드형의 권위구조를 거꾸로 뒤집어서 리더가 교인들을 섬기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 잠재력을 개발하여 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둘째, 은사 중심적인 사역이다.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요인들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은사를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는 것이다.

57)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 *자연적 교회성장* (서울: NCD, 2000), 22-36.

셋째, 열정적인 영성이다. 교인들이 기쁨과 열정으로 헌신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믿음의 열정은 거의 언제나 그 교회를 위한 열정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

넷째, 기능적인 조직이다. 조직을 위한 조직, 전통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교회의 비전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기적이고 자생적으로, 부서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다섯째, 영감 있는 예배이다. 영감 있는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이 즐겁다고 고백하는 예배 경험이다.

여섯째, 전인적 소그룹이다. 전인적인 소그룹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그룹에 속해 있거나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 모두 포함해서)을 섬기기를 배우는 자연스러운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일곱째, 필요 중심적 전도이다. 전도의 초점을 불신자들이 당면한 문제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맞추는 데 있다.

여덟째, 사랑의 관계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어떻게 역사 하는지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와같은 자연적 교회 성장의 8가지 질적 특성으로 모교회의 DNA를 확보하고, 모교회의 DNA를 바탕으로 모교회를 평가하고 개혁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모교회의 DNA를 확보하는 두 번째 방법은 예배, 친교, 봉사, 증거의 건강한 균형을 통해서 DNA를 파악할 수 있다. 예배에서는 성령의 영감과 감동이 있는 예배인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변화되고 치유되고 성장하고 있는가? 친교에 있어서는 사랑의 관계, 전인적인 소그룹이 교회 안에 형성되어 있는가? 봉사는 은사중심의 사역, 기능적 조직, 섬김의 영성이 형성되어 있는가? 증거에서는 필요 중심적 전도, 전도에 대한 강조와 실제적인 훈련,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내는 선교사, 무릎선교사, 가는 선교사로서 교인들이 헌신되어 있는가?

세 번째로 모교회의 DNA를 확보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 DNA가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핵심 DNA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4:23과 마태복음 9:35의 예수님의 공생애의 3대 사역(가르치심, 복음전파, 치유사역)을 교회 DNA의 핵심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교회가 사랑의 교회인데, 사랑의 교회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즉, 가르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이다.

네 번째로 모교회의 DNA를 확보하는 방법은 교회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전도의 장, 교제의 장(예배, 소그룹을 통한), 양육의 장, 사역의 장, 선교의 장으로 나누어서 DNA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전도의 장에서는 전도의 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준비되어 있는가?, 시대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전도의 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교제의 장에서는 예배, 소그룹을 통한 일치와 연합,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양육의 장에서는 새 신자에서부터 성숙한 리더에 이르는 체계적인 양육 체계가 갖추어졌는지를 살펴본다. 사역의 장에서는 은사와 재능과 열정에 따라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사역할 기회가 열려 있는가? 사역자들을 세우기 위한 훈련은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선교의 장에서는 삶과 신앙의 목적으로서 모든 교인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교회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섯 번째로 모교회의 DNA를 확보하는 방법은 새들백 교회의 5M-Magnify(찬미), Membership(소속), Maturity(성숙), Ministry(사역) Mission(선교)-이나 윌로우 크릭 교회의 5G-Grace(은혜), Growth(성장), Group(모임), Gifts(은사), Good Stewardship(선한 청지기 정신)-를 모델로 삼는 것이다.

서울 은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그 모델로 삼고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DNA를 열 가지로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⁵⁸⁾

첫 번째, 성령 충만한 공동체이다(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이다. 두 번째, 예수의 삶을 사는 공동체이다(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 재물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의 응집력이 생겼다. 세 번째,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이다(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적인 교회에는 초자연적인 체험이 있었다. 네 번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다(사도행전 4장). 교회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영적 공동체이다. 다섯 번째, 거룩과 성결과 정직을 추구하는 공동체이다(사도행전 5장). 아무리 효율적이고 그럴 듯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속임

58) 하용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서울: 두란노, 2007), 133-155.

수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교회에서 거룩과 정직과 순결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여섯 번째,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공동체이다(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는 교회의 리더십을 사도들이 독점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도가 교회의 중심인물이 아니었다.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그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되고 만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 직분에 따라 여러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 일곱 번째, 순교하는 공동체이다(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위해 스스로 순교의 길을 택했다. 고난 없이 복음은 전해지지 않고 순교 없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 여덟 번째, 이방인을 품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이방인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아홉 번째, 땅 끝까지 선교하는 공동체이다(사도행전 13-28장). 사도행전 교회의 결론은 선교이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 끝까지 가는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 가는 공동체이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새로운 교회를 낳는다. 사도행전 28장은 끝났지만 그 때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흩어져 교회를 세우고 가르침으로 교회가 생겨났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은 2천여 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이것이 사도행전 29장이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척되어야 한다.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를 낳아야 한다. 온누리교회의 이러한 열정이 다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개척할 때 모교회로부터 채택한 핵심 DNA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둘째, 충실한 강해설교. 셋째, 성도 개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한 QT의 생활화. 넷째,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제자도의 실천을 위한 일대일 제자훈련. 다섯째,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양육체계. 여섯째, 은사와 열정과 스타일에 따른 평신도 사역. 일곱째, 교회가 커지면서도 동시에 작아질 수 있는 소그룹의 활성화-특히 전통적으로 여성 중심의 구역모임에서 남성 중심, 부부 중심의 소그룹. 여덟째, 가정 사역-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아홉째,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우선순위. 열째, 21세기 포스터모더니즘 시대에 적합한 전도훈련-맞춤전도. 열한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령사역. 열두째, 지상명령 수행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 '보내든지 가든지'의 선교공동체이

다. 이와 같이 분명한 모교회의 DNA를 파악하여 얼바인 온누리교회 개척에 실제로 적용했을 때, 많은 어려움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개척단계에서부터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제 5 절 모 교회 모델을 통한 개척의 실제적 적용

모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개척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모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모방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

1. 모방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원리들을 배울 수 있다. 건강한 교회, 성경적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원리는 배울 수 있다. 그 원리가 성경적이라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다. 모델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가장 빠르게, 가장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⁵⁹⁾ 또한 모델을 통해 잘 배워서 또 다른 교회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다.

원리를 배우지 않으면 방법을 배우고 프로그램을 아무리 복제해도 결코 자신이 원하는 모델이 될 수 없다. 겉으로는 비슷해보일지 모르지만 영성과 생명력은 결코 복제될 수 없다. 경배와 찬양 운동이 한창일 때 많은 찬양 팀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서 하던 목요모임을 복제하고자 했다. 곡과 찬양 스타일, 인도자의 멘트, 기도하는 스타일, 심지어 마이크와 악기, 앰프까지 똑같이 마련하고 배운대로, 본대로 똑같이 경배와 찬양을 시도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두란노 경배와 찬양의 영성, 훈련, 헌신, 그리고 목요 모임에서 보여준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의 영성과 영향력을 형성하는데 훨씬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원리와 영성, 훈련은 배우지 않고 형식만 배우고 형식만 도입하려 했던 많은 찬양 팀들이 오히려 예배와 찬양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보고 배우고 모델을 가지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필요한 것은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이다. 형식이 아니라 원리를 배우고, 자신들의 개성과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과정을 모방할 수 있다.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성

59) 릭 워렌, 84.

장에는 성장의 과정이 있다. 건강한 교회, 자연적 교회 성장에도 모두 성장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성장의 결과는 성장 과정의 열매이다. 성장의 결과는 원하면서 성장 과정을 무시하면 원하는 성장의 결과를 결코 얻을 수 없다. 서울 온누리교회도 1984년에 12가정으로 한남동 한국기독교선교원을 빌려서 시작했다. 사람들은 현재의 온누리교회 모습만을 보면 처음 온누리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성장과정을 이해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고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서울 온누리교회도 태동기(1984-85), 개척기(1986-87), 발전기(1988-91), 성숙기(1992-96), 결실기(1997-현재)를 거쳤다.⁶⁰⁾

태동기에는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성경적인 교회론을 토대로 목회방향을 설정했다. 1984년 10월에 열 두가정이 모여서 1년 동안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다는 꿈과 비전을 나누었다. 개척멤버를 훈련하며,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형제, 자매로 호칭하며 가족공동체를 형성한 시기이다.

개척기에는 1985년 10월 6일 78명의 성도가 모여 온누리교회 창립예배를 드렸고 가건물에서 예배드리면서 새 신자 교육 및 제자훈련이 강조되었다. 이 기간은 교회의 양육체계와 교회 운영 및 행정 매뉴얼의 기초를 놓은 시기이다. 또한 담임목사(하용조 목사)가 직접 새 가족 교육 및 제자훈련을 담당했던 기간이다.

발전기에는 QT와 일대일 제자양육, 주간·주일 성경공부 등 말씀사역을 강조했으며 교사대학 등 현재의 각종학교 프로그램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40명의 선교사와 6개의 선교기관을 섬겼고, 희년사역세미나, 짐 그레함 목사의 예배세미나, 가정생활 세미나, 사회선교훈련학교 등 심화된 말씀 공부를 통해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다.

성숙기에는 오순절 성령집회, 영적 전쟁을 위한 성령집회들 성령사역과 영적 부흥, 기록과 순결위한 기도 사역을 강조하였고 하나님께서 2천명의 선교사와 1만명의 전문사역자를 양성하는 2000/10000비전을 주셨다.

결실기에는 2~3천여 명의 국내외 교회지도자를 초청하여 '온누리 사역축제'(OMC), '성령축제'(HSC), '비전과 리더십축제'(VLC)를 가졌다. 또한 이반족, 하니

60) 온누리교회 "peace 2008 온누리교회를 소개합니다", 10-11.

족을 비롯한 15개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였다. 그리고 'Acts29비전'으로 국내 캠퍼스와 해외 비전교회 설립이 활성화되었다. CGN TV 위성방송이 시작되었고 2008년 현재 57개국에 107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이와 같이 각 과정마다 반드시 행해야 할 일과 갖추어야 할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성장 과정의 순서를 제대로 밟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불필요한 시행착오나 실수와 실패까지 반복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과정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모 교회 모델을 적용할 때 성장 과정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모 교회 모델을 창조적으로 적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몇 가지 방법들을 배우는 것도 아주 유익한 모방일 때가 있다. 어떤 방법도 영원하다든지 또는 어디에서나 효과적인 것은 없다. 원리를 적용할 때 검증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때로는 매우 효과적일 때가 많다. 예배의 구성, 팀의 훈련, 회의를 인도하는 법, 예산을 세우는 일, 교회를 조직하는 법, 지도자를 세우는 일, 단기 선교 팀을 운영하는 법 등 이미 모 교회를 통해 효과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시행착오도 줄이고 건강하게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모 교회 모델 개척은 어떤 개척 방법보다 효과적이고 또 방법을 공식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 모방할 수 없는 것

첫째, 모교회의 환경은 모방할 수 없다. 모교회의 문화적 환경, 지역적 환경, 구성원은 모 교회 모델을 적용할 때 모방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모 교회 모델은 인위적으로 복사판을 만들 수는 없다. 그 지역과 대상, 문화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특별히 모 교회가 한국에 있고 모교회 모델을 통한 개척 지역이 엘바인과 같이 이민사회인 경우에는 더욱이 환경을 모방하는 것은 실패를 위한 공식과 같다.

엘바인 온누리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문화적, 환경적 차이를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차세대, 주일학교 교육과 예배 음악, 주일 점심식사와 친교와 교제이다. 차세대(중고등부)의 명칭부터가 전혀 적용할 수 없었다. Power Wave라는 말은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는 좋은 이미지로 차세대 부서의 이름이 되었지만 미국에서는 Power Wave

가 대표적인 세속음악 방송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차세대 부서의 이름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다른 이름을 쓸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생소한 개념인 1.5세, 2세 성도들, 교역자와 어른들과 자녀들도 영어권과 한국어권이 구분될 수밖에 없었고, 교재도, 커리큘럼도 서울 온누리교회의 것을 그대로 접목할 수 없었다. Q.T 교재도 한국어권과 영어권으로 따로 편집해야 할 만큼 환경과 문화의 차이는 엄연한 현실이었다. 예배 스타일과 예배 음악도 서울 온누리교회와 이민교인들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어서 예배공동체로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목회철학을 공유하면서도 특별히 예배 음악은 이민자들에게 맞추어 조금씩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모 교회의 사역자들은 옮겨놓을 수 없다.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개척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비전을 공유하고 잘 훈련된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얼바인에 교회를 개척하고 모 교회모델을 적용해 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사역자 문제였다. 함께 같은 비전을 품고 훈련된 사역자는 건물보다도, 재정보다도, 프로그램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개척 목회를 해 본 목회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얼바인 온누리교회는 모 교회의 훈련되고 검증된 사역자들을 단기로, 수련회 형식으로 또는 세미나 강사로 초청하여 교회의 핵심가치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모교회 안에 Acts 29 본부가 구성되어서 사역 팀들을 단계별로 파송하고 그 팀들의 비용을 담당함으로써 사역자의 필요를 충당해 나갔다. 특히 모 교회 목회자들과 행정 팀을 2년 정도 파송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모교회의 담임목사를 옮겨올 수 없다. 모교회 모델로 교회를 개척할 때 모 교회의 담임목사가 사도바울처럼 직접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천의 참된 교회 박창하 목사나 지구촌교회의 이동원 목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된다. 그러나 모 교회 모델의 개척에 있어서 담임 목사가 직접 개척하기 보다는 모 교회 부목사나 책임자를 세워서 개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개척자는 담임목사의 복사관이 되기보다는 모 교회의 비전과 목회철학, 양육체계, 사역체계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잘 소화시켜 자신의 은사와 열정과 재능, 개성, 경험을 접목하여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모교회를 모델로 삼아 개척할 때 모방할 수 있는 부분은 겸손하게 적극적이고도 창조적으로 모방하고, 모방할 수 없는 부분은 모교회와 협력하고 팀사역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모교회 모델을 통한 교회개척은 매우 효과적이다.

본장에서는 일반적인 교회개척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로 모교회 모델을 통해서 개척하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모교회 모델로 개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익한 장점들이 있으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와 현대의 새들백교회나 윌로우 크릭 교회 등은 모교회 모델을 통한 교회개척의 아주 좋은 모본들이 된다. 그리고 건강한 모교회들의 가치들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가 없이는 발전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닌 유기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생태학적으로 이해할 때 교회의 본질을 규정하는 분명한 DNA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DNA를 모교회 모델 안에서 확보하고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에 잘 접목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모교회 모델을 실제로 적용하여 개척을 할 때 모방할 수 있는 요소와 모방할 수 없는 요소를 잘 살펴서 적용해야 함을 다루었다. 교회 개척의 원리나 과정 등은 모방할 수 있지만 모교회의 환경이나 사역자들은 그대로 옮겨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개척한 준비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제 4 장

얼바인 온누리교회 개척의 준비 및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교회를 개척할 때 지역에 대한 자세한 사전분석이 매우 필요하다. 교회가 세워질 지역을 잘 조사하고 연구하면 교회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또한 개척 일정에 따른 세심한 준비와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야만 한다.

제 1 절 얼바인 이민사회 분석

이민사회를 분석할 때는 한국사회를 분석하는 것과는 다른 기준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나 소그룹 성경공부, 사역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연령별, 직업별, 성별의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민사회에서는 언제 이민 왔는지 이민 온 년 수가 무엇보다도 목회대상 분류에서 중요한 기준이다. 그리고 어떤 이민과정을 거쳤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간호사나 광부로 취업 이민했다가 미국으로 재 이민한 경우는 주로 미국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했고, 남미로 이민 갔다가 미국으로 재 이민한 경우는 주로 플로리다와 L.A지역으로 정착했다. 유학생으로 왔다가 이민자로 정착한 경우도 있고 한국사회에서 받은 상처나 부정적 경험 때문에 이민 온 경우도 있다. 또한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가지고 이민을 왔거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이민 온 경우도 있다. 그리고 투자이민자나 취업이민자로 온 경우도 있고 국제결혼을 통해서 이민 온 경우도 있다.

얼바인 지역의 경우에는 얼바인이 좋은 교육환경과 편리한 주거환경 등 삶의 질이 높기 때문에 이미 다른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살고 있던 기

존 이민자들이 이주해 왔거나, 또는 다른 나라에서 새로 이민 온 두 부류가 있다.

1. 엘바인 지역

엘바인은 태평양 부근에 위치해 있는 도시로서 로스앤젤레스의 교외지역에 있다. 구체적으로 로스앤젤레스로부터 남쪽으로 65킬로미터 정도 그리고 샌디에이고로부터 북쪽으로 130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다. 면적은 약 149.64Km 이고 2005년 현재 인구가 약 180,000명에 달한다. 특이하게도 엘바인은 엘바인 회사(the Irvine Company)가 소유하고 있는 엘바인 랜치(Irvine Ranch)에 건설된 기업주도형 신도시이다.⁶¹⁾

엘바인 건설은 1959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당국이 엘바인 회사에 캠퍼스 부지를 기증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엘바인 회사가 동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엘바인 회사는 농업부문의 경쟁력이 하락해가고 교외화로 인해 로스앤젤레스대도시권이 급속하게 팽창함에 따라서 교외지역 개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엘바인 회사는 1960년대부터 도시개발 부문으로 주력분야를 전환하여 엘바인 랜치 부지에 엘바인과 같은 교외도시를 건설했다. 그리고 건축가 페레이라(W. Pereira)와 엘바인 회사의 도시 계획가들은 대학캠퍼스(오늘날의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를 중심으로 인구 10만 명의 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엘바인은 1960년대부터 건설되었다.⁶²⁾

그 후 엘바인은 주민투표를 거쳐 1971년 12월 법적으로 시(city)로서 지위를 갖게 되었다. 도시건설이 시작된 후 계속해서 엘바인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공급에 바탕을 둔 자족성 그리고 양질의 생활환경을 특징으로 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해오고 있다. 1970년대에 3만 명가량이던 인구가 2000년 현재는 15만 명을 헤아리게 되었고 엘바인 시에서는 인구가 20만 명에 달하면 인구 유입을 억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0년 인구센서스에 의해서 엘바인에 거주하는 인종의 분포를 보면 백인이 61퍼센트, 아시아인과 Pacific Islander가 29퍼센트, 히스패닉이 7퍼센트, 흑인이 2퍼센트, 그리고 기타가 1퍼센트로 나타나 있다.

61) 변필성, 안영진, “살기 좋은 도시 미국 캘리포니아의 엘바인: 발전과정과 주요특성,” *지리학연구* (2007), 30.

62) Ibid., 31.

얼바인은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주요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얼바인은 첨단기술 기업의 집적과 풍부한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다. 얼바인 회사는 주택과 일자리의 균형, 즉 자족성을 달성하기 위해 비즈니스파크와 Irvine Spectrum이나 Irvine Technology Center 같은 콤플렉스를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해 왔다. 그 결과로 다양한 규모의 첨단기술 기업들과 그것에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업들이 집적하게 되었고, 첨단기술 기업의 집적은 얼바인에 풍부한 일자리를 가져다주고 있다.⁶³⁾

두 번째로 얼바인은 풍부한 레크레이션 공간과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 7월 현재 얼바인에는 커뮤니티 공원 13개가 입지해 있고 31개의 근린공원도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곳곳에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으며, 넓은 면적의 자연보호구역과 야생동물 보호지구 그리고 고속도로의 환충지구 등은 오픈 스페이스로서 보호되고 있다.⁶⁴⁾

세 번째로 얼바인은 개성과 자족성을 갖춘 마을을 조성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얼바인에서는 근린주구 내부에 커뮤니티시설(소규모 쇼핑센터, 문화시설, 학교, 공원 등)을 배치하되 거주지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도시 중심부 근린주구에 근접하게 고용 중심지를 배치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공간적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⁶⁵⁾

이네 번째로 얼바인은 범죄율이 낮은 안전한 도시이다. 미국 내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들 중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2000년도에 실시된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얼바인으로 이주하게 된 동기에 대한 질문에 안전한 도시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5퍼센트를 차지하였다. 무엇보다도 얼바인은 인구대비 범죄건수가 대단히 낮다. 실제로 얼바인은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 연방수사국 범죄 순위에서 여섯 번째로 범죄율이 낮은 도시이며, 폭력범죄에 한해서는 범죄율이 제일 낮은 도시이다.⁶⁶⁾

다섯째로 얼바인은 양질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얼바인 캠퍼스의 건설이 도시개발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 개발 과정에서 교육이 중

63) 변필성, 안영진, “살기 좋은 도시 미국 캘리포니아의 얼바인: 발전과정과 주요특성,” 34.

64) Ibid., 35.

65) Ibid., 36.

66) Ibid., 37.

점적으로 육성되어 왔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엘바인 캠퍼스 외에도 4년제 대학(Concordia University) 과 2년제 대학(Irvine Valley College) 이 각각 하나씩 입지해 있고 특히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엘바인 캠퍼스는 1965년 개교 이래 미국 내 명문대학의 하나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엘바인 통합교육청 관할 하에 34개의 초·중·고교가 입지해 있다. 무엇보다도 엘바인의 우수한 교육환경은 각종 교육의 수준을 나타내는 성과지표에서 잘 드러난다. SAT-1과 CAHSEE(California High School Exit Exam)와 같은 학력 테스트에서 엘바인은 오렌지 카운티 전체와 비교해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고, 자퇴율도 매우 낮은 편이다. 그래서 교육열이 높은 한국 사람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 되었다. 이처럼 엘바인은 미국여성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 1위로, 또한 FBI가 선정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로 미국 최고의 도시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곳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엘바인은 오렌지 카운티 전체와 비교해 볼 때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저소득층의 유입에 장벽이 되고 있다. 또한 인근 다른 도시에 비해 비싼 생필품이나 기름 값 등 생활하는 데 필요한 부대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곳이기도 하다.

2. 엘바인 한인들의 생활상

엘바인이 교육과 생활환경이 좋기 때문에 한인들의 선호도가 높아서 이곳에 사는 한인의 숫자는 2004년 현재 약 8,800명으로 이미 도시 전체의 인구 14만 8,000명의 약 6퍼센트에 육박했고, 최근에도 한국에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엘바인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세탁소, 식당, 부동산업자, 미장원, 개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로부터 주재원, 연구원,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엘바인 자체가 집값이 비싸고 생활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엘바인 거주 한인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삶의 기반이 안정된 40대와 50대 부류 인데 이들은 비교적 이민 온 햇수가 오래된 편이다.

이들은 삶이 안정되고 대부분 대학생 자녀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버는 것과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보다는 삶에 대한 의미 추구와 좋은 교회에 대한 기대와 영적인 갈망이 높다. 30대는 엘바인 지역에 거주하기에는 아직은 경제적인 여유

가 없고, 또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30대는 돈과 가족과의 시간,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영적인 갈망과 좋은 교회에 대한 열망은 낮은 편이고 문화적이고 편리한 삶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부류는 얼바인이라는 도시가 살기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이며 교육적인 환경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최근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얼바인 지역에는 신규 이민자, 교육이민, 조기 유학생, 속칭 기러기 가족(자녀 교육을 위해 아버지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와 자녀는 함께 미국에서 공부하며 생활하는 형태의 가족을 일컬어 생긴 호칭)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목회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은 비교적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들어왔고 미국에 온 이유도 아이들 교육 때문인 경우가 많아서 기존에 얼바인에 정착한 한인들과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문화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3. 얼바인 한인교회 분석

크리스찬 투데이는 2007년 4월말 현재 각 시 별로 미주 한인교회 현황을 집계하여 통계로 내놓았다. 이에 의하면 미국에서 한인교회가 가장 많은 도시는 로스앤젤레스로 총 306개의 한인교회가 운집하여 미국의 전체 한인교회 3,822개의 8.01%를 차지했다.

남가주에는 115개 시에 총 952개 한인 교회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가주에 속한 도시 얼바인에는 12개의 한인교회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아시아 선교교회, 얼바인 침례교회, 얼바인 성락교회, 얼바인 연합선교교회, 얼바인 은혜침례교회, 얼바인 제일성결교회, 얼바인 중앙장로교회, 얼바인 필그림교회, 우림교회, 한민음교회, 얼바인 은혜교회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뽀엘교회는 남가주에서 대표적으로 큰 교회 중 하나이고 얼바인 침례교회도 성도 1,000명이 넘는 비교적 큰 교회이다.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차지하는 자리는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주류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언어도 서툴러서 위축되어 있는 이민자들에게 교회는 같은 민족이 같은 언어로 동질감과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경조사를 나누며 삶을 나눌 수 있는 교제의 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제 2 절 엘바인 온누리교회 개척을 위한 준비

개척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는 핵심그룹을 양성하고, 창립예배 D-day를 맞추어 개척 일정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목회철학을 반영한 재정계획을 지혜롭게 세우고 창립예배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 전체가 포함된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와 토대가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때에도 영적기초가 되는 개척을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와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핵심그룹을 양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그룹 양육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1. 교회 개척을 위한 핵심그룹 양성

엘바인 온누리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개인적인 지원이나 지원 시스템, 개척을 위한 자원 마련, 구체적인 교회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와 개척 팀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교회 개척의 핵심멤버를 모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엘바인 온누리교회는 모교회를 통한 개척이라는 전략으로 시작한 교회이기는 하지만 모교회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모교회를 통해 핵심멤버를 구성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 물론 서울의 모교회가 규모가 작은 교회라 아니기 때문에 엘바인을 중심으로 자동차로 30분 반경 내에 모교회 출신으로 이민 와 있는 성도들도 있었다. 그러나 모교회 출신이라고 모두 다 엘바인 온누리교회의 개척에 부르심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단순히 모교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목회자와 개인적인 친분관계 때문에 개척 팀에 합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엘바인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약 1년 동안 엘바인 지역에 살면서 인간관계를 맺었지만 모두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있는 상황이었다.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는 사람들로 시작하겠다는 믿음으로 기도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약 한 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서로가 확신을 갖게 된 일곱 가정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비전을 나누며 교제하는 모임으로 일단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핵심멤버를 구성하며 훈련하

는 일을 시작했다. 앞으로 1년간은 일체의 외부 광고나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고 조직이나 직분도 없이 서로 비전을 나누며 양육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했다. 수요일 성경공부, 금요일 기도모임을 계속하는 동안 수요일 성경공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함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핵심그룹을 집중적으로 양육하기 시작했다. 약 3개월간 핵심그룹을 양육하면서 두 가지를 최우선적으로 강조했는데 바로 예배와 전도였다. 봉사도, 사역도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배자로 헌신하게 했다. 그리고 수평이동이 심한 이민교회의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전도를 강조하며 전도훈련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또한 개척 팀을 확보하고 교회를 준비하면서 늘 강조했던 것은 기도사역이었다. 예수님도 기도로 공생애를 준비하셨고, 초대교회도 먼저 기도로 시작했던 것처럼 교회 개척은 영적 전쟁이며 성령의 능력 없이는 건강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요일 기도모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모교회에 강력한 증보기도의 후원을 요청하고 많은 분들에게 증보기도를 부탁했다. 이렇게 해서 3개월을 준비한 후에 8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2002년 11월 추수감사절에 첫 공식예배를 드렸다.

2. 개척 일정

얼바인 온누리교회는 모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모교회 모델로 시작된 교회이다. 본 연구자인 개척자 자신이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모교회의 결정에 의해 시작되었기에 개척이 갑자기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척 일정을 잡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교회를 등록하는 일이었는데 캘리포니아 주와 오렌지 카운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을 하였다.

예배 장소를 정할 때도 일반 사무실 용도였던 장소를 종교시설 및 집회 장소로 용도 변경허락을 받는 과정과 주변 주민들의 공청회와 동의 과정을 먼저 거쳐야 했다. 2002년 8월 26일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등록과정과 예배장소에 대한 사용 허가 기간 동안을 집중적으로 핵심그룹을 양성하는 기간으로 보냈다. 원래 의도는 개척 핵심그룹을 적어도 6개월 이상 양성한 후에 창립예배를 드리려고 했다. 서울 온누리교회도 열 두가정의 핵심그룹을 1년 동안 훈련한 후에 공식적

인 창립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바인의 경우 핵심그룹의 대부분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상태였다. 그들이 섬기던 사역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들의 조직이 편성되는 연말 이전에 교적을 정리할 필요성이 생겼다. 한국교회처럼 대부분의 미국교회에서도 대부분 연말에 교회를 옮기기 때문이다. 또 미국에서 최대의 명절과 축제는 추수감사절이다. 이 날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교회 추수감사절 예배와 축제에 초대되고 거부감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때이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공식예배로 정하고, 핵심그룹을 사역 팀으로 준비시키면서 공식예배 날짜에 맞추어서 개척을 준비해 나갔다. 이미 다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아쉬운 것은 핵심그룹을 충분히 훈련하고 양육하지 못한 채 공식적인 창립예배를 드린 점이다. 물론 공식예배 후에도 핵심그룹을 계속해서 양육할 수는 있지만 이미 모여들기 시작한 새 가족들을 돌보느라고 아무래도 원래의 의도대로 핵심그룹을 양성하는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얼바인 온누리교회의 시작을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주일예배를 시작한 공식예배와, 교회의 비전과 목회철학, 온누리교회의 DNA를 가진 핵심그룹과 교인들을 더 확보하고 영적무장을 한 후에 외부손님들을 초청해 드리는 창립예배로 분리하기로 했다.

공식예배는 2002년 11월 24일이었지만 창립예배는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8월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2003년 8월 10일에 창립예배를 드리기로 개척일정을 잡았다.

이 개척일정가운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일은 지역에 개척을 알리기 전에 먼저 지역교회에 알리는 것이다. 지역교회 목회자들에게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목적과 목회철학을 충분히 설명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창립예배 때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목회자간에 교류가 시작되면 교회 개척에 대한 긴장과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오히려 교회의 수평이동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3. 개척교회 설립을 위한 재정계획

교회를 개척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교회개척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다. 재정적 문제 때문에 개척을 시도하지 못하거나, 개척을 시작했어도

재정적 문제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 되면 결국 증도에서 포기하거나 또는 처음에 생각했던 개척 선정지역과 선정대상을 전도하거나 목회하지 못한 채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목회자 개인의 생활, 예배 장소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이 이전 더 이상 목회자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는 모교회 모델로 모교회의 지원을 통해 세워진 교회이다. 2년 동안 예배 장소의 임대료를 내 주었고 개척자에 게 매월 \$2,000의 지원을 해 주었다. 그리고 전문사역자들이 자비량으로 얼바인 온누리교회에 와서 필요한 사역을 지원하고 훈련해 주었기 때문에 개척 초기에 들어가는 재정적인 큰 부담 없이 비전과 목회철학에 따라서 성장 단계를 순리적으로 밟아 나갈 수 있었다.

개척 팀들도 재정 부담보다는 전도와 사역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새 가족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었고,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도 재정적인 부담 없이 개인적인 영적성장과 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물론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 것이 최선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교인이 되고 교회 멤버십이 된다는 것은 교회에 필요한 재정적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헌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헌신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 선교지나 미자립 교회들 가운데 외부에서 전적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의지할 경우 오히려 신앙성장에 역효과가 날 때가 많다. 자립, 자전, 자치의 네비어스 선교 정책에 따라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재정적인 자립을 해 나간 것이 한국 교회 부흥과 성장의 요소 중 하나이다.⁶⁷⁾ 하지만 처음부터 과도한 재정적인 부담을 갖게 되면 오히려 전도와 선교와 교회성장의 저해요인이 된다. 개척단계에서 재정적으로 자립할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교단 차원의 지원이나 모교회의 지원은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모교회에 재정을 의지하게 되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교인들의 믿음과 영성에도 득보다는 실이 많게 된다. 그래서 모교회의 지원의 규모와 한계를 정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재정을 자립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영적 건강을 위해 최선의 길이다.

얼바인 온누리교회는 개척 1년 후에는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예배와

67)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서울: 기독교문사, 1989), 220.

전도와 양육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1년 후에는 재정을 자립하여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몽골, 브룬디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교인들의 재정적인 헌신을 위해서는 재정집행과 관리의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재정 관리를 전산화했고 매분기마다 교인들에게 재정보고를 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으며 정확한 세금보고를 하였다.

교회를 통해 신앙적 성숙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과 관리, 교회 설립의 비전과 사명대로 올바르게 재정이 쓰일 때 교인들도 적극적으로 헌금에 동참하고 헌신의 기쁨도 알게 된다. 성경적이고 체계적인 신앙훈련을 통해 십일조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십일조 헌금하는 교인들이 많아져서 엘바인 온누리교회 전체 헌금의 70%를 십일조 헌금이 차지하고 있다.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재정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크리스찬 재정관리세미나, 청지기로서의 삶에 대한 강의 등 올바른 헌금생활에 대한 교육을 계속 해 나가고 있다.

4. 창립예배를 위한 구체적 준비

창립예배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로 교회성장 전문가인 명성훈은 7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⁶⁸⁾

첫째, 충분히 준비된 후에 창립예배를 드리라. 둘째, 교회 창립을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라. 셋째, 교회 창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 넷째, 창립 예배에 초청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라. 다섯째, 기존교회와 목회자의 협조를 구하라. 여섯째, 창립 예배를 위한 리허설을 가지라. 일곱째, 창립 예배는 가장 은혜롭게 드리라.

엘바인 온누리교회의 창립예배를 준비할 때 위의 7단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특별히 가, 나, 마 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하였다. 개척 교회의 잉태단계와 발달 단계를 충분하고 건강하게 거치면서 창립 예배를 위해 1년을 준비하였다. 영적인 기초가 교회의 건강과 장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였기에 영적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68) 명성훈, *교회개척의 원리와 전략*, 211-233.

피터 와그너는 창립 후 200명 출석 성도 이상을 목표로 교회를 개척한다면 적어도 50명 이상의 창립멤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50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창립하는 경우 그 이하의 멤버와 함께 시작하는 교회보다 3배 이상의 성공률을 가진다고 한다. 물론 이상적인 창립 멤버가 필요하겠지만 숫자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척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과 개척 비전에 대한 헌신과, 개척 멤버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도가 더욱 중요하다. 교회는 그 리더 이상으로 성숙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 멤버와 리더를 세우는 일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교회를 개척할 때 빨리 성장하고, 하드웨어도 제대로 준비하고 창립예배도 빨리 드리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른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한 기관이나 조직이 아니라 살아 있는 유기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생명인 것이다. 생명의 원리를 따라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질 때 예수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창립 예배를 드리기 전에 두 기둥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는, 예배 인도자와 찬양 사역 팀을 훈련하고 세우는 일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평신도 리더십(소그룹 인도자)을 세우는 일이다. 이 일에 1년을 투자하기로 하고 목회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예배 인도자, 찬양사역 팀은 기능훈련보다는 영성을 강조했다. 예배세미나, 찬양세미나, 팀 수련회를 열어 훈련하였고, 모델이 되는 예배에 직접 참여하게 하고 시카고 윌로우크릭 Art Conference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예배의 기둥을 세워갔다. 평신도 리더십(소그룹 인도자)은 일대일 제자훈련 지도자반(한 반에 약 12-15명)을 네 개의 반으로 편성해서 4-6개월에 걸친 양육을 통해 리더십을 세워나갔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양육과 관계훈련이 끝나기 전에는 조직을 만들거나 직분과 직책을 임명하고 세우는 일을 하지 않기로 개척자와 개척멤버가 동의하는 것이다. 비전과 목회철학이 하나가 되지 않고, 양육과 관계가 형성되기도 전에 조직을 만들고 직책을 부여하고 직분을 임명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나중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최대 비극 중의 하나는 교회와 목회자들끼리 진정한 협력과 파트너십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별히 이민 교회 상황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크게 축하해야 할 교회의 탄생이 잘못하면 교회 간의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교회를 창립하기 전에 적어도 그 지역의 기존 교회와 목회자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기존교회의 입장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교회를 개척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미리 알리고, 충분한 인사와 협의가 선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별히 창립 예배 때, 인근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를 초청하여 축복 속에 공식적으로 출발하는 것이 그 지역 전체의 교회의 이미지와 전도를 위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교회간의 협력과 연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엘바인 온누리교회를 시작할 때 이 부분을 많이 기도하면서 노력했고, 감사하게도 인근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협조해 주었다.

원래 계획한 개척일정대로 이미 2002년 11월 24일에 공식예배를 드렸지만, 모교회인 서울 온누리교회 담임인 하용조 목사와 장로들과 리더십이 참여한 가운데 외부 손님들을 초대해서 2003년 8월 17일에 계획한대로 가장 은혜롭게 창립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본장에서는 교회개척 전략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실제로 엘바인 온누리교회를 개척한 준비과정을 살펴보았다.

교회를 개척할 때 지역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배경을 잘 연구하면 더욱 효과적인 개척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조사와 함께 교회 개척을 위한 핵심그룹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엘바인 온누리교회의 개척을 위해서 일곱 가정의 모였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새로 시작될 교회의 비전과 목회철학을 나누었다. 그리고 개척 교회의 잉태와 발달 단계를 충분하게 거치면서 약 1년을 준비하여 창립예배를 드렸다.

엘바인 온누리교회는 모교회의 모델로 모교회의 지원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과 중보기도의 지원을 받았고 또한 모교회로부터 사역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세팅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제 5 장

얼바인 온누리교회 목회전략

모교회 모델을 실제로 개척현장에 적용할 때 모교회를 무리하게 그대로 따라하려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모교회가 그동안 성장해 온 성장단계가 있고 그 단계마다 핵심사역이 있기 마련이다. 모교회보다도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빨리 성장시키려는 유혹을 떨쳐내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해가야 한다. 또한 교회 개척할 때부터 교회 성장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사역 프로그램을 교회성장의 목표와 방향에 맞추어가야 한다.

목회전략에 따른 사역을 성장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진행시키되, 사역을 위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 사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온누리교회에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현대는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매우 다양하다.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다양한 신앙적인 요구와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다. 그 요구를 채움으로써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될 뿐 아니라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자신들이 위치한 신앙적 단계들을 살필 수 있게 된다.

제 1 절 교회성장의 목표와 방향 설정

얼바인 온누리교회는 서울 온누리교회를 모델로 개척한 교회이다. 모교회의 비전과 목회철학, 그리고 그 목회철학에 따른 양육체계와 사역 시스템을 적용하여 이민교회의 상황과 이 시대에 맞는 영향력 있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려는 꿈을 가지고 시

작한 교회이다. 모교회를 모델로 했지만 엘바인 온누리교회가 지향하는 교회는 단순히 모교회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교회,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가 비전이요 목표인 것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서울 온누리교회가 가진 비전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를 이 시대에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교회인 서울 온누리교회는 1985년 10월 6일 열 두 가정으로 개척하여 현재는 이미 대형교회로 성장해 있다. 현재 겉으로만 보이는 온누리교회를 관찰하고 분석한다면, 한 교회가 개척에서부터 어떻게 일관되게 비전과 목회철학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온누리교회 안에서 거의 20여년을 함께 한 본 연구자는 서울 온누리교회의 비전과 목회철학, 그리고 목회철학에 따른 양육체계와 사역 시스템, 온누리교회의 DNA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엘바인 온누리교회의 개척과정에 적용함으로써 모교회보다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 모교회개척의 sample이 되고자 하였다.

한 교회에 주신 모든 은사와 성장의 열매는 그 교회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한 교회만 잘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 한 교회의 성장은 모든 교회의 축복이 되고 다른 교회를 성장케 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어야 한다. 성장의 귀중한 원리는 적극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엘바인 온누리교회는 전교인을 삶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 사역자로 양육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모교회 모델을 적용한 엘바인 온누리 교회 개척경험을 통해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또한 미주와 전 세계의 연약한 교회들을 격려하며 돕기를 원한다. 인근 미주, 남미 그 외 손길이 닿을 수 있는 지역의 교회들과의 협력체계를 이루고 메트릭스 팀워크(Team Work)을 통해 인력과 자원을 공유하기를 원한다.

제 2 절 구체적 사역 프로그램

엘바인 온누리교회의 사역구조를 살펴보면 예배사역, 공동체, 새 가족, 양육, 차

세대, 영어예배, 청년 한국어 예배, 가정 사역, 목회지원, 선교, 여성사역, 기타사역들이 있다.

새 가족 사역으로는 새 가족기획팀, 새 가족 안내, 영접 팀, 새 가족반, 만남의 잔치사역이 있다. 예배사역으로는 세례, 성찬, 예배안내, 성가대와 챔버, 밴드, 여성 중창 등의 찬양사역과 주차, 꽃꽂이, 헌금계수 등의 예배지원 사역, 음향, 영상, 미디어 디자인 사역이 있다. 공동체 사역으로 공동체기획팀, 예비순장학교, 순장사관학교, 경조지원사역이 있다. 차세대사역으로는 주일학교(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중등부, 고등부), 영어사역, 청년 한국인사역 등이 있다. 양육사역으로는 QT, 일대일, 사역자스쿨, 내적치유, 중보기도, 성경대학 등이 있다. 가정 사역으로는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등이 있다. 여성사역으로는 여성사역 기획팀, 여성 큐티 나눔방, 중보기도, 수요여성예배, 여성리더십 훈련학교, 문화사역, 여성싱글사역, 어머니학교, 만나(식당사역), 행사 팀 등이 있다. 선교사역으로는 선교 기획, 공동체선교, 협력선교(선교지원), 체육을 통한 남성문화사역, 선교여행(Out-Reach), 의료선교 등이 있다. 기타사역으로 영접팀(Loving Hand), 모세대학, 병원사역(호스피스), 금홀사역, 의료실 사역, 전도사역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목회지원 사역으로는 전산, Home Page 사역, 재정, 시설보수, 관리, 건축, 사무행정봉사 등이 있다.

1. 전도 및 새 가족 사역

교회는 왜 개척되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도와 영혼구원을 위한 것이다. 교회가 얼마나 빨리 성장했느냐가 초점이 되면 안 된다. 교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회심한 사람의 숫자, 세례 받은 사람의 숫자, 변화되고 간증 있는 성도의 숫자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성장이다. 전도는 개척자, 개척멤버의 우선순위일 뿐 아니라 담임목회자는 항상 전도대상자,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명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도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도는 단순히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반드시 교회로 인도해야 하고, 공동체에 소속되게 해야 한다. 전도를 통해서 처음 교회에 인도된 사람들이나 새 신자들이 빨리 공동체에 자리 잡고 소속감과 주인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 반드시 새 가족 사역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새 가족 사역은 교회에 대한 소개 및 환영과 영접, 친밀한 교제권의 형성 뿐 만 아니라 교회의 비전과 목회철학, 양육체계와 사역체계, 기본 경건훈련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가. 전도학교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전도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이다. 수평이동을 되도록 지양하고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성도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다.

전도는 처음부터 강조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전도에 대한 강조와 함께 구체적으로 전도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시스템과 교인들의 사고구조가 새 가족, 비신자에 대해 열려 있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교인들도 새 신자를 교회에 데리고 오면 새 신자가 좋아하고 정착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을 때 전도의 영성은 계속될 수 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도 전도에 은사가 있고 열정이 있는 전도사를 팀장으로 전도학교를 운영하였다. 전도학교는 전도 동기부여와 함께 잃어버린 자를 성도가 찾아내도록 도우며 전도 실습을 통해 복음제시에 자신을 갖고 전도하도록 돕는 훈련이다. 연 2회로 운영하였고 8주 과정을 거치는데 그 교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⁶⁹⁾

첫째, 죄인들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둘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명확하게 나누는 훈련. 셋째, 전도자의 영적인 자격 - 클래스 실습: 복음 정리-연습. 넷째, 전도의 본-클래스 연습: 복음 정리-연습. 다섯째, 전도 대상자를 찾는 법-영적인 대화 시작하는 법. 여섯째, 전도 실습 1: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찾아 접촉하는 법(개인별). 일곱째, 전도 방법-전도 실습 2: 방문, 그룹별 노방전도. 여덟째, 개인전도-전도 실습 3: 토요일 단체 노방전도. 아홉째, 전도는 생명의 힘이다-간증 및 평가회.

전도학교의 소득은 전도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있지만, 1차적인 유익은 바로 전도학교에서 훈련받은 기존 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기존 교인들을 각성케 하고 도전을 주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전도훈련과 함께 예배의 형식도 새신자나 비신자를 배려하고

69) "얼바인 온누리교회 전도학교" *얼바인 온누리*, 2006년 여름호, 19.

그들이 거부감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세심하게 기획되고, 설교에서도 분명한 복음제시가 있어야 한다.

얼바인 온누리교회는 기존 신자를 위한 예배와 새신자를 세심하게 배려한 (Seeker Sensative) 예배를 구분하여 드리고 있다. 교회 전체가 전도의 마인드와 참여를 위해 맞춤전도를 실시해서 전도의 중요성과 전도의 열정을 교회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맞춤 전도집회를 열기 위해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⁷⁰⁾

1단계는 대상 세분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대상을 세분화해서 전도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들의 문화와 필요를 발견하고, 또 프로그램 선정에서 메시지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계이다.

2단계는 필요와 접촉점 분석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도 대상자들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설문지 조사와 인터뷰 조사 기법을 이용한다. 접촉점을 발견하려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가?”, “교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이 유용하다.

3단계는 홍보와 초청 단계이다. 홍보는 전도 대상자를 동원하기 위해 성도를 타깃으로 하는 홍보와, 전도 대상자를 타깃으로 하는 홍보로 나뉜다. 홍보를 위해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증보기도 모임을 결성한다. 전도 대상자를 타깃으로 하는 홍보를 할 때는 종교적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콘서트 등과 같이 부담 없이 교회를 찾을 수 있는 아이템을 사용한다.

4단계는 행사 기획과 실행 단계이다. 맞춤전도는 흥미 있고 동시에 의미 있으며, 결단하게 하는 메시지가 각 3분의 1씩의 비율로 배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맞춤전도는 식사와 공연(퍼포먼스), 메시지와 결신의 시간으로 구성된다.

5단계는 사후 양육 단계이다. 맞춤 전도 이후 전도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양육하고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기 위한 단계이다.

나. 새 가족 사역

새 가족 사역은 온누리반 7주 과정을 통해 새 가족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하며 교

70) 하용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서울: 두란노, 2007), 284-286.

회와 공동체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늘 부딪히는 유혹과 갈등은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고, 오는 사람들을 모두 붙들어 놓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나 올 수는 있지만 교회의 등록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새 가족반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한다. 교인들이 강한 헌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시간은 그들이 등록 교인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강조하고 가르쳐야 한다. 릭 워렌은 그의 저서에서 만일 교인이 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거의 없다면 그 후 교인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새 가족반은 교회의 멤버가 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하다.⁷¹⁾

새 가족반은 처음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 전화심방을 통해 교회 정착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온누리반 7주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권면한다. 이민교회에는 대부분 새 가족 등록과정이라는 것이 없다. 새 가족이 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7주씩이나 등록과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7주 과정은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 되기 위해서 수료해야만 하는 필수 과정이다. 새 가족이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영성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방문한 새 신자들에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교회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 과정은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온누리교회다운 비전과 영성에 대한 잘 준비된 가르침이 있어야만 한다.

새 가족 7주과정은 매주 한 강의를 들어야만 수료가 되는데 첫째 주는 창조주 하나님, 둘째 주는 구원자 예수님, 셋째 주는 보혜사 성령님, 넷째 주는 Q.T, 다섯째 주는 공동체와 양육체계, 여섯째 주는 사역과 선교, 마지막 일곱째 주는 온누리 비전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첫째 주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전화심방을 통해 정보를 나누면서 2주차과정에 참석하게 되면 그 주에 순에 연결시킨다. 7주과정이 끝나면 등록과 동시에 일대일 양육에 연결시킨다.

새 가족반 사역자들은 교회에 찾아오는 새 신자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71) Warren, *새들백교회이야기*, 354.

다. 그러므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뜨거운 성도들을 선별하여 훈련시킨 후에 사역을 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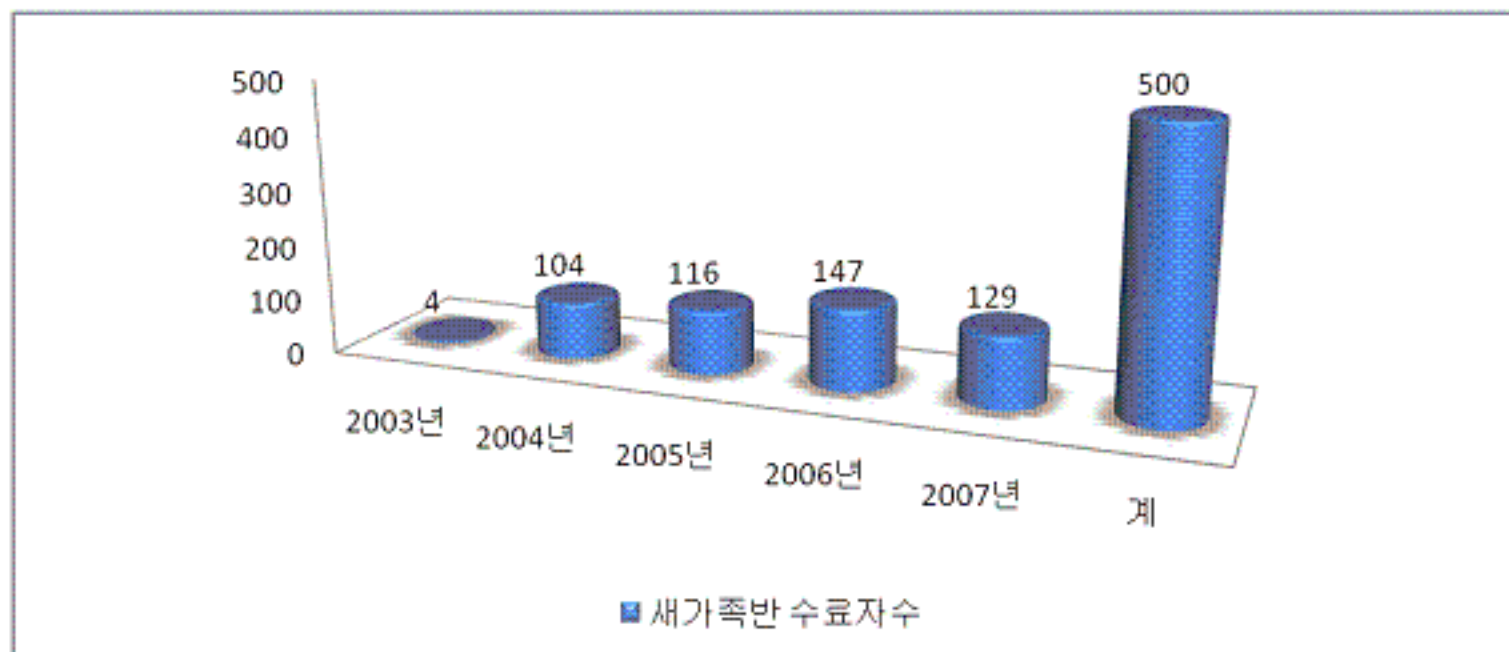
온누리 7주 과정을 수료한 성도들을 초청해서 목회자와 순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회의 한 가족 됨을 축하하는 새 가족 만남의 잔치를 가지게 된다.

<표 2> 새 가족반 통계

	새 가족반 수료자수	비고
2003년	4	12월 시작
2004년	104	
2005년	116	
2006년	147	
2007년	129	7월 1일 현재
계	500	

2007년 7월 기준으로 새 가족반을 수료한 등록교인은 500명인데 출석교인은 이미 800명 이상이 참석하고 있다. 특히 수평이동이 많고, 다양한 교회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새롭게 모이는 이민교회의 독특한 상황에서 개척에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첫 단계인 새 가족반 과정이 필수과정일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새 가족반 수료자 수



2. 예배와 찬양 사역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심장에서부터 온 몸에 생명이 흘러

가듯이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난다. 예배 없이 사역만 한다면 탈진하게 된다. 또한 예배만 있고 사역이 없다면 그것은 운동하지 않고 공급만 받는 몸과 같다.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사역을 통해 생명을 흘려보낼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살아 있는 예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예배, 살아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향기 나는 제물이 있는 예배, 찬양이 있는 예배,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핵심가치도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며, 모든 성도들의 최우선순위도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와 교회 개척멤버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척단계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의 하나는 예배를 세팅하는 것이다. 이민사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목말라 있다. 조국에서는 하나님을 몰랐다가 이민 와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이민사회에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다. 영적인 측면에서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면 성도들도 행복하고 교회도 부흥하게 된다.

개척단계에서는 목사와 개척멤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주보 만드는 일부터, 안내, 주차장 봉사, 새 신자 관리, 훈련 프로그램 운영, 회의 특히 주방봉사, 심지어 음향과 조명까지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다 보면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일이 되기 쉽고 예배의 참여자로서 살아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이 되어 버린다. 오직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성가대도 세우지 않았다. 그리고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1부, 2부 예배를 나누어서 드렸다. 1부 예배는 개척멤버들, 봉사자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주일 봉사를 하도록 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망과 기도가 모여 찬양인도자, 연주자가 모이게 되었고, 첫 헌금도 예배에 필요한 악기와 음향을 준비하는데 사용하라고 들어왔다.

예배드릴 때 찬양 인도자, 성가대, 챔버, 밴드가 찬양을 하면서 그들이 먼저 감격이 있고 찬양에 깊이 빠져들 때 회중 전체를 찬양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 이런 찬양을 위해서 찬양 팀이나 연주 팀이 모일 때마다 먼저 기도예 많은 시간을 드리며 연습하는 자체가 곧 찬양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경배와 찬양을 경험하기 위해서 서울 은누리교회 찬양 팀이 엘바인까지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엘바인

찬양 팀을 좋은 찬양으로 알려진 다른 교회로 보내서 예배를 경험하게도 하였다. 찬양 팀의 영적 지도를 위해서 담당목회자를 두고 예배학교와 찬양 인도자학교, 성가대 수련회 등을 통하여 이들을 먼저 예배자로 세우는데 개척 준비 단계부터 우선순위를 두었다. 예배가 교회의 심장이라면 찬양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개신교 전통에서는 설교가 예배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설교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예배에서는 설교자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도 설교를 듣는 청중이기 이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찬양은 단지 예배순서 중의 하나가 아니라 예배 전체가 찬양이요 경배이어야 한다. '준비찬양'이라는 말만큼 잘못된 인식은 없다. 찬양하는 순간 이미 예배 가운데 들어간 것이다. 찬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음악을 사용하느냐, 어떤 악기를 사용하느냐, 어떻게 순서를 진행하느냐는 그 본질이 아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얼바인 온누리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위하여 몇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 첫째는 강해설교를 하고, 둘째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매월 첫 주에는 성만찬을 하고 마지막 주에는 세례식을 실시한다. 셋째는 설교자 역시 동일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설교자 좌석을 회중 좌석으로 내린다. 넷째는 헌금시간에 헌금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조용히 헌금할 수 있도록 헌금함을 예배당 입구에 배치한다. 다섯째는 예배를 위한 증보기도팀을 운영하는 것이다.

얼바인 온누리교회는 주 중 매일 새벽예배와 수요 오전 여성예배, 수요 저녁예배, 주일 두 번의 성인예배가 있고, 주일학교예배와 중고등부 예배, 한국어 청년예배, 영어 청년예배가 있다.

얼바인 지역 특성상 매일 새벽예배와 주중예배가 어렵다고들 했지만 살아 있는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예배자는 오게 된다는 믿음으로 시작하니까 새벽예배와 주중 수요오전, 저녁예배가 부흥하게 되고, 그 여파로 오히려 주변 교회들의 새벽기도와 주중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효과도 있었다.

3. 큐티의 생활화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큐티와 일대일 양육을 들 수 있다. 큐티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건 훈련이다.

목회자는 설교와 성경공부, 제자훈련을 통해서도 성도를 양육하고 성숙하게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영적지도자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도들이 스스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양식을 먹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눌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것이 큐티사역의 목적이다. 성경 본문을 스스로 정해서 말씀 묵상을 할 수도 있지만 초보자들과 큐티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큐티훈련과 큐티교재를 정해주는 것이 좋다.

큐티사역의 목적은 얼마인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큐티를 통해서 각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큐티로 성숙해진 성도들이 나눔방과 변화된 삶을 통해 교회와 사회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역자로서 서게 하는 것이다. 영성훈련과 경건훈련은 프로그램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목회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영적 지도를 해 나가야 한다.

얼마인 온누리교회도 이러한 목회철학에 따라서 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하는 *생명의 삶*을 본문으로 새벽예배를 드린다. 매일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루를 말씀에 인도되어 사는 삶, 큐티 생활은 온누리교회의 기본 영성이다. 새벽기도회에서 그 날의 말씀을 목사님과 함께 묵상하고, 매주 순 모임에서는 한 주간의 큐티를 순식구들과 함께 나눈다.

그리고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큐티를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훈련한다. 먼저 큐티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큐티 세미나를 통해 큐티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큐티를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와 함께 진행되는 세미나는 2003년 10월 8명을 1기로 졸업시킨 이후 2005년 11월 15기까지 약 150명이 이 과정을 수료했다.⁷²⁾

큐티세미나는 총 4주 과정으로 나, 가정, 교회, 이웃의 주제로 진행되는데 큐티세미나를 마치면 원하는 사람에 한 해서 큐티 나눔방에 들어갈 수 있다.

72) "QT로 여는 하루," *얼마인 온누리*, 1995년 창간호, 23.

큐티 나눔방에서는 각자 한 주간의 Q.T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들,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된다. 자신의 것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Q.T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패와 좌절한 경험들을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는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나눔방 식구들은 한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된다.

큐티 나눔방은 처음에는 남자방 1개, 여자방 1개로 시작되었지만 2005년 11월 현재 2개의 남자 큐티 나눔방과 요일별로 진행되는 8개의 여자 큐티 나눔방이 진행되고 있다.⁷³⁾

교회에서는 큐티의 정착을 위해서 해마다 한 번씩 강사를 초청하여 큐티축제를 하고 있으며, 4주과정의 큐티스쿨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큐티의 교회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큐티 예배, 큐티 세미나와 수료식, 큐티 간증을 예배 시간에 나누게 하고, 큐티 노트를 교회주보나 회지를 통해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양육-일대일 제자훈련을 통한 제자화와 제자삼기

일대일은 양육자(일대일을 지도하는 사람)와 동반자(일대일을 배우는 사람)가 일대일로 만나서 일대일양육 교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성도의 관계를 맺어가는 제자훈련 과정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교회의 제자도, 성도들의 제자화의 기본과정이며 핵심과정이다. 교회를 통한 양육은 일반적으로 회중양육, 소그룹양육, 일대일양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군중에게 천국복음을 선포하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열두제자를 소그룹으로 따로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열두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함께 때로는 따로 양육하셨다.

회중양육은 보통 강해설교, 말씀사경회, 새벽기도, 전교인 수련회 등으로 이루어진다. 소그룹양육은 구역이나 셀, 목장, 가정교회, 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일대일양육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또는 한 사람이 두 세 사람을 양육하는 방식이다. 이러

73) "QT로 여는 하루," 23.

한 회중양육, 소그룹양육, 일대일양육이 교회 안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가 양적으로 커지면서도 교인들에게는 깊이 있게 다가가며 구체적인 영적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 양육에서 이 세 가지 형태의 양육을 꼭 갖추어야 한다. 소그룹양육과 일대일양육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 교회도 성장하고 성도들도 함께 성장하며 참된 성도의 교제를 맛볼 수 있다.

일대일 제자훈련의 강점은 한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구체적으로 돌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잘못하면 율법적이고 프로그램만으로 진행되기 쉬운 교회의 제자훈련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삶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 양육자와 동반자가 함께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일대일 제자훈련의 또 하나의 강점은 양육자와 동반자간의 구체적인 멘토링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백과사전에 나온 멘토링의 정의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구성원을 일대일로 전담해 지도조언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멘토, 조언을 맡은 사람을 멘티라고 한다. 멘토라는 말의 어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되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로 출정하며 아들 텔레마코스를 절친한 친구인 멘토에게 맡겼다. 그는 오디세우스가 돌아올 때까지 텔레마코스의 친구, 선생, 조언자,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잘 돌보아주었다. 그 후로 멘토는 지혜와 신뢰로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라는 의미를 뜻하게 되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총 16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재를 보면 처음 4주 동안은 예수님과 만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배우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다루게 된다. 그 후 큐티와 더불어 실제적인 양육을 위한 성경 공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각 주제는 다음과 같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한 삶, 시험을 이기는 삶, 순종하는 삶, 사역하는 삶이다.⁷⁴⁾ 이 모든 과정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신앙의 기초와 체계를 잡아주어 균형 잡히고 성경적인 신앙 성장을 도와줄 수 있다.

일대일은 먼저 동반자과정에서는 평신도에게 일대일로 배우고 그 후에는 교역자에게 똑같은 교재로 양육자과정을 배우게 된다. 양육자는 반드시 담임목회자가 직접

74) 두란노 편집부,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 (서울: 두란노, 2001), 4.

양육해야 한다. 양육을 잘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잘 양육하게 되어있다. 반대로 양육을 허술하게 받으면 본받을 모델이 없고 배운 것이 없으므로 결국 다른 사람을 허술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 일대일 양육자과정은 본인이 동반자과정을 마친 후에 양육자가 되어 동반자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양육자과정까지 모두 마친 후에는 자신이 양육자가 되어 다른 동반자를 양육할 수 있게 된다. 진정한 제자훈련은 양육자가 되어 동반자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 동반자 과정동안은 별 생각 없이 교회 양육과정이니까, 또 모든 등록교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과정이라는 생각으로 훈련을 받는다. 물론 동반자과정 중에도 양육자와 일대일의 만남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열정이 회복되며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양육자가 되면서 비로소 목자의 심정도 알게 되고 평신도로서 한 성도의 영혼을 담당하고 영적지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육자가 되면서 겸손해지고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은 준비를 하게 된다. 또한 일대일 제자양육은 일대일의 만남이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거나 숨기기가 어렵다. 자신의 신앙과 인격, 삶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신앙 성숙에 큰 도움이 된다.

평신도가 평신도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는 분명히 문제들이 발생한다. 때때로 양육자가 더 먼저 일대일 제자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보다 더 성숙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을 동반자로 양육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신앙고백과 확신 속에서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것 뿐 아니라 삶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교회가 일대일 제자양육 사역 팀을 통해서 양육자와 동반자의 만남을 항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를 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발생되기 쉬운 어려움과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의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과정이지만, 그들을 평신도 사역자로 준비시키고 세우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다. 평신도가 자신의 은사와 열정과 개성에 따라 양육과정을 통해 성장하면서 사역하게 하는 것이 제자훈련의 핵심목표이다(엡 4:11-12). 평신도를 깨워서 사역하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특징 중의 하나이며, 만민제사장직을 선포한 종교개혁의 진정한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성숙한 평신도들이 자신의 은사와 열정에 따라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가 건강한 교회이며,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어려움도 없지 않았다. 준비된 양육자가 없었기 때문에 3기까지는 동반자 과정을 생략한 채 교역자에게 양육자 과정부터 훈련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동반자 과정을 생략했던 양육자들은 곧바로 동반자를 섬기는 일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005년 8월 현재 통계에 의하면 동반자 과정을 통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90퍼센트 넘게 제자양육의 재생산에 참여하고 있다.⁷⁵⁾

2004년 3월에 제 1기를 시작하여서 2007년 현재 총 346명이 10기에 걸쳐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았고 11기가 진행 중이다. 346명 중에서 다시 양육자가 되어 일대일 제자양육을 지도한 사람들은 98명에 이른다. 346명 중에서 열바인 온누리교회에 완전히 정착한 사람들은 총 335명에 이른다. 이 통계를 보면 온누리교회에 와서 일대일 양육을 받은 사람들의 약 96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정착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대일 제자 양육과정은 교회의 일꾼과 리더를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고 일대일 양육과정을 수료한 대부분이 현재 교회의 핵심 리더로 봉사하고 있다.

5. 차세대와 EM(English Ministry) 사역

한국에 있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이민사회 특히 열바인 지역은 강남의 8학군이라고 할 만큼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 교육이민이 유난히 많은 열바인 지역이기에 처음 온누리교회를 열바인 지역에 세우기 위해서 먼저 열바인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던 목회자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열바인 지역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개척할 때 교육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권면을 들었다. 한국사회와 이민사회에서 자녀교육의 중요성과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중요성은 단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상과 생각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의 현장은 예산이나 시설, 차세대 사역전문가에 대한 투자와 육성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개척 단계에서는 차세대 교육 문제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열바인 지역 특성상 한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2세와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구사하는 1세와 1.5세 자녀들, 그리고 아직 영어 사용이 어려운 이제 막 이민 왔거나 교육

75)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일대일 훈련," *열바인 온누리*, 2005년 창간호, 22.

때문에 기러기가족으로 온 자녀들이 함께 혼재한 상황에서 차세대 사역자나 교사를 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을 위해 제일 먼저 한 일은 차세대 사역자를 찾는 일이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 준비된 동역자를 찾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개척멤버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 결과 시설이나 재정이 부족한 개척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다. 차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면서 차세대 교육에 관심이 있고 준비된 교사들도 하나 둘씩 모여서 좋은 팀을 만들 수 있었다.

차세대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그 대표적인 교회로 애틀랜타의 North Point 교회를 들 수 있다. 앤디 스탠리 목사가 개척한 이 교회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교회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차세대목회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이 교회가 시작할 때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차세대 신앙교육이었다.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교회 개척 팀을 구성할 교육전문가, 찬양인도자를 먼저 찾은 후에 교회를 시작했다. 그 결과 주일학교 사역을 배우고 다음세대의 교회교육의 방향을 알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추천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

교회 개척단계에서 예배 인도자와 교회 교육 전문가가 먼저 준비되고 팀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또한 담임목회자가 차세대 교육담당자와 교회 리더십과의 의사소통과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계속해서 서로 노력해야 할 일이고 담임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몫이다.

얼바인 온누리교회의 차세대 사역은 탁아부, 영아부, 유년 초등부(Joy Zone), 중고등부(Deep End), 한글학교, 청년 Korean Ministry(느헤미야 공동체), 청년 English Ministry(Harvest Ministry)로 나눈다.

유년 초등부 사역은 자라는 유년, 초등부 아이들이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안전하고 즐거운 사랑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예배와 성경공부를 통해서 영적 성장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안에서 바른 삶을 사는 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만들어진 존재임을 배워나간다.

중고등부 사역의 목적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모든 삶에서 주님을 닮

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대사로 키우는데 있다.

English Ministry의 사역 목표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심고, 가꾸고, 거두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 살지만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한국어 청년부를 만들었는데 청년 느헤미야 공동체의 비전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이 땅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한글학교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1시간 정도 진행된다.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는 또 하나의 외국어일 수 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을 등한시 하면 어느새 한국어를 할 수 없는 한국 아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한글 교육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본교육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대학이나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 성도들을 교사로 삼아서 개인의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 사는 2세 자녀들은 영어를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잘 훈련시키고 세계를 향한 비전을 심어주면 이들이 언어적인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선교지가 매우 많다. 교회에서는 매 해마다 멕시코나 남미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가는데 이 때 Youth Group도 같이 가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민목회를 하는 1세 목회자로서의 가장 큰 한계는 바로 차세대 신앙교육문제였다. 차세대목회자와의 의사소통과 비전공유, 차세대목회의 방향제시, 차세대목회의 평가 및 대안제시를 해야 할 담임목회자로서 많은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1.5세, 2세, 차세대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보완하고 겸손하게 배우면서 관심과 열정을 쏟아야 할 분야이다.

6. 공동체

얼바인 온누리교회의 가장 핵심단위는 순이다. 순은 일반적으로 구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단위와 같은 의미이다. 온누리교회는 순이 모여서 한 다락방을 이루고 다락방이 모여서 공동체가 된다. 각 순에는 순장이 있고 다락방에는 다락방장이 있어서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을 한다.

가. 순

순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이다. 순의 성경적 의미는 첫째, 성경에 나타나는 순(筭)은 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둘째, 성경의 순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스 3:8; 렘 23:5). 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모임으로 온누리교회가 가진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의 꿈을 이루는 기초단위이다. 순에서는 영적인 생산과 재생산의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말씀과 삶이 구체적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인 영적 도움이 주어진다. 또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도록 권면하고, 큐티를 생활화하도록 도전을 주기 때문에 순은 큐티와 일대일 제자양육이 활성화되고 뿌리내리는 터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순은 단순히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온누리교회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가정 단위의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는 순모임으로 시작되었다. 담임목회자가 순장이 되고 개척팀이 순원이 되어서 일곱 가정이 일주일에 두 번씩 수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개척을 준비하였다. 이 모임을 통해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과 목회철학을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이들이 보고 모임에서 보고 배운 대로 순장이 되어 순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었다.

서울 온누리교회도 1984년 열두 가정으로 시작하여서 1년 동안 준비한 후에 1985년 10월 6일 첫 창립예배를 드렸다. 얼바인 온누리교회도 모교회 처럼 1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6개월 동안은 일곱 가정을 중심으로 순모임 또는 가정교회를 한 후에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처음 계획과는 달리 3개월을 준비한 후에 공식예배를 드리면서 얼바인 온누리교회가 출발하게 되었지만, 지금도 6개월 이상은 핵심멤버를 훈련하며 순모임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민교회의 특성상 매주 순모임을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민교회들은 격주로 모이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순이 곧 교회이고 가장 중요한 교회조직이기 때문에 매주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것이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격주로 모이는 순이 없지는 않았지만 격주보다는 매주 모이는 것이 더 좋다는 영적경험을 하게 함으로 스스로 제한한 이민교회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했다.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현상 중의 하나가 여자 중심의 순모임이 많다는 것이고 대부분 순들도 여성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성들의 은사와 재능 리더십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남성순장이 없고, 남자들이 순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전형적인 한국교회의 순모임(이것은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이다)의 개념은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 온누리교회도 1985년 시작부터 적극적으로 남자 순장중심, 부부가 함께 모이는 순을 강조해서 현재도 90퍼센트 이상이 남자가 순장이며 부부중심으로 모이고 있다. 중요한 원칙은 어렵더라도 처음부터 강조되고 지켜져야 한다. 엘바인 온누리교회도 여성리더십이 훨씬 잘 준비되어 있었지만 처음부터 남자 중심의 순, 부부중심의 순을 강조하고 그렇게 세워갔다. 물론 남편이 아직 비신자인 경우거나 남편과 사별한 경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 경우, 그리고 기러기 가족으로 남편과 떨어져 있는 경우를 위해서 여성순장을 세우고 여성들만의 순을 만들었다. 또한 부부가 다 교회에 다니지만 도저히 부부 순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하는 일도 반드시 해야만 한다.

순을 구성할 때, 순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참여하며, 여자 성도들만 모이는 순도 있는데 순장의 인도로 매 주 한 번씩 순장이나 순원의 가정에서 모인다. 그리고 순마다 순장과 예비순장이 순을 섬기고 있다.

순장은 일대일 과정을 이수하고 순장학교를 수료한 사람 가운데서 교회가 임명한다. 단 교회 상황에 따라서 현재 순장학교를 이수하면서 안수집사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도 임명할 수 있다. 순장은 순 모임 시 순 예배와 성경공부를 인도하며 순원을 섬기고 관리한다.

순장모임은 순모임으로 모이기 전에 담임 목회자가 직접 인도한다. 순장모임에서는 순장의 영성을 지도하고 격려하며 순장이 순 예배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순모임 교재를 미리 성경공부하고, 모든 순이 교회의 비전과 목회철학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비순장은 순모임에 6개월 이상 참석하고 일대일 양육자반을 수료한 세례교인 중에서 순장의 추천을 통하여 교회에서 임명한다. 예비순장은 예비순장학교에 입학하

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예비순장은 순장의 부재 시에 순장을 대리하여 순을 섬긴다.

순을 개편하거나 분순할 때, 순 개편은 연초 혹은 연말 등 적절한 시기에 기존 순원을 섞어서 새롭게 순을 구성하게 된다. 순원이 5가정이 넘을 경우 분순하고, 분순을 위해 예비순장을 선정하여 예비순장학교를 이수하도록 권면한다. 또한 분순의 방법은 다락방장과 교역자와 상의한다.

순이 조직적으로 잘 연결되어지고 활성화되어서 살아 움직일 때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성도들은 소속감을 느끼고 깊은 교제권을 형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순 예배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찬양과 기도

대표 기도

말씀 나눔

결단 기도 및 헌금

주기도문

나. 다락방

다락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사랑의 현장이며, 한 성령 안에서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이다. 일반적으로 5~8개의 순이 모여서 다락방을 이룬다. 또한 같은 목적을 가진 특수 순이 모여서 특수 다락방, 혹은 사역 다락방을 이룰 수도 있다.

다락방장은 공동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다락방이 주관하는 행사, 교회봉사 및 금홀사역 현장에서의 봉사를 주관한다. 교회 홈페이지에 적극 참여하여 다락방식구들과 대화하고 중보기도를 한다.

그리고 다락방에 소속되어 있는 순장이하 모든 순원을 돌보는 책임이 있고 매주 순모임에 순회 참석하여 순원들을 격려하고 교제하며 교회 및 다락방의 소식을 전달한다. 정기적으로 소속 다락방 순장모임을 주관하고, 소속 다락방 순원들의 경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위로하고 축하한다. 또한 다락방장은 교역자의 새 가족 순 배정을 돕고, 순의 현황을 파악하여 5가정이 넘는 순의 순장과 의논하여 교역자에게 분순

을 요청한다. 그리고 교역자가 소속다락방을 심방할 때 동행하기도 한다.

2006년 현재 엘바인 온누리교회 공동체는 모두 8개 다락방(희락-6순, 충성-6순, 양선-5순, 사랑-6순, 화평-4순, 온유-6순, 소망-6순, 믿음-7순)과 46개의 순과 순장이 있다.⁷⁶⁾ 각 다락방에는 또한 담당 장로를 임명하여 다락방장 및 순장을 격려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

다. 순장사관학교

순장사관학교는 다락방장, 순장, 예비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들을 훈련하여 자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성경적 순장으로 세워가는 학교이다. 순장사관학교는 교회의 작은 교회인 순이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리더십을 세우는 교육 과정이다.

온누리교회에서 순은 교회의 중추라고 할 수 있고 순장은 평신도 사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요 21:15), “내 양을 치라”(요 21:16)고 하셨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이 자신의 양떼들을 돌보듯이 성도를 먹이고 치는 목양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순장은 목양을 감당할 수 있는 소목자로서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한다. 교회의 건강은 순의 건강이고 순의 건강이 순장에게 달려 있는 만큼, 순장을 세우고 순장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순장훈련은 목회의 핵이라고 할 수 있다.

순장을 세운 후에도 순장교육은 계속 되어야 한다. 순장사관학교는 일정한 훈련기간이 있지만 순장교육은 평생교육이 되어야 한다. 담임목회자는 순장교육을 교회사역의 최우선순위로 세울 만큼 먼저 헌신해야 한다. 매주 담임목회자가 순장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주간의 순모임 성경공부를 교육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비전을 나누고 교회의 일치와 공동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엘바인 온누리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예배 후 9시 30분부터 한 시간씩 순장모임을 가지고 있다. 순장교육을 매주 진행할 뿐 아니라 1년에 두 차례씩 1박 2일 순장수련회를 가진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순장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훈련, 상담훈련, 대화학교, 내적치유, 소그룹 인도법, 큐티훈련 등을 함으로써 순장들의 영적 성장과 순장으로

76) “2006년 엘바인 온누리교회 공동체,” *엘바인 온누리*, 2006년 신년호, 32.

필요한 신앙훈련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순장사관학교는 크게 순장들과 예비순장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순에서 영적인 생산과 재생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말씀과 삶이 지속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본을 보이고 섬기는 리더십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기존의 순장들에게는 열정과 사명감을 재확인하는 재교육 과정이 되고, 예비순장들에게는 순장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확인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며 순장으로서 필요한 영성과 자질을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개발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12주로 운영되는 이 순장사관학교를 수료한 후에는 각 공동체 순의 리더십으로 세워진다.

순장사관학교의 지원 자격은 일대일 동반자반 과정을 수료했거나 수료 예정인 경우와 공동체 교역자로부터 순장 후보로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

순장사관학교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주차-Acts29 비전과 순장, 2주차-순장의 영적 리더십, 3주차-큐티의 영성, 4주차-찬양의 영성, 5주차-치유 상담, 6주차-소그룹 인도의 실제, 7주차-1박 2일 수련회, 8주차-영적 전쟁과 증보기도, 9주차-기독교 변증학, 10주차-이단의 실제, 11주차-장례 사역, 병원 사역, 12주차-선배 순장들과의 Talk Show 및 수료식 순이다.

그 외 개설과목으로 순장성경읽기의 맥 잡기, 성서 지리학, 비교종교학, 국내 아웃리치, 순장과 아내의 역할, 성경난해풀이, 전도폭발, 은사배치, 창조과학, 성령론 등이 있다.

7. 가정 사역

최근 개신교 내에서는 가정사역이 목회의 중요한 한 분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삶이 중요할 뿐 아니라, 특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제도 안에서 기독교적 윤리와 사랑의 실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우리는 요즘 주위에 이혼하는 가정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연장되고 있지만 교회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목회현장의 크나큰 현실로 등장하고 있는 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보다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정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며 이 가정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성경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경건

한 자손을 배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강조해야하기 때문에 개척 단계부터 가정 사역을 강조하였다.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는 이러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위기를 해결하고 바른 대안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들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 아버지 학교

아버지학교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바로 가정의 문제이며, 가정의 문제는 바로 아버지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성경적인 아버지상을 회복하기 위한 사역이다. 실추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잘못 행사되고 있는 아버지의 권위를 바로 잡으며, 성경적인 아버지가 되고자 결단하게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리자로 가정에 세워주신 지도자이며, 제사장이며, 목자임을 가르쳐서,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회복시키고, 아버지의 구체적 사명과 역할에 대하여 가르침으로써, 성경적 가정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진정한 아버지의 권위는 섬김을 통한 지도력과 사랑 그리고 성결을 바탕으로 한 책임감에 의하여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세상적인 방법에서 떠나도록 한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정적 영향력을 단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자녀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아버지가 되도록 한다.

1995년 10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아버지학교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구호 아래 2008년 현재 5대양 6대주, 36개국 200개가 넘는 도시에서 약 14만여명의 아버지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변화되었다.

미국에서는 2000년 4월에 처음 시작되어서 2007년 상반기 현재 207회에 걸쳐서 10000여명의 아버지들이 수료하였다. 미주지역은 시작 때부터 5주간에 걸쳐 아버지학교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특히 아버지학교를 먼저 수료한 사람들이 봉사자로 다시 섬기는 한국과는 달리 때로는 봉사자들이 시애틀에서부터 뉴욕으로, L.A에서부터 토론토로 자비량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5주간이 아닌 2주간에 걸쳐서 토요일, 주일에 개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버지학교는 남성회복운동이며 가정회복운동이기도 하지만 또한 목회자와 평신

도의 연합운동, 교회를 연합하고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운동으로, 교회의 남성 리더십을 세우는 데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본 연구자는 엘바인 온누리교회를 개척하면서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지역 지도 목사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바인 온누리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학교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고, 2008년 현재 100여명의 아버지들이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후에 타 지역에까지 가서 자비량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

아버지학교는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⁷⁾

첫 번째 만남의 주제는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아버지의 역할로 결속하기, 사랑하기, 인도하기, 파송하기의 4대 기능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가계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끊고 좋은 영향력은 계속 유지하고 계승시키도록 격려한다. 그리고 숙제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편지쓰기,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및 허깅하기 등이다.

두 번째 만남의 주제는 아버지의 남성으로 한국의 남성 문화를 소개한 후 이러한 남성 문화 속에서 아버지의 남성성이 파괴되어 갔고,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성결 운동을 일으켜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숙제는 아내에게 편지 쓰기,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쓰기, 축복기도 및 허깅하기 등이다.

세 번째 만남의 주제는 아버지의 사명으로 이는 자녀의 삶의 원천, 자녀의 삶의 지표, 자녀의 자부심, 자녀의 미래의 보장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숙제는 자녀에게 편지 쓰기, 자녀가 사랑스런 20가지 이유 쓰기, 아내와 데이트하기, 축복기도 및 허깅하기 등이다.

네 번째 만남의 주제는 아버지의 영성으로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 주신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가정에서 축복권, 말씀권, 훈육권, 신앙 전수권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녀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숙제는 수료 소감문 써오기, 자녀와 데이트하기, 축복기도 및 허깅하기 등이다.

다섯 번째 만남의 주제는 아버지와 가정으로 아버지학교를 수료하는 아버지들을

77)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사역지침서* (서울: 두란노, 2008), 11-19.

격려하고, 온 가족과 먼저 수료한 아버지들이 만나서 함께 축하하며, 아버지가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고 세족식을 통하여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다.

나. 어머니 학교

어머니학교는 성경적인 여성상을 제시하여 잘못된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왜곡된 어머니들의 자아상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돕는 배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자녀를 잘 양육하며 가정을 세우고 궁극적으로 열국의 어미로써 교회와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격려한다.

1998년 서울 두란노에서 시작된 어머니학교는 현재 한국 내 여러 군데와 해외지역에 여러 차례 개설되었고 만 명 이상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어머니학교는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주에서는 2002년 시애틀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2003년 8월에 미주 두란노본부가 있는 LA에서 본격적으로 개설되면서 급속히 미주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는 80여명이 넘는 수료자와 봉사자가 있고 활발하게 섬기고 있다.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이민 여성들이어서 한국 어머니학교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머니학교에 참여하고, 반응하는 것이나 그 열매도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또한 자비량으로 타주의 어머니학교를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숫자나 헌신도도 높았다. 오히려 미주지역은 아버지학교 보다 어머니학교의 분위기나 열정, 헌신이 더 좋다고 할 만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머니학교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⁷⁸⁾

첫 번째 만남의 주제는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이고 숙제는 개인의 Life Story 작성하기, 아버지께 편지쓰기다. 두 번째 만남의 주제는 아내로서의 사명이고 숙제는 남편에게 편지쓰기,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쓰기다. 세 번째 만남의 주제는 어머니의 영향력이고 숙제는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듣고 싶어 하는 말 5가지 쓰기다. 네 번째 만남의 주제는 기도하는 어머니이고 숙제는 자녀의 발을 씻겨주기, 간증문 쓰기다. 다섯 번째 만남의 주제는 십자가와 사명이다.

78) 두란노 가정상담연구원, *어머니학교 지침서*, 37-46.

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가정단위의 성서적 교육훈련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가정공동체의 지체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으로 양육되고, 그리스도인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내외 교회들을 이들 모범적인 크리스천 가정들이 모여 이루는, 즉 하나의 큰 가정교회(The Family-Church-Family)로 건설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교회의 목회방향에 맞추어 가정 사역의 중요성을 확산시킴으로써, 개념적 신앙에서 벗어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신앙적 가정을 이루어, 이를 바탕으로 평신도 사역의 일꾼을 육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세상을 꿈꾸며 세계를 향한 선교의 사명까지 자각하도록 돕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지원자 가정들로 하여금, 가정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을 치유하고, 은혜의 눈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보는 훈련을 한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온 가정이 하나가 되어 선교, 헌신에의 결단을 하도록 격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는 부부 및 부모자녀 관계를 바로 세우고,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가정회복 원리를 배우며, 견고한 가정을 세워가도록 돕는 가정훈련프로그램이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는 일상적인 삶을 떠나서 3박 4일이나 2박 3일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숙박하면서 집중적으로 받는 훈련이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내적 치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무엇이며 부부간의 진정한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어야 하는가를 다루며,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책임을 성경적으로 조명한다. 또한 현실적인 관계로서의 부부간의 사랑의 대화를 가르치며, 자녀 교육문제를 통하여 잘못된 자녀관을 바로잡고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재정립한다. 현실에서의 정상적인 가정 경제운영은 어떠한 것인가를 다루며, 각 가정과 가정간의 공동체 훈련을 실시한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 회복된 가

정이 헌신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를 정립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부, 부모자녀관계를 회복한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프로그램

구분	주제	개요
첫째 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교제의 시간	봉사가정과 지원자 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친밀감을 갖는다
	창조의 원리	
둘째 날	가정제도의 목적	깊은 대화(부부의 성), 사랑의 대화
	세족식	
	어둠에서 빛으로	
셋째 날	자녀 교육	‘나는 누구인가?’ ‘나의 아픔과 상처의 원인은?’ 가정생활가운데 받는 상처의 치유
	혼인 서약 갱신식	가족 공동체 훈련

1993년 처음 24지원자 가정으로 한국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는 2006년 현재 46기가 진행되었고 1200여 가정, 2500여명이 수료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인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는 2004년에 1기(64명의 지원자)를 시작으로 매 해마다 한번씩 개최하여 2007년 4기까지 모두 228명이 수료하였다. 특별히 처음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를 시작할 때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25가정이 자비량으로 와서 봉사해줌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잘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⁷⁹⁾

라. 기타 학교들

지금까지 언급한 학교들 외에도 가정 사역을 위한 계속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해부학, 대화학교, 새사람학교(성령학교), 성장학교 등을 열었으며, 특별히 기독교세계관과 부모와 자녀관계의 치유와 회복에 초점을 맞춘 Into 세미나를 열었다.

79)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얼바인 온누리*, 2005년 창간호, 21.

8. 여성사역

온누리교회는 부부중심적인 사역이 많다. 순장도 특별히 여성도들을 위한 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자 성도가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1월에 처음으로 열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여성사역을 시작했다. 여성사역기획팀을 만들어서 교회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여성들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여성사역으로는 여성 증보기도 팀 운영, 수요 오전 여성예배, 여성 리더십훈련학교, 만나사역, 여성 싱글사역, 행사 팀 운영 등이 있다.

가. 여성 증보기도사역

여성 증보기도사역에서는 증보기도의 은사를 가진 여성도들을 발굴하여 증보기도 사역자로 세워서 교회 모든 사역부서와 긴밀한 증보기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열바인 온누리교회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증보기도 모임이 있는데 첫째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위해 증보 하는 모임이다. 주일 예배시간에 따로 모여서 기도하는데 예배의 전체적인 흐름, 설교자,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 둘째, 주중에 기도하는 모임인데 매주 월요일 저녁에 따로 만나서 교회의 각 부서에서 내놓은 기도의 제목과 교회 증보기도 요청함에 들어온 기도제목들 가지고 기도한다. 또한 교회의 전체적인 비전, 각 사역의 비전 등 교회가 중장기적으로 세워 가고 있는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 수요 오전 여성예배

수요 오전예배는 여성예배의 성격을 가진다. 말씀, 묵상 그리고 삶으로 예배하는 온누리교회 여성들의 축제의 장이 수요 오전예배이다. 특별히 여성들은 수요일 오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조용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음을 고백한다. 수요 여성예배는 향유육합을 깨트리려 자신의 모든 것을 예배했던 마리아처럼 자신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 분 앞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돕는 시간이다. 교회에서는 수요 여성예배 만을 위한

여성 전도사를 따로 세워서 여성사역을 활성화시키고, 여성들이 스스로 안내와 봉사, 예배의 모든 순서와 예배 후 식사하는 것 까지 맡아서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한 지체임을 느끼고 친밀한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얼바인은 지역적인 특성 상 기러기 가족이 많기 때문에 남편이 없이 자녀들을 키우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 이 여성들을 위해서 친구 초청 잔치를 열어서 복음을 전했고, 장애우와 함께 하는 콘서트도 열었다. 그리고 건강이나 자녀교육 등과 같은 세미나를 함으로써 전도의 기회로 삼고 불신여성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수요 여성예배를 통해서 여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뿐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에 서로 식탁교제를 하면서 같은 이민자로서 서로의 삶을 공감하기도 한다.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하기도 하며, 식사가 끝난 후에는 큐티를 나누면서 신앙적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받는 좋은 장이 되었다. 처음 수요 여성예배를 시작했을 때에는 인근의 교회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여성예배가 잘 정착되자 주변의 교회들도 수요 여성예배를 만들고 여성 리더십을 세우게 되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다. 여성 리더십훈련학교

21세기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여성'이라고 할 정도로 여성의 영향력과 역할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비약적으로 증대되는 시대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주도적으로 여성리더십을 개발하고 여성들의 사역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 리더십훈련학교란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여성'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영성과 리더십학교이다. 내면의 회복, 묵상훈련을 통한 영성회복 등을 통해 모든 여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영성 깊은 사역자가 되도록 돕는 사역이다. 이를 위해서 실제적인 체험과 구체적인 헌신의 자리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여성 리더십을 세우려는 의도아래 교회를 시작할 때 세 사람의 운영위원 중에서 한 사람은 여성리더를 세웠다. 또한 한국사회와는 달리 이민사회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성 순과 여성 순장을 적극적으로 세워나갔다.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는 2006년 5월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여성”이라는 주제로 김세윤박사를 강사로 여성리더십 세미나를 열었다. 남가주 지역 약 25개 교회에서 152명의 여성들과 사역자들이 참석했는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 각 교회의 연합이 있었을 뿐 아니라 여성들이 복음적, 사회적, 문화적 소명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게 된 시간이었다.⁸⁰⁾

라. 만나 사역

교회의 예배 및 각종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수시로 요구되는 것이 예배와 행사에 참여한 이들의 식탁교제이다. 만나사역은 이러한 식탁 교제가 활성화되어 교회가 더욱 활력이 넘치도록 각 예배와 행사별로 어울리는 식단과 다과의 제공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는 연초에 자원봉사 신청서를 받아서 만나사역에 자원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나 팀을 만들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하고 각 공동체가 매주일마다 돌아가면서 만나 팀을 도와서 식사를 준비하였다. 이민교회에서의 식탁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민자들은 소수민족이고 언어의 불편함 때문에도 대부분이 주류사회에 소속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런 이민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이란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공급받고 은혜를 받는 것뿐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에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친교 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후 식사는 소중한 친교의 장이다.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이민자로서의 어려움도 나누고, 은혜 받은 경험들을 나누면서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경험을 하게 된다.

마. 여성 싱글사역

부부 중심의 순모임, 가정 사역을 강조하면서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싱글들에 대한 배려이다. 남자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여성 싱글들은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여성 싱글사역은 단순한 사역조직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 격려가 필요한 사역이다. 여성 싱글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리더를 세우는 일이다. 성숙하고 준비되고 훈련된 리더가 아니면 오히려 모임을 위축시키

80) “여성리더십 훈련학교,” *얼바인 온누리*, 2006년 여름호, 9.

고 상처를 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싱글사역이라고 꼭 싱글여성을 리더로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건강한 가정을 가지고 내면이 건강하고 성숙한 여성 리더가 모임을 더 잘 인도하는 경우도 있다. 여성 싱글사역을 할 때에는 사별한 경우와 이혼한 경우를 세심하게 배려해서 잘 구분해 주어야 한다. 사별한 사람은 이혼한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정죄할 수 있고, 이혼한 사람은 사별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결혼 적령기를 넘어서 싱글로 오랫동안 보낸 사람도 이혼과 사별로 싱글이 된 경우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역이나 순으로 연결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담임 목회자는 항상 이 모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지혜롭고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 싱글사역을 단순한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보람과 기쁨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역으로 인도하는 것도 싱글사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다.

바. 행사팀

교회의 각종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손길들이 필요한데, 행사팀은 교회 단위의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 전반을 주관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얼바인 온누리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고 또 서울의 모교회와 연계하여서 열리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팀이 필요하다. 이 팀은 행사가 열릴 때 한시적으로 모여서 행사를 기획하고 안내, 식사, 장식, 아이들을 위한 탁아를 맡는다.

9. 치유와 회복사역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양육과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시키고, 사역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평신도 사역이 건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의 영적지도와 치유와 회복사역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얼바인 온누리교회의 치유와 회복사역의 두 축은 내적치유와 영성수련회인 샤이닝 글로리이다.

가. 내적 치유

내적 치유는 전인치유와 영적인 성숙을 목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루어지는 사역이다. 인간의 신체 및 심리적인 질병과 문제는 자신이 잘 느끼지 못하는 과거의 내적, 감정적, 영적인 상처로 인해 상한 감정, 죄, 영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내적 치유는 바로 그곳에 초점을 맞춘다.

내적 치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첫째,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사역을 행하게 된다. 둘째, 관계가 회복되도록 돕는 사역이다.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와준다. 셋째, 성숙하고 비전지향적인 신앙인으로 자라가도록 돕는 사역이다. 회복된 모습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일익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보다 영적 성숙과 비전 지향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다.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먼저 외부강사(크리스 해리슨 목사)를 초청하여 개최한 집회가 내적치유집회였다. 이민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이민경험과 교회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옮기는 과정에서 받은 상처들을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 받는 경험은 개인적으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적 치유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은혜를 받으면서 교회 성장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두 번째 열었던 내적 치유집회는 같은 지역에 있던 얼바인 침례교회와 연합으로 주최하여 장소를 번갈아가면서 개최하였다. 성도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기쁨으로 교제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교회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에는 좋은 이미지를 심는 계기가 되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는 국제 YWAM(Youth With A Mission) 내적 치유 강사인 크리스 해리슨 목사를 초청하여 해마다 내적 치유집회를 가졌고, 그밖에도 전문적인 내적 치유강사들을 초청하여 집회를 열었다.

나. 샤이닝 글로리

샤이닝 글로리는 트레스 디아스(Tres Dias)를 교회적으로 적용한 프로그램이다.

트레스 디아스 사역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관하는 단체가 지나치게 평신도 사역을 강조해서 목회자와의 갈등이 있었다. 또한 트레스 디아스에서 은혜받고 변화된 수료자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 트레스 디아스 프로그램과 단체에만 헌신하는 문제 때문에 일군이 부족한 개교회 입장에서는 트레스 디아스 사역을 환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트레스 디아스 사역을 성도들과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새롭게 재구성한 프로그램이 바로 샤이닝 글로리이다.

샤이닝 글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성령의 사역을 실제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치유와 회복, 새로운 영적 비전을 갖도록 돕는 사역이다. 3박 4일간 13개의 주제 강의와 8개의 의식 프로그램을 통해 주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된다. 더 나아가서 제자로서의 삶과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지원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또한 지원자가 보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봉사자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는 2006년 7월에 1기 샤이닝 글로리를 개최했는데 지원자가 68명이었다. 지원자 중에서 얼바인 온누리교회 교인은 43명이고 윌셔와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교인은 25명이었다. 이 때 모교회인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30여명의 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주었다.⁸¹⁾ 샤이닝 글로리를 통해서 참가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은혜와 치유를 경험했고 삶과 사역을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다.

샤이닝 글로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10. 기도와 영성 훈련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초기에 직면하는 갈등은 기도를 먼저 할 것인가, 사역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다. 누가복음 10장 38-42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졌던 갈등은 교회 개척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교회를 세우는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기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성도와 교회의 호흡이며 생명 샘이다.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은 영적전쟁이기에 기도는 한 순간도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사역이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 가운데 가르치고 행하셨다. 생애 마지막 순간도 온전한 기도로 자신을 드렸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가운데서도 기도

81) "샤이닝 글로리" 얼바인 온누리 2006년 여름호, 28.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곧 기도행전이라고 할 만큼 기도로 가득 차 있다.

<표 5> 샤이닝 글로리 프로그램

	아침예배	강의	의식
첫째 날	도착 및 오리엔테이션	1. 나는 누구인가? 2. 불신의 옷을 벗어라	1. 환영식
둘째 날	1.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3. 아버지의 마음 4. 하나님의 은혜 5. 말씀 6. 기도 7. 성례	2. 성찬식
셋째 날	2. 주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8. 경건의 삶 9. 믿음의 공동체 10. 십자가 11. 순종하는 삶	3. 세족식 4. 십자가 못박기 5. 헌신의 밤
넷째 날	3.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12. 성령의 능력 13. 성령의 사역	6. 사랑의 꽃다발 7. 내 양을 먹이라 8. 졸업식

얼바인 온누리교회도 개척자인 본 연구자 부부의 기도로 먼저 시작했다. 기도를 시작한지 한 달 후에 한 사람의 성도가 합류했고 그 후에 일곱 가정이 기도모임에 합류하면서 개척 팀이 형성되고 교회 개척을 준비했다. 처음에 가정교회의 형태로 예배를 시작할 때에도 새벽기도를 매일 했다. 이민교회에서는 매일 새벽기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또 매일 새벽기도 하는 교회도 담임목회자가 매일 인도하는 교회는 많지 않다. 하지만 얼바인 온누리교회의 경우 기도예배에 담임목회자가 먼저 헌신하면서 개척팀에게도 정식 창립예배를 드릴 때까지 매일 새벽기도에 헌신하게 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 전도와 예배, 제자훈련을 하면서 모두가 바빠지게 되었고 모든 개척 멤버들도 마리아보다는 마르다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개척단계에서는 마르다의 역할이 정말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때만 영적 침체와 탈진에 빠지지 않고 개인적인 성장과 교회적인 성장이 함께 갈 수 있다. 우선 담임목회자부터 새벽기도를 반드시 지

킴으로 기도와 사역의 중심을 잡게 했다. 그리고 개척 준비 때부터 증보기도 팀을 세워 영성을 유지하게 했다. 지속적인 기도의 영성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증보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영성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양한 기도의 형태와 기도의 필요와 실재를 배우는 수요 기도학교, 증보기도의 원칙들과 증보기도자의 자세, 증보기도의 능력을 배우는 증보기도 세미나, 영적전쟁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열어서 기도와 영성훈련을 꾸준히 하였다. 증보기도와 영성훈련의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증보기도, 관상기도훈련, 성령집회를 개최하여 영적인 토대를 닦았다.

11. 리더십 개발

교회는 그 리더의 분량만큼만 자랄 수 있다. 그러므로 리더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건강한 제자와 그룹과 교회를 만들려는 교회 개척자의 첫 번째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⁸²⁾

미국 GE의 최대의 장점은 Farming System을 통한 인재 양성과정이다. 이처럼 교회도 리더십을 훈련하고 양성하기 위한 과정과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임시방편적인 훈련과정이나 형식적인 과정이 아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리더십훈련과 양성과정이 필요하다. 리더십훈련과 양성은 양육단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효율적이 된다. 기초양육에서부터 리더십양육에 이르는 일관된 양육체계 속에서 리더십이 훈련되고 양육되어야 한다. 제자훈련의 목표는 단순히 제자 삼는 것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리더를 양성하는 데 진정한 목적이 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의 리더십양육과정은 이미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수료하고 실제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재교육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리더십 개발의 주요과정으로는 일대일 제자양육의 다음과정인 일꾼 양육과정, 안수집사 훈련학교, 온누리교회 사역축제 참여 등이 있다.

82) Logan, "교회개척론," 6.

가. 일꾼 양육 훈련과정

하나님의 일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엘바인 온누리교회에서는 리더십 훈련과정 중의 하나로 일꾼양육 성경공부를 하였다. 일꾼양육 성경공부는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일꾼양육훈련은 양육단계로는 제자도를 위한 일대일 제자훈련 다음과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일대일 제자훈련과정을 통해 제자도의 토대를 든든히 다진 후에 이들을 다시 사역자로 세우는 과정이다. 단순한 계산으로는 일대일 동반자과정 6개월, 일대일 양육자과정 6개월을 마치면 일꾼양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역자는 절대로 단기간에 대량으로 마치 틀에서 찍어내듯 만들어지지 않는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역자로 세우는데 3년을 투자하셨다. 사역자는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몇 가지 프로그램을 마쳤다는 이유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성숙과 전문성, 리더십을 갖추려면 체계적인 양육과 개인적인 영적지도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역현장에서의 훈련과 경험, 해산의 수고를 거칠 때에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행 6:3)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다.

개척단계에서는 사역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필요한지 모른다. 그러나 쉽게 사역자로,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게 되면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교회 안에서 갈등을 만들 소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열매를 보려면 기다려야 하듯이 사역자로 세우는 과정도 체계적이면서도 검증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 엘바인 온누리교회에서는 큐티와 일대일 제자훈련에 집중하면서도 일꾼 양육성경공부를 순장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사용하고, 사역 팀의 팀장과 총무의 훈련교재로 사용했다.

일꾼양육 성경공부 교재는 어떤 종류의 사역을 하고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사역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10개의 분야를 다루고 있다. 이 과정은 초급이나 기초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일대일 제자 양육 성경공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일대일 제자훈련이 중심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제자화 되는 과정이라면 그 다음 단계인 일대일 일꾼양육훈련은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성숙과 사역자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대일 일꾼양육훈련 교재는 구원의 감격, 경배와 찬양, 성경

연구, 증보기도, 공동체, 선교, 내적 치유와 관계회복, 영적 전쟁, 부르심과 헌신, 지도력이라는 열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⁸³⁾

나. 안수집사 훈련학교

안수집사 훈련학교는 평신도 리더십을 개발하여 교회의 성실한 임직자로 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안수집사 훈련학교의 목표는 첫째, 교회 평신도 리더십으로 임직한다. 둘째, 임직 후보들의 소명의식을 함양한다. 셋째, 훈련을 통해 영성 생활을 돕는다. 넷째, 교회의 기본양육인 일대일과 큐티를 생활화시키는 데 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는 교회를 개척한 후 처음으로 2006년에 모두 117명이 안수집사 훈련을 받았다. 거의 1년에 걸친 훈련학교를 수료한 79명이 2006년 12월 안수집사 임직을 받았다⁸⁴⁾.

개척 후 3년 동안은 전혀 직분자를 세우지 않았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회직분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민교회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더 심각하다. 신앙점검이나 신앙의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이나 영적지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빨리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다. 또한 단순히 교회 출석한 햇수로 직분을 주거나, 지나치게 형식적인 훈련과정을 통해 직분자로 세우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교회를 개척하면서 운영위원도 세웠고, 순장도 임명하고 사역의 팀장도 세웠지만 이들도 철저한 양육 체계에 따른 훈련과 성장을 거친 후 세웠고,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받았던 직분들은 호칭은 존중했지만 공식적인 얼바인 온누리교회 임직자로 세우지는 않았다. 교회 직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직분에 걸맞은 신앙을 갖출 수 있도록 처음 세우는 안수집사는 그 훈련 기간으로나 내용으로나 요구하는 헌신도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안수집사 후보들은 오히려 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년이나 되는 고된 훈련 과정을 따라오기 어려울 것이라 염려도 되었지만 제대로 된 기준과 그 기준에 이를 수 있는 합리적인 훈련과정을 개설했다. 훈련을 통한 변화와 성숙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면서 후보들은 안수집사훈련학교를 통한 안수집사 임직과정을 감사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안수집사 임직식이 교회적인 축제의 자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교회의 체질이 더욱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83) 두란노 편집부, *일대일 일꾼양육* (서울: 두란노, 1995), 2.

84) "일꾼 세우심 감사," *얼바인 온누리*, 2006년 창립 3주년 기념호, 18.

참고로 안수집사 훈련학교 훈련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⁵⁾

1학기(2006년 1월 19일-5월 4일)

1강 리더십 1

수련회-신년 부흥사경회 참석

2강 리더십 2

3강 성경적 교회론

4강 온누리교회 목회철학

5강 하나님 나라

6강 사명의 확인

7강 기도 훈련-증보기도

수련회-대화학교 세미나 참석

8강 팀워크

9강 선교적 세계관

10강 그리스도인의 성품

11강 그리스도인의 윤리

12강 청지기

2학기-단기선교(2006년 5월 25일-8월 3일)

페루 단기 선교 참석

3학기(2006년 8월 22일-11월 9일)

파라과이 단기 선교

서울 온누리교회 OMC(Onnuri Ministry Celebration) 참석

에콰도르 단기 선교

다. OMC 참석

온누리 사역축제는 1997년 11월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온누리교회의 목회철학과 모든 사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매뉴얼화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시작된 사역이다. 한 교회에게 주신 축복은

85) "안수집사 후보를 세우며," *얼바인 온누리*, 2006년 신년호, 11.

그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공유하고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사역축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온누리교회는 이미 두란노서원을 통해서 온누리교회에서 검증되고 열매를 맺은 프로그램들과 사역을 계속해서 외부에 공개하고 나누고 있었다. 온누리 사역축제는 보통 4일 동안 진행되는데, 사역축제에 참석하면 한 자리에서 온누리교회의 목회철학과 사역의 원리와 프로그램, 다양한 매뉴얼을 확인하고 배울 수 있게 된다. 매년 4월과 11월에 두 차례씩 개최되는 OMC를 통해서 국내외 많은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참석하고 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는 모교회의 모델로 개척된 교회이기 때문에 모교회 모델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온누리 DNA를 파악할 수 있는 온누리 사역축제를 리더십훈련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온누리 사역축제를 경험할 뿐 아니라 온누리교회 성도와 리더십과의 교제의 기회, 한국교회를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석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의 문제 뿐 아니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시디나 테이프, 책자 등의 자료를 통해 훈련하기도 한다. 2006년부터는 CGN TV 위성방송을 통해 미주지역에서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방송을 활용하고 있다. 적지 않은 비용과 희생을 지불해야 하지만 온누리 사역축제에 참석한 성도들의 대부분은 참으로 유익한 경험이었다는 간증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축제를 통해 다른 어떤 사역과 프로그램보다 리더십을 훈련하고 모교회의 DNA를 얼바인 온누리교회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2 선교

선교는 교회 사역 중의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곧 선교이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으로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교회 자신을 부을 준비를 해야 한다.

서울 온누리교회는 창립 때부터 선교공동체, 선교하는 교회로 헌신하면서 시작하였다.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지상명령을 교회의 머릿돌에 새기면서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출발하였다. '가든지 보내든지'를 표어로 내세워 선교지에 가지 않으면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교회 창립 1주년 때 첫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모든 예산중에서 제일 먼저 선교비

를 지출하게 하였다. 담임목회자가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선교비는 반드시 보내면서 선교의 부르심에 온 성도들이 참여하게 했다. 장기 선교사로 갈 수 없는 성도들은 단기 선교로 헌신하게 했고, 이민이나 해외근무로 해외에 가게 될 때에는 선교적 소명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파송식을 했다.

온누리교회는 모든 헌금은 자발적으로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한다. 하지만 선교헌금만큼은 연초에 작성하게 하고 있다. 선교헌금봉투를 만들어서 교회에 비치하고 3개월에 한 번씩 헌금이 쓰이는 현황을 헌금한 성도들에게 통보하고 있다.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예배에 계속 출석하는 성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선교헌금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유치부에서부터 실버사역인 모세 대학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헌금을 작성한다.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를 각 공동체와 순별로 연결하여서 증보기도하며 선교사들의 생일과 성탄 선물을 보내고, 선교사들이 안식년이나 모교회를 방문했을 때 연결된 공동체와 순들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게 하고 있다. 선교증보기도모임은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하고 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는 모교회 모델로 개척한 교회이다. 특히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선교공동체의 비전으로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 정책이나 전략, 방법은 서울 온누리교회 모델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교회가 창립 예배를 시작한 후 2개월도 채 안 되는 2003년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서울 온누리교회와 똑같이 모든 성도들이 선교헌금을 작성하였다.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표어와 함께 선교적 삶에 함께 헌신하면서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개척한 목적을 분명하게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미주에 있는 이민교회 성도들은 이미 다국적 문화를 경험하고, 조국을 떠나는 모험을 한 사람들이다.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으로서의 삶의 경험이 이미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준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영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를 개설했다. 전 성도들을 대상으로 '요나 선교학교'를 열었다. '요나 선교학교'는 바른 선교를 위한 훈련을 목표로 Come Mission(이재환 선교사)에서 진행하는 훈련 프로그램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요나가 물고기

벋속에 있었던 시간 만큼인 2박 3일 간 진행된다. 요나훈련학교 참석자들은 그 시간을 통해 기존에 갖고 있던 선교 의식을 전환하고, 막연했던 선교목적과 선교 방향이 확실하게 설정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한다. 또한 서울 온누리교회 'Why Mission' 팀이 와서 전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경에 드러난 선교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얼바인 온누리교회는 구체적인 선교를 위해서 선교기획 팀과 협력선교(선교지원) 팀, 단기선교, 의료선교를 조직하였다. 선교기획 팀은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계획된 프로그램에 온 성도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성도들을 독려한다. 협력선교(선교지원) 팀은 공동체 선교사역의 파송된 선교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증보기도 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을 가진다. 구체적인 선교현장의 소식과 전략적인 사항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가. 단기 선교

단기선교 사역은 전도와 사역지원을 담당하는 사역이다. 다른 선교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며 년 1회 이상 단기선교를 실시한다.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얼바인 온누리교회는 해마다 단기선교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여름방학이 되면 중고등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인근 멕시코나 애리조나에 대한 단기선교가 있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 사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영어가 가능하고 제 2외국어로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멕시코나 남미 같은 곳에 단기선교여행을 갔을 때 매우 효율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단기선교를 다녀오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선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성도들이 휴가를 내어서 멕시코, 페루나 파라과이 같은 지역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오는 프로그램을 매 해마다 진행하였다.

교회에서는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몇 달 전부터 팀원들의 연합과 실제적인 준비를 위해서 훈련과정을 개설하였다. 단기 선교팀 훈련에는 여러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단기선교의 역할과 훈련의 중요성, 타 문화권을 이해하기 위한 각국문화의 이해,

21세기 선교의 개념과 동향 등의 강의를 들으면서 조별로 증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⁸⁶⁾

나. 의료 선교

의료선교란 치유의 은사를 활용하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를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에 접목시킨 것이다.

의료선교사역은 가난한 지역 또는 선교지에서 정상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적 의료 섬김과 복음전도 사역이다.

의료선교 팀에서는 국내외 의료 선교 사역을 주관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의료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며 의료사역자를 발굴하는 일을 한다.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는 상비약과 구급약 등을 갖춘 의료실을 따로 마련하여서 운영하였다. 의료 실에는 한의사, 내과, 소아과 의사 등이 교인들의 필요시 진료와 치료를 하였다. 미국 이민사회에서는 의료보험이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을 뿐 아니라 미국은 보험이 없으면 병원진료비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교회에서 의료실을 운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과 상담을 하고 적절한 처방을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의료선교 팀은 교회가 해외로 단기선교를 떠날 때 함께 가서 선교지에서 의료사역을 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

의료선교팀은 멕시코 티와나 지역으로 정기적으로 일 년에 몇 차례씩 일일 단기 의료선교를 다녀왔으며, 페루나 파라과이 등으로 단기선교를 떠날 때에도 함께 합류하여 귀한 사역을 하였다.

다. 선교사 후원 및 파송

얼바인 온누리교회는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두 명의 선교사를 아프리카 기니와 몽골 교회개척사역에 파송했고, 9명의 선교사를 후원했다. 또한 12개의 선교기관이나 단체를 후원했다. 해외선교지에 교회도 건립하였는데 2003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86) "선교는 사명이다" 얼바인 온누리 2006년 봄호, 17.

교회를 세웠고, 2004년에는 부룬디 원주민교회 건립을 도왔으며, 2005년 12월에는 파라과이 과리니(Guarani)족 원주민교회를 건립하였다. 미전도종족인 멕시코 미헤족과 타라후마라 족을 입양하여 지원하였다.⁸⁷⁾ 또한 미주지역에 세워진 온누리교회 비전교회들이 하나된 선교를 위해서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선교 정책회의를 가지고 TIM America를 발족했다.⁸⁸⁾ 서울 온누리교회의 대표적인 선교단체인 두란노 해외선교회의 미주 지부(Tyrannus International Mission America)가 설립된 것이다. 두란노 해외선교회는 온누리교회의 선교적 사명인 2천명의 선교사 파송의 정신에 따라 세워진 단체로써, 현재 온누리 650여명의 선교사 중 230여명의 선교사를 관리하고 후원하고 있다. 특별히 중남미 지역 중 멕시코 미헤족과 타라후마라족, 페루, 파라과이,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등 여러 미전도 종족과 현지인 사역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이에 이주에 있는 비전교회 및 협력교회와 협력단체가 함께하여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해 선교자원을 발굴하고 파송하며, 선교사와 선교지를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TIM America에서는 평신도 선교 동원 및 선교 훈련의 필요성을 동감하고 미주 지역과 온누리 비전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3.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 개척

교회는 재생산하도록 창조되었으며 건강한 교회들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재생산이다.⁸⁹⁾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교회를 재생산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모교회 모델을 통한 개척전략이다.

얼바인 온누리교회 비전과 사명 중의 하나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였다. 이 비전과 사명은 모교회로부터 배운 것이다. 교회를 재생산하는 교회의 비전에 따라서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개척한지 6개월 후인 2003년 L.A 다운타운에 세워진 월셔 온누리교회의 개척을 돕게 되었고, 2005년에는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열매를 맺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개척한지 채 3년이 되지 않았을 때였다. 얼바인과 샌디에이고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다. 샌디에이고에서부터 얼바인까지 출석하는 한 성도로부터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 개척을 위한 기도

87) "선교소식," *얼바인 온누리*, 2006년 창립 3주년 기념호, 22.

88) "Tim America," *얼바인 온누리*, 2006년 여름호, 20.

89) Logan, "교회개척론," 1.

가 시작되었다. 샌디에이고에도 온누리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샌디에이고 지역에 개척교회를 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일곱 가정과 연결되었다. 이들과 함께 먼저 중보기도모임을 1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 개척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6개월을 준비기간으로 삼고 가장 기초가 되는 양육 훈련인 큐티세미나와 일대일 제자양육을 엘바인 온누리교회 사역자들의 섬김으로 수료하였다. 그리고 2개월 동안 샌디에이고에서부터 엘바인 온누리교회로 매 주일에 배 마다 참석하면서 새 가족반 7주 과정을 수료하게 하였다. 이런 준비 후에 샌디에이고에 먼저 정착해 있던 서울 온누리교회 출신 두 가정과 함께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가 2005년 7월 시작되었다.⁹⁰⁾

엘바인 온누리교회에서는 목회자를 파송하고 3개월 동안 성가대를 보내서 예배를 도왔다. 리더십의 보강을 위해서 엘바인 온누리교회 장로 한 명을 파송하고 모든 사역과 집회를 공유했다. 모교회인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팀을 초청하여 개척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엘바인 온누리교회와 연계해서 지원함으로써, 엘바인 온누리교회를 개척했을 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다. 엘바인 온누리교회가 아직 어린 신생교회였지만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 개척에 참여하면서 성도들은 나누는 기쁨을 맛보았고 교회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에도 애리조나 피닉스와 텍사스 휴스턴 지역에서 온누리교회의 모델로 개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방문하여 프로그램과 개척 매뉴얼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 지역의 교회 개척을 지원하기도 했다.

본장에서는 엘바인 온누리교회 성장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엘바인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의도했던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모교회인 서울 온누리교회를 모델로 하여 시작된 교회이다. 이민교회의 상황과 시대에 맞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한 여러 가지 사역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회는 그 한 교회의 성장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함께 자라가야 한다. 엘바인 온누리교회는 전 교인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 사역자로 양육 받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목표를 가

90) “사진으로 보는 온누리 2년,” *엘바인 온누리*, 9.

지고 있다. 그러한 목표 하에 여러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후원하는 일을 계속할 뿐 아니라 인근지역에 또 다른 교회들이 개척되는 것을 도우면서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었다.

제 6 장

결 론

본 논문은 모교회 모델을 통한 교회개혁론을 제안하면서 1장에서는 교회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였다. 빌 하이벨스의 말처럼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⁹¹⁾ 피터 와그너의 주장과 같이 “하늘 아래 가장 효과적인 전도방법은 새로운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다.⁹²⁾ 예수님의 교회는 영원하다(마 16:18).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심은 교회를 통해 계속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지상명령(마 28:19-20)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수행되어야 하고 지상명령이 성취되는 곳에 오늘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가장 위대한 탄생은 예수님의 교회의 탄생이다. 성도는 전도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를 개혁하고 재생산해야한다.

교회 개혁은 믿음과 소명으로 해야 하지만 개혁교회의 평균 수명이 2년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전략적인 사고와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2장에서는 교회를 개혁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개혁 전략들과 교회개혁의 필수요건을 논하였다. 특별히 교회 개혁의 필수요건들은 어떤 형태의 교회를 개혁하든지 반드시 준비해야 될 요소들이다. 교회를 개혁하고자 할 때 교회 개혁의 기초요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과 필수요건을 갖추지 않고 개혁하는 것은, 마치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짓거나 지도 없이 낯선 곳을 여행하려는 무모함과 같다. 기초가 중요하고 기본이 튼튼해야 한다. 기초가 바로 세워져있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주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한다(마 16:18). 교회 개혁의 필수요건 중에서도 개혁할 교회의 비전과 목회철학을 정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비전과 목회철학을 정립한 후에는 목회철학에 따른 양육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한 후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할

91) Hybels, *울로우크릭 커뮤니티 교회: 스토리와 비전*, 87.

92) Malphurs, & Aldrich, *(21세기) 교회개혁과 성장과정*, 35.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이다(엡 4:12). 개척자 자신에게 맞고 개척 대상에게 적합한 양육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다른 교회에서 효과적이고 열매가 있는 양육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몸에 맞는지, 개척할 교회의 목회대상에게 적합한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영적 성장과정이 있듯이 교회에도 성장단계가 있다. 양육체계를 준비할 때 개인과 교회의 성장단계 별로 적합한 양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양육체계는 영적지도처럼 개척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든지 알고 자신의 영적 성장과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체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역체계이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와 열정, 개성 및 영적 성숙의 정도에 따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사역의 장은 미리 확정해 놓는 것 보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열려있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불필요한 사역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역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가져야 한다.

3장에서는 다양한 개척방법 중에서 모교회를 통한 교회 개척전략을 소개했다. 모교회를 통한 교회 개척전략은 본 논문의 핵심주제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하나됨과 공동체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개척전략이다. 모교회 모델 개척의 경우에는 개척자 개인의 열심과 취향에 의해 결정된 개척이기 보다는 모교회의 결단과 후원에 의해 추진되어야 효과적이다. 모교회는 단순히 교회를 개척하는 수고 뿐 아니라, 개척교회가 자립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지속적인 돌봄과 협력을 해 주어야 한다. 재정적 지원은 분명한 한계를 정해야 하지만, 훈련된 성도와 지도자들, 검증된 양육과 사역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공유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히 개척자인 목회자를 코치하고 멘토링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모교회 모델 개척 전략인 경우 모교회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모교회의 핵심 DNA를 확보해서 지역과 목회대상에 맞게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억해야 할 것은 모교회 모델에서 모방할 수 있는 것과 모방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델은 모교회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모든 교회의 진정한 모델은 모교회

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어야 하며 창조적으로 새롭게 적용되어야 한다.

4장에서는 모교회 모델의 구체적인 적용사례인 엘바인 온누리교회 개척 준비 및 과정을 논하였다. 1절에서는 미국 남가주 엘바인 지역 조사와 그 지역에 사는 한인들을 분석하였다. 지역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개척 이후에 더 절실하게 알게 되었다. 엘바인 온누리교회는 갑자기 결정된 개척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지역조사 없이 시작했다. 그래서 시행착오와 땀가를 많이 지불하였다. 개척자인 본 연구자도 미국 생활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을 때 개척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민자와 이민교회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지금도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 지역조사 부분이다. 모교회를 분석하고 파악하고 정리하는 일은 10년이상 모교회를 경험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모교회 모델을 적용해야 할 지역과 목회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목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다. 목회대상에 대한 이해와 관심, 목회대상에 맞는 양육과 사역이 교회 개척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요 전략이요 원리이기도 하다.

4장 2절에서는 엘바인 온누리교회 개척의 실질적인 준비과정을 논했다. 개척멤버인 핵심 그룹양성의 중요성은 개척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뿐 아니라 개척 이후 성장과정에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그룹을 양성하는 시기는 교회의 영적DNA를 형성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핵심그룹 양성은 교회의 질적, 양적 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예수님께서도 핵심그룹인 열 두 제자를 훈련하는 일에 공생애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집중하셨다. 핵심그룹 양성에 교회 성장의 사활이 걸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서울 온누리교회는 핵심그룹인 열 두 가정을 양육하는데 1년을 투자했다. 엘바인 온누리교회도 1년 동안 핵심그룹을 양육하는데 집중했고, 이들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을 때 창립예배를 드렸다.

5장에서는 엘바인 온누리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모교회의 양육과 사역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다양한 사역을 소개하였지만 단순한 사역의 나열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될 사역을 단계별로, 분야별로 균형 있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척에서부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 전도와 새가족 분야, 교제 분야, 양육 분야, 사역 분야, 선교 분야로 분명한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모교회 모델의 장점은 모교회의 사역자와

프로그램 매뉴얼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역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척단계에서는 그야말로 사람은 별로 없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다. 성도들이 많지 않다고 해서 오직 전도하는 일에만 치우치다 보면 개척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놓칠 수 있다. 또한 아무리 사역이 많고 분주해도 예배와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 부분은 사도들도 실수한 부분이다. “말씀과 기도를 제해 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행 6:2). 목회자는 물론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소수가 모이더라도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개척 단계에서 처음부터 강조되어야 할 교회의 핵심비전 중의 하나는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재생산의 비전이다. 개척의 경험과 노하우를 또 다른 교회를 재생산하는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적인 재생산을 계속해나갈 수 있다.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됨으로써 하나님나라를 확장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믿음으로 창립 3주년 안에 첫 개척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해야 한다.

바라기는 모교회 모델의 개척전략이 보편화되고, 더 많이 연구되어서 모든 교회가 교회를 재생산하고, 성경적이고도 건강하고 영향력있는 교회가 되는데 본 논문이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한다.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서울: 브니엘, 2006.
- 김보경, "교단별 교회개혁정책," *목회와 신학*, 2008년 4월호.
- 김유수,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서울: 쿼란 출판사, 2006.
- 김점옥, *급성장하는 7교회 이야기*,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1.
- 명성훈, *교회개혁의 원리와 전략*, 서울: 국민일보, 2000.
- 박은조, "교회개혁설립전략에 대한 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2.
- 박준형, "협력개혁의 모델을 본다," *목회와 신학*, 2008년 5월호.
- 신성종,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서울: 하나출판사, 1994.
- 안진섭, "분립개혁을 통한 건강한 교회성장," *목회와 신학*, 2008년 4월호.
-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8.
- 유상채, "나의 분립개혁이야기," *목회와 신학*, 2008년 5월호.
- 이동원, *우리가 사모하는 공동체*, 서울: 두란노, 2005.
- 이성희, *미래목회 대 예언*, 서울: 규장, 1998.
- 이요한, "이민교회에서의 효과적인 개혁 전략,"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6.
- 이한진, "건강한 중형교회를 지향하는 분립개혁," *목회와 신학*, 2008년 5월호.
- _____,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진 교회의 큰 숲," *목회와 신학*, 2008년 5월호.
- _____, "어떻게 모교회의 일부 성도를 개혁교회로 파송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 2008년 5월호.
- 하용조, *단숨에 읽기 온누리교회 20년*, 서울: 온누리교회.
- _____,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서울: 두란노, 2007.
- 한미준, *한국교회 미래리포트*, 서울: 두란노, 2005.

최승호, "교단별 교회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언," 목회와 신학, 2008년 4월호.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를 바꾸라, 서울: 나침반, 1997.

_____,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목회, 서울: 두란노, 1999.

최홍준, 잠자는 교회를 깨운다, 서울: 규장, 1998.

2 번역 서적

Anderson, Leith, 교회를 향한 제 3의 물결, 김철직 역,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8.

Banks, Robert & Julia,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장동수 역, 서울: IVP, 1999.

Barna, George, 교회성장의 침체를 극복하라, 안보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_____, 레볼루션 교회혁명, 김용환 역, 서울: 베이스캠프미디어, 2008.

Bilezikian, Glibert, 공동체, 두란노 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 1997.

Colson, Charles, 이것이 교회다, 김애진 역, 서울: 홍성사, 1997.

Cordeiro, Wayne, 팀으로 이끄는 교회, 김경섭 역, 서울: 프리셋트, 2001.

Dawn, Marva, 세상관세와 하나님의 교회, 노종문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8.

Donahue, Bill, 윌로우크릭교회 소그룹 이야기, 송영선 역, 서울: 디모데, 1996.

Engend, V. Charles,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운택 역, 서울: 두란노, 1994.

Galloway, Dale, 뉴 호프 커뮤니티교회 이야기, 전의우 역, 서울: 요단, 1998.

George, F. Carl,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 서울: 요단, 1997.

Graham, Jim,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 윤준서 역, 서울: 두란노, 1990.

Hawkins, L. Greg & Cally Parkinson, 발견, 김창동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Hunter, G. George, 잃은 양, 떠난 양, 버린 양을 찾아서, 김양석 역, 서울: 프리셋트, 1999.

Hybels, Bill & Lynne, 윌로우크릭 커뮤니티교회, 김성웅 역, 서울: 두란노, 1997.

Kimball, Dan, 그들이 꿈꾸는 교회, 차명호 역, 서울: 미션월드, 2007.

MacArthur, John, 교회의 해부학, 한화룡 역, 서울: 두란노, 1996.

Machia, Steven,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김일우 역, 서울: 아가페, 1999.

Melphers, Obris & Joe Aldrich, (21세기) 교회개혁과 성장과정, 홍용표 역, 서울: 예찬사, 1996.

- McDonald, Gordon, *누가 내 교회를 훔쳤는가?*, 전의우 역, 서울: 두란노, 2008.
- McManus, R. Erwin,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운동력*, 김형원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 Murphy, Troy, *성장하는 교회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이상준 역, 서울: 두란노, 2004.
- Neighbour, W. Ralph, *셀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1.
- Ogden, Greg, *새로운 교회개혁 이야기*, 송광택 역,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1998.
- Rainer, S. Thom, *우리가 교회 안 가는 이유*, 이혜림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3.
- Scazzero, Peter, & Bird, Warren,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최종훈 역, 서울: 이레서원, 2003.
- Schwarz, A. Christian, *자연적 교회성장*, 윤수인, 정진우, 박동건, 오택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7.
- Schaeffer, A. Francis,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5.
- Slaughter, Michael, *미래를 담는 교회*, 김형원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 Smith, Chuck, *척 스미스목사의 괄보리교회 이야기*, 박현식 역, 서울: 하늘기획, 2002.
- Snyder, A. Howard,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 _____, *21세기 교회의 전망*, 박이경, 김기찬 역, 서울: 아가페, 1993.
- _____, *참으로 해방된 교회*, 권영석 역, 서울: IVP, 2005.
- _____, *교회 DNA*, 최형근 역, 서울: IVP, 2006.
- Stanley, Andy, & Bill Willits,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노스포인트 교회의 성장비결*, 이종순 역, 서울: 디모데, 2005.
- Stevens, Paul,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이철민 역, 서울: IVP, 1995.
- Stott, R. W. John, *그리스도가 보는 교회*, 생명의 말씀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 Sweet, Leoanrd, *모던시대의 교회는 가라*,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4.
- _____, *미래 크리스천*,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5.
- Taylor, Steve, *교회의 경계를 넘어 다시 교회로: 도대체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성석환 역, 서울: 예영, 2008.
- Tucker, A. Ruth,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교회*, 최요한 역, 서울: 스텝스톤, 2008.

- Wagner, C. Peter,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 _____, *교회성장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_____, *개혁하라*, 홍용표 역, 서울: 예찬사, 1997.
- _____, *교회개혁 가이드*, 홍원팔 역, 서울: 서로사랑, 1997.
- Wagner, E. Glenn, *사람을 잃지 않고 성장하는 교회*, 차성구 역, 서울: 좋은 씨앗, 1999.
- _____,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 Warren, Rick,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2001.
- Yancey, Philip,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김동완 역, 서울: 요단, 2000.

3. 외국 서적

- Chaney, Charles L, *Church Planting at the End for the Twentieth Century*,
Wheaton: Tyndale House Publishers, 1982.
- Wagner, C. Peter, *Church Planting for a Greater Harvest*, Ventura: Regal, 1990.
- McGavran, Donald,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Eerdmans, 1970.
- Malpurs, Aubrey, *Planting Growing Church for the Twenty-first Centur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2.
- Schwarz, Christian A, *Natural Church Development*, Carol Stream: Church Smart
Resources, 1996.

Vita of
Taehyo Ban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Suwon Onnuri Church, Suwon

Present Data:

Birthdate:	Jan 10, 1962
Marital Status:	Married to Kukhyun Lee with two children, Da Hye and Ho Min
Home Address:	Keon Young 2th Apt, # 1504, 664 Dong, Youngtong Dong, Youngtong Gu, Suwon
Denomination: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CK)
Ordained:	April 23, 1993

Education:

B. A.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1985
M. 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89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09

Personal Experience:

12/2006 to present:	Senior Pastor of Suwon Onnuri Presbyterian Church
11/2002 to 11/2006:	Senior Pastor of Irvine Onnuri Church, Irvine

07/2001 to 11/2006: Director
of Father School of Duranno North America,
LA

01/1998 to 06/2001: Chief Assistant Pastor
of Onnuri Presbyterian Church, Seoul

04/1993 to 12/1997: Assistant Pastor
of Onnuri Presbyterian Church, Seoul